

束草文化

1991 / 第 7 號



束草文化院

관광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雪嶽觀光株式會社

케이블카



會長
韓丙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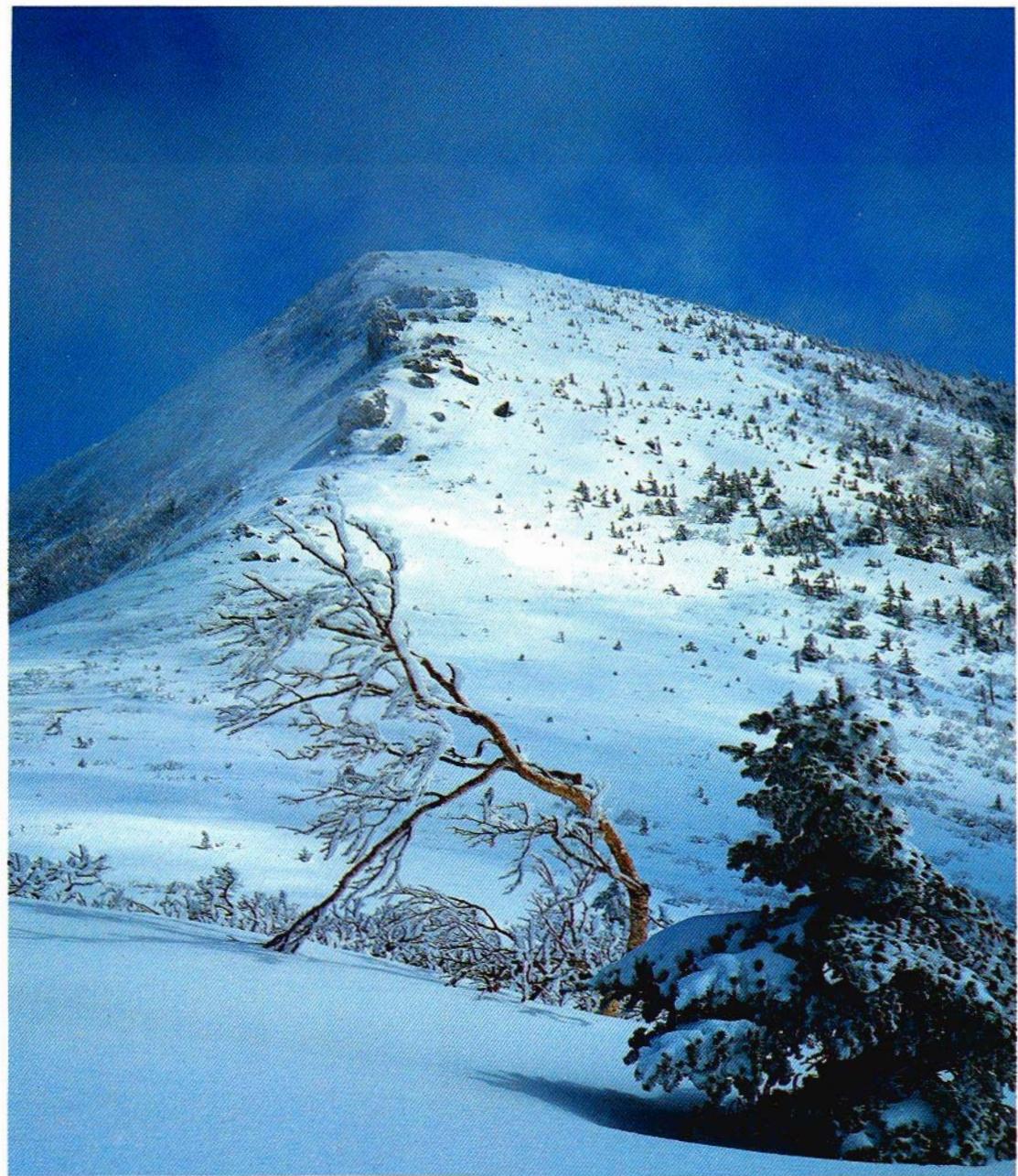


代表理事 社長
崔澤琳



본사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 34-7365)

지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1-39 정남빌딩 401호 (☎ 558-3889)



사진/김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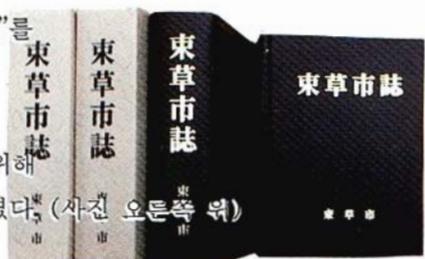
★ 束草文化院에서는

향토사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알 독 요연하게 정리한 “束草市誌”를
최근 완간해 내었다. (사진 원쪽 위)

★ 束草文化院에서는 전통고급문화와의 접촉기회 확대를 위해

국립 국악원을 초청하여 “국악의 밤”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사진 오른쪽 위)



★ 束草文化院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이질적인 문화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고수하고 전승했는지를 알아보고, 실향민으로 재구성된 우리 지역의 문화와 비교해 보기 위해, 소련거주 조선족작가 한진선생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기도 하였다. (사진 오른쪽 아래)



주식회사 대양은

속초지역의 고른 산업발전에 기여해 균등한 富의
분배를 돋고 있습니다.



대포농공단지 조성사업 <농공지구 조감도>

주식회사 대양

대표이사 박 봉 영

현장소장 박 승 호

공사과장 이 현 갑

본 사 : 춘천시 효자 2동 709번지

현장사무소 : 속초시 대포동 95번지

暮秋此更
 香雨地聞
 半新重捲
 山晴捲來
 一水難上
 如自可歌
 畫波火歌

辛未冬至錄安軸詩
 寒溪元基春



寒溪 元 基 春

- 江原 東草出生
- 玄川 趙達順 先生 師事
- 現 寒溪書樓 운영
- 83년 修復塔 修復記念塔 復元記契 母子相賦 書寫
- 中央日報주최 中央揮毫大會 大賞
- 주소 :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40-2(3층)

漢溪書樓 ☎ 703-9832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거례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を 잃었을 때 거례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產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 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頽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꽂고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荣光된 거례의 來日을 위하여 價值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거례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們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루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차례

東草文化

1991 / 第七號

| | |
|------------------------------|----------|
| □ 속표지 | 김 정 일·3 |
| □ 화보 | 4 |
| □ 휘호 | 원 기 춘·7 |
| □ 권두사/향토문화의 자긍심 확대를 위해 | 지 일 권·10 |
| □ 축간사/시민 정신의 길잡이 | 김 승 래·12 |
| □ 권두시/별을 지켜선 밤 | 이 성 선·14 |
| □ 특집/근대의 속초지방(1) | 박 익 훈·15 |
| □ 향토사료/유물재비 | 주 상 훈·35 |
| □ 스케치 기행/세계적인 명산 설악의 속초향 | 박 병 주·43 |
| □ 설악제 참관기/산악인과 속초시민의 대축제 | 유 만 육·48 |
| □ 시론/가깝고도 먼 통일의 길 | |
| • 남북 합의서에 대한 환영과 우려 | 이 인 철·56 |
| • 가깝고도 먼 통일의 길 | 오 윤 근·59 |
| • 멸사봉공 | 고 영 화·61 |
| □ 방문기행/일본의 관광지 실태와 속초시의 개발방향 | 경 인 수·63 |
| □ 대담/속초 향토기업 주식회사 발기와 시민의 동참 | 이 건 석·66 |
| □ 지방자치시대개막/초대 속초시 의회 구성 | 68 |
| □ 내고장 인물/애국지사 이재훈 | 이 시 행·73 |
| □ 국립공원 설악산/헤론의 공식 | 이 인 영·76 |
| □ 국립공원 설악산/비선대에 얹힌 시문과 각자(2) | 박 익 훈·78 |
| □ 속초의 민속/속초의 전통신앙 | 장 정 룡·81 |
| □ 속초문예 | |
| • 속초 金씨 | 김 춘 만·86 |
| • 한계령 단풍 | 장 승 진·87 |
| • 대포동 갈매기 | 김 명 기·88 |
| • 섬 | 김 승 기·89 |
| □ 권말부록/속초시 일지 | 91 |
| □ 속초문화원 입원·회원 명단 | 121 |
| □ 표지작가 | 125 |

향토문화의 자긍심 확대를 위해



池一權
속초문화원장

향토(鄉土)에 대한 사랑과 그 자긍심(自矜心)이 결국, 향토문화의 質을 좌우한다. 향토라 함은, 적어도 당대의 내가 일정기간 몸을 의지해 살고 있는 특정의 한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자손만대 후손들이 정을 불이고 살아가야 할 일정한 공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토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특정의 공간에서 염두에 두는 특유의 생활방식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 특유의 생활방식을 우리는 흔히 鄉土文化라고 정의하고 있거니와,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이들이 그 고유의 문화적 양식을 굳이 고수하려 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특정 공간에서 일정기간동안 공동으로 체득한 삶의 양태를 부인하는 이들에 의해 그 공동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따라서 향토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자신의 향토에 대한 자부와 긍지가 우선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향토에 대한 사랑이나 자긍심은, 절로 향토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게 된다. 향토에 관해서는 무엇이든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지역의 역사나 자연환경, 또는 전설이나 풍속, 산업구조나 주민 의식구조 따위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에서는 향토에 관한 모든 자료를 집대성한 「東草市誌」를 수년간의 작업 끝에 첫 편찬해 내기에 이르렀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므로, 이제는 향토민들의 그러한 욕구에 다소나마 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을 기초자료로 하여, 우리 문화원에서는 향토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끊임없

“
향토에 대한 자긍심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이들이
그 고유의 문화적 양식을 굳이 고수하려 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향토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향토애가
우선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 수집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향토애를 유발하여 향토문화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향토문화의 질적 향상이 구체적으로 지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달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 문화원이 향후 문화사랑방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함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모여서 토론하고, 함께 지식을 얻고, 취미를 가꾸어나가는 작업을 어울려 하면서, 고급 문화와의 접촉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 「속초문화」 제 7 호도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민들에게 향토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함께 어울려 토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 책의 발간의 도이다. 이 책으로 인해, 향토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고, 향토에 관한 자긍심을 고양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시민정신 정립의 길잡이



김승래
속초시장

속초문화 발간은 참으로 의미깊고 보람찬 일이기에 경하여 마지 않습니다.

훌륭한 향토사와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관심속에 소홀히 다루어져 왔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속초문화 발간을 통하여 역사의 그늘에서 잊혀졌던 우리의 과거를 발굴 재조명하고 체계있게 정리하여 변모하는 참모습을 살필 수 있게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속초문화를 통하여 내고장을 보다 정확하게 앎으로써 오늘의 우리 모습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보다 원대한 미래창조를 위해 참된 향토애를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설악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발전해 온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와 교육의 고장으로서, 또 앞으로 금강 설악권 개발과 더불어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을 지닌 미래의 도시 희망의 고장으로서, 주거와 산업이 완벽하게 조화된 새로운 전원도시로 탈바꿈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발간되는 속초문화가 소중하고 값진 향토지로서 우리 모두에게 자랑과 자부심을 새롭게 깨우치고 내고장 건설에 앞장서 참여하고 협동하는 참된 시민정신을 정립하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요즈음 우리의 경제는 과소비 풍토의 만연과 수출부진 무역적자 증가 등 대단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

“이번 「속초문화」가
소중하고 값진 향토지로서
우리 모두에게 자랑과
자부심을 새롭게
깨우치고, 참된 시민
정신을 정립하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시민의 결속을 통한 사회 안정이 요구되고 생산성 향상에 온 시민이 힘써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완벽한 속초문화지가 발간되어 청사에 길이 빛나는 애향애족 전통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내고장을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다같이 참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발간사업을 위해 애써주신 지일권 문화원장과 여러 집필위원들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와 치하를 드리며 속초문화지가 우리 고장을 지켜나가는 향토문화 창달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回 卷頭詩 回

별을 지켜선 밤

나무 결에서 별을 바라보면
내 몸에서 소리가 난다

하늘의 물방울 음악이 들린다

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안다
별이 가득한 나무 아래 서면

나뭇가지 실핏줄을 타고
숨소리 죽여 흘러내리는
별들의 하얀 강물줄기

내 몸까지 젖어 번쩍이는
저 우주의 물빛

나무 아래서 샘물을 마시면
내 영혼에 날개가 돌아난다
나는 이미 하늘의 악기가 된다

죽음 가까이 깨어
부르는 소리가 저승까지 흐른다

내가 잠시 잠이 들어도
위대한 이는 내 안에 들어와

강물로 별을 목욕시키며
소름끼치는 물방울 향기 텅기며
가난한 날개를 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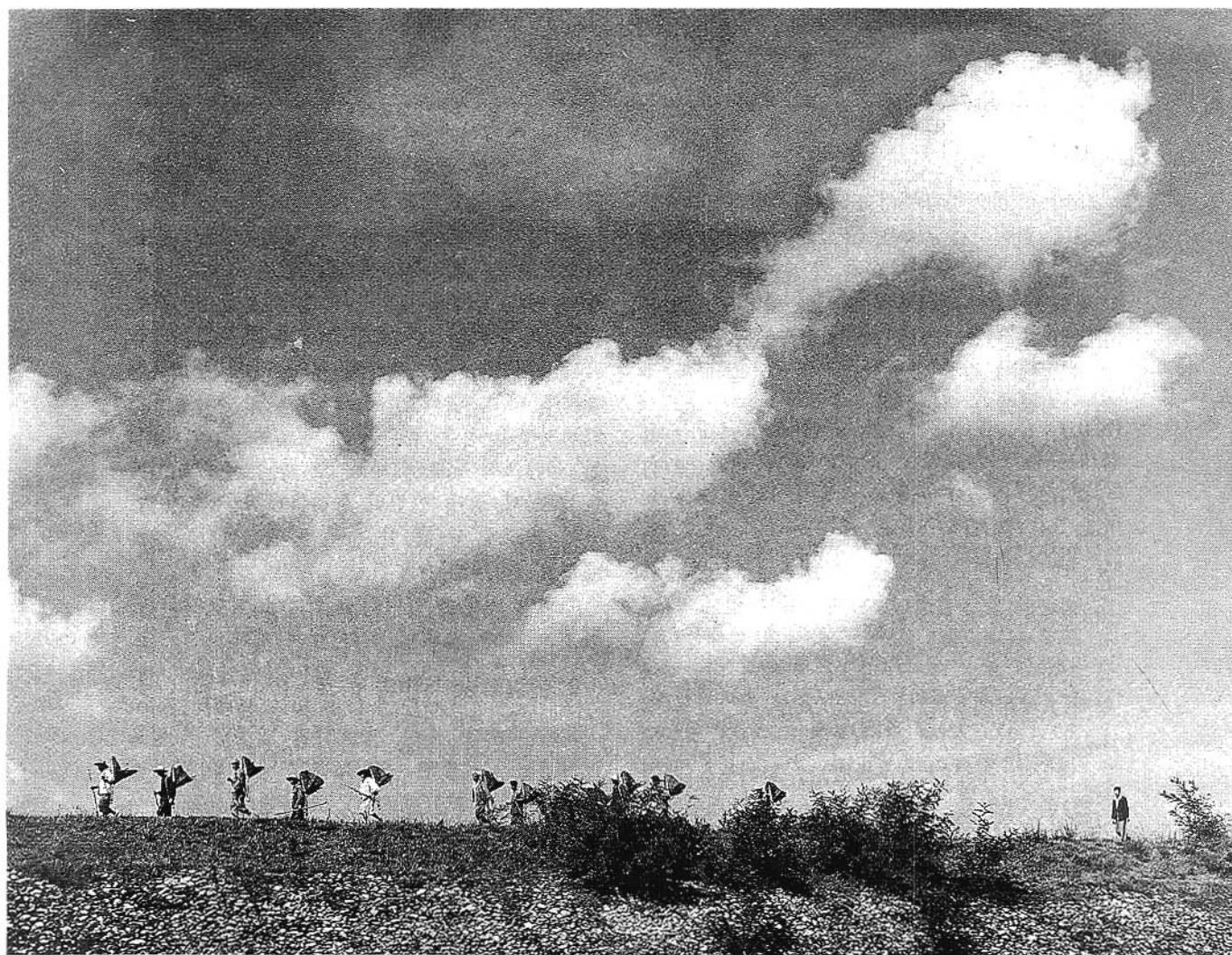


이성선 / 시인

특집

근대의 속초지방

—일제시대—



근대의 속초지방(I)

—일제시대—

1. 序

1910년 한일합방부터를 일제시대라 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1904년(光武8) 2월23일 체결한 의정서에 의한 때부터라 할 수 있다.

청일전쟁(淸日戰爭)에 승리한 일본은 노일전쟁(露日戰爭)을 일으켜 전세(戰勢)가 유리해지자 한국에게 강요(強要)하여 의정서(議定書) 6조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황현(黃鉉)이 쓴 매천야록(梅泉野錄)에 의하면 죄익현(崔益鉉)이 지적한 일본 죄목(罪目) 16가지 중 하나로 “나라의 도적 지용(址鎔)을 피어 굴레를 씌워 의정서(議定書)를 만들게 하였으니 죄(罪)의 일곱째다.”(誘戒賊子 址鎔 勒爲 議定書 其罪七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의정서(議定書) 4조에 “제3국의 침해(侵害)에 의하여 혹은 내란(內亂)을 위하여 대한제국 황제(大韓帝國皇帝)의 안녕(安寧)과 영토(領土)의 보전(保全)에 위협(危險)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 정부(大日本政府)는 임기필요(臨機必要)한 조치를 행(行)하여야 하고 대한정부(大韓政府)는 대일본 정부의 행동을 용이(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便宜)를 준다. 대일본 정부가 전항(前項)의 목적을 성취(成就)하기 위하여 군략상(軍略上) 필요한 지점(地點)을 수의수용(隨宜收用) 할 일”등이다.(崔南善著 朝鮮歷史).

자기 나라 일을 남에게 맡기는 꼴이 되고 말

았으니 여기서 벌써 일본이 군대를 한국에 파견할 수 있는 꼬투리를 만들어 한국침략(韓國侵略)에 좋은 미끼를 준 셈이다.

범 없는 골에 살쾡이가 된 일본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을 병력(兵力)을 동원해 가며 강제로 맺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要約)하면, “첫째 일본 외무성(日本 外務省)이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통리지휘(統理指揮)하고, 둘째 금후(今後)로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를 경유(經由)하지 않고는 여하(如何)한 국제조약(國際條約)도 할 수 없으며, 셋째 한국 황제 밑에 한명의 통감(統監)을 두어 한국의 외교에 관(關)한 사무를 관리한다.” 등(韓國史大事典)이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은 물론이고 내정(內政)까지 관장(管掌)하게 되었다.

2. 한일합방 직전의 속초

1899년(高宗 36년, 光武3)에 발행한 강원도 양양군읍지(江原道 襄陽郡邑誌 一)에 의하면 양양군은 군내면(郡內面), 위산면(位山面), 사현면(沙峴面), 강산면(降山面), 도문면(道門面), 소천면(所川面), 부남면(部南面), 현북면(縣北面), 현남면(縣南面) 등 12개면으로 되어 있으나 상세한 기록은 없고 면 이름과 거리만 표시되어 있다. 이보다 약 10년 전인 것으로 보이는 양양읍지(襄陽邑誌)에 의하면 속초는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합친 것인데 2개면



박익준

향토사학자, 현재 속초문화
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으
로, 향토사 연구에만 전념하고
있다.



9개리로 되어 있다.

이 2개면은 청대산(青岱山)을 중심으로 남쪽
은 도문면(道門面)이라 하여 상도문(上道門),
하도문(下道門), 물치리(沕淄里), 옹진리(翁津
里), 신흥사(神興寺) 5개리로 되어 있다.

청대산(青岱山) 북쪽은 소천면(所川面)이라
하고 논산리(論山里), 부월리(扶月里), 속초리

(東草里), 속진리(東津里) 4개리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이외에도 현산
지 전(峴山誌 全), 양양부읍지 전(襄陽府邑誌
全), 관동읍지(關東邑誌) 등 여러곳에 기록되어
있으나 발행년대(發行年代)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참고

| 면 | 기록사항 동리 | 문현 양양읍 소재지로 주택 개수(호수) | 양양읍지(1886년 이후 것임) | | | 참 고 |
|--------------|------------|-----------------------------|-------------------|-----|-----|-------|
| | | | 호수 | 인 구 | | |
| | | | | 남 | 여 | 계 |
| 도문면 (道門面) | 상도문리 | 35 | 57 | 112 | 111 | 223 |
| | 하도문리 | 20 | 24 | 28 | 42 | 70 |
| | 물치리 | 20 | 41 | 69 | 92 | 161 |
| | 옹진리 | 25 | 29 | 49 | 37 | 86 |
| | 신홍사 | 50 | 22 | 28 | 28 | 48 |
| 소천면 (所川面) | 계 | | 173 | 306 | 282 | 588 |
| | 논산리 | 30 | 16 | 22 | 57 | 79 |
| | 부월리 | 35 | 51 | 71 | 88 | 159 |
| | 속초리 | 35 | 77 | 103 | 153 | 256 |
| | 속진리 | 35 | 35 | 40 | 57 | 97 |
| 총계 | 계 | | 179 | 236 | 355 | 591 |
| | 9개리 | | 352 | 542 | 637 | 1,179 |

3. 합방후의 속초

1910년 8월28일 병합조약(併合條約)이 발표되었는데,

제1조 한국황제폐하(韓國皇帝陛下)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국황제폐하에게 양여(讓與)함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前條)에 게재(掲載)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併合)할 일을 승락함(이하 생략)

남의 나라를 강제로 빼앗고도 양도받았다고 했다.(서울대학 국사연구회 편저 국사개설)

그후 3년이 지난 1913년 행정구역(行政區域)을 변경하고 1914년 시행했는데 도문면과 소천

면을 합하여 도천면이라 하고 동리수(洞里數)는 11개리(내물치리(內物瀬里), 하도문리(下道門里), 중도문리(中道門里), 상도문리(上道門里), 장항리(獐項里), 대포리(大浦里), 외옹치리(外翁峙里), 부월리(扶月里), 논산리(論山里), 노리(蘆里), 속초리(東草里))였다.(大正十四年現在=道川面面勢一班)

행정구역상(行政區域上)으로는 신흥사가 장항리(獐項里; 노루목)로 변했고 도문리는 중도문이 하나 더 늘고 옹진리는 외옹치로 되었고 대포리와 노리가 새로 생겼으며 속진리(東津里)는 속초리에 합쳐지고 말았다. 면에는 면장(面長) 1인과 서기(書記) 5인 이(里)에는 구장(區長) 각 1인을 두었다.

면세통계개람표(面勢統計概覽表)

大正14년말 현재(1925)

| 종류/이면 | 단위 | 장항 | 상도문 | 중도문 | 하도문 | 내물치 | 대포 | 외옹치 | 부월 | 논산 | 노리 | 속초 | 계 |
|-------|------|-------|-------|--------|-------|-----|-------|-------|-------|-------|--------|-------|--------|
| 호수 | 호 | 50 | 129 | 92 | 27 | 86 | 155 | 93 | 84 | 95 | 119 | 189 | 1,119 |
| 인구 | 人 | 132 | 218 | 274 | 95 | 241 | 411 | 238 | 247 | 296 | 378 | 548 | 3,240 |
| | | 82 | 361 | 267 | 79 | 227 | 227 | 225 | 229 | 276 | 357 | 510 | 2,979 |
| 논 | 묘(畝) | 58 | 4,832 | 7,338 | 1,605 | 583 | 3,211 | 1,331 | 4,170 | 9,431 | 13,225 | 8,213 | 54,097 |
| 밭 | 斗(斗) | 2,368 | 7,716 | 11,407 | 3,456 | 522 | 2,465 | 840 | 4,044 | 4,494 | 5,547 | 2,966 | 3,205 |
| 쌀 | " | 34 | 3,851 | 6,372 | 1,278 | 421 | 931 | 2,555 | 3,656 | 7,612 | 10,383 | 9,465 | 46,558 |

| 종류/이면 | 단위 | 장항 | 상도문 | 중도문 | 하도문 | 내물치 | 대포 | 외옹치 | 부월 | 논산 | 노리 | 속초 | 계 |
|-------------|----|-------|-------|-------|-------|-------|-------|-------|-------|-------|--------|-------|--------|
| 조 두 | | 140.1 | 587.0 | 798.2 | 285.5 | 98.5 | 425.7 | 139.9 | 658.5 | 684.4 | 1046.4 | 542.6 | 5676.7 |
| 보리 | " | 25.7 | 547.1 | 58.7 | 322.7 | 187.8 | 55.8 | 2968 | 708.7 | 730.2 | 528.2 | 528.7 | 4979.3 |
| 밀 | " | 7.5 | 144.7 | 136.0 | 91.0 | 43.2 | 114.0 | 92.4 | 149.0 | 251.0 | 172.1 | 182.0 | 1382.9 |
| 콩 | " | 907 | 1021 | 113.0 | 705 | 151 | 620 | 255 | 1310 | 1500 | 1420 | 1045 | 1006.4 |
| 팥 | " | 101 | 135 | 101 | 80 | 30 | 59 | 39 | 136 | 95 | 159 | 72 | 1007 |
| 누에고치 | " | 73 | 1535 | 452 | 90 | 3 | 18 | | 23 | 253 | 205 | 7 | 9607 |
| 소 두(頭) | | 19 | 124 | 97 | 36 | 15 | 28 | 21 | 87 | 113 | 170 | 66 | 776 |
| 베(麻) 관(貫) | | | 18 | 25 | | | | | 20 | 151 | 18 | | 96 |
| 제지(製紙) 원(圓) | | | 420 | 596 | | | | | | 450 | | | 1466 |
| 수산 | 원 | | | | | 14657 | 11758 | 5170 | | | | 11116 | 42700 |

4. 호구(戸口)

(大正十四年~1925 현재)

| 이명 | 내지인 | | 조선인 | | 외국인 | | 계 | |
|-----|-----|-----|-------|-------|-----|----|-------|-------|
| | 호수 | 인구 | 호수 | 인구 | 호수 | 인구 | 호수 | 인구 |
| 장항리 | | | 50 | 214 | | | 50 | 214 |
| 상도문 | | | 129 | 741 | | | 129 | 741 |
| 중도문 | | | 92 | 541 | | | 92 | 541 |
| 하도문 | | | 27 | 174 | | | 27 | 174 |
| 내물치 | | | 86 | 468 | | | 86 | 468 |
| 대포 | 23 | 93 | 131 | 681 | 1 | 3 | 155 | 777 |
| 외옹치 | | | 93 | 463 | | | 93 | 463 |
| 부월 | | | 84 | 476 | | | 84 | 476 |
| 논산 | | | 95 | 572 | | | 95 | 572 |
| 노리 | | | 119 | 735 | | | 119 | 735 |
| 속초 | 2 | 7 | 187 | 1,051 | 1 | 3 | 189 | 1,058 |
| 총계 | 25 | 100 | 1,093 | 6,116 | 2 | 6 | 1,119 | 6,2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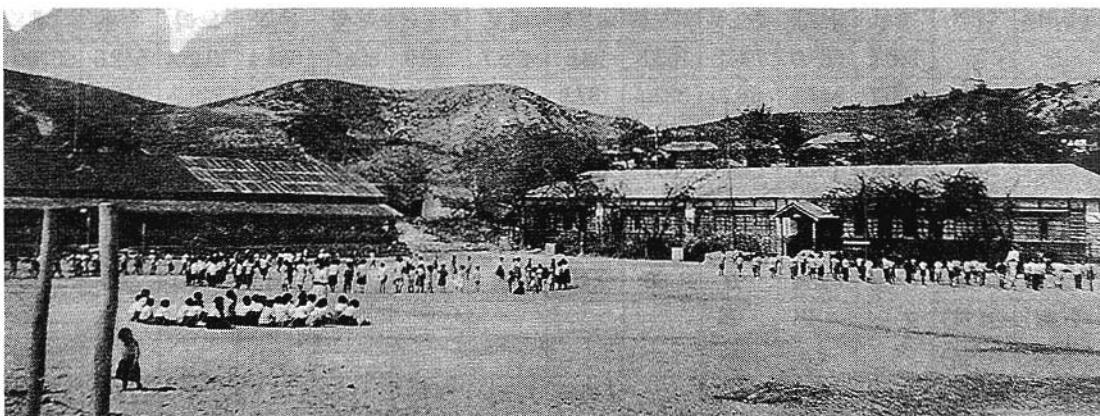
위의 표와 같이 일본인들은 요지인 대포리와 속초리에만 거주하였는데 대포리에 23호 93인이 살았고 속초리에는 2가구에 7사람이 살았다 는 것은 대포가 그때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대포리와 속초리에 일본사람이 아닌 외국사람 2가구 6사람이 살았는데 80대 노인들도 아는 분이 없다. 그때 중국인 석공(石工)이 물치에 2사람 있었다 한다.(金鎔基씨 증언)

5. 교육(教育)

건양원년(建陽元年, 1896년 高宗33)에 서울에다 관립소학교(官立小學校)를 세우고 8세에서 15세된 아동을 모집했으며 학교에는 1907년에 (純宗1) 황제어진(皇帝御眞=日本國王)을 봉안(奉安)했다.

〈建陽元年 高宗三十三 増建官立小學校于京中募兒童 八歲至十五歲 皇帝御眞奉安〉(隆熙元年 =黃玹著 梅泉野錄)



합방전에 서울에는 이미 일본인 소학교가 생겼다는 것이다.

1909년(隆熙3) 이때 전국에서 사립학교를 청원(請願)한 수가 2,506개소나 되었다. (是時 全國私立學校 請願數 為二千五十六具) (梅泉野錄)

이 사립학교란 한국사람이 청원한 학교로서 한국인들의 신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낸 것이다.

속초지방(道川面)에는 교육기관으로 공사립이 있었는데 다음표와 같다.

교 육

| 학 교 별 | 학 교 수 | 교 원 수 | | 학 生 수 | | 학 급 수 | 교 육 비 |
|-------|-------|-------|----|-------|----|-------|--------|
| | | 남 | 여 | 남 | 여 | | |
| 공 립 | 보통학교 | 1 | 5 | 316 | 19 | 5 | 4,523円 |
| | 소 학 교 | 1 | 1 | 11 | 12 | 8 | 2,443円 |
| 사 립 | 사 숙 | 15 | 16 | 164 | 42 | | 1,398円 |
| 계 | | 17 | 22 | 492 | 73 | 13 | 8,363円 |

(大正十四年 現在 1924년, 道川面 面勢一班)

보통학교(普通學校)란 한국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이고 소학교는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인데 한국인과 일본인을 따로 교육시켰고 예산도 학생수에 비해 차이가 많았다. 사숙(私塾)이란 한국인들이 부락 자체로 개설한 강습소(講習所); 개량서당(開良書堂)인데 각부락마다 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항상 일인들의 감시가 심했다.

1911년 8월 조선교육령(朝鮮教育令)이 공포되니 14년이 되도록 이 고장에는 양양공립보통학교(襄陽公立普通學校)와 대포공립보통학교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성(理性)이 풍부(豊富)한 지성인(知性人)보다 일인들의 명령에 잘 복종(服從)하는 순종인(順從人), 즉 고급두뇌(高級頭腦)보다 저급한 근로인(勤勞人)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20년 현재 전국에 보통학교가 6개면에 1개교씩이고 고등보통학교는 남학교가 5개교, 여학교가 단 2개교뿐이었다.”(朴相萬著 한국교육사)

도천면 당시 일본말 조사표를 보면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이 남자가 275명 여자가 44명이고, 보통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가 70명 여자가 1명으로 되어 있다.

일제는 한국인을 일본인화(日本人化) 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일어보급(日語普及)에 급급하였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는 조선어 교과서를 없애고 일어만 사용하도록 독려했지만 오랜 전통과 우수한 한글을 가지고 있는 문화민족에게는 수포(水泡)로 돌아가고 말았다.

1936년에 일제는 교육령(教育令)을 개정하여 보통학교(普通學校)를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로 고치고, 고등보통학교(高等普通學校)를 중학교(中學校)로, 여자고등보통학교(女子高等普通學校)를 여자고등학교(女子高等學校)로 고쳤다.(朴相萬著, 한국교육사 중권)

이 무렵 지금 영랑국민학교 전신(前身)인 영랑공립심상소학교(永郎公立尋常小學校)가 설립되었으나 얼마 안가서 해방이 되었다.

속초지방 출신 인물 대부분이 대포공립보통학교와 영랑공립심상소학교 출신들인데 대포출신들이 더 많은 편이다.

양양보통학교 제2회 졸업생인 김종극(金鍾極; 前襄陽郡教育長·85)옹의 말에 의하면 그때는 보통학교 선생님들까지도(판임관이상) 칼을 찼는데 3. 1운동 이후부터는 차지 않았다 한다.

그때 총독 데라우찌(寺內)는 무단정치(武斷政治)라하여 한국인은 무력으로 누르면 된다는 생각으로 총독부 경무국장에 일본인 현병사령관, 각도 경무국장에 각 도 현병대장들을 임명하였고, 경찰관들은 평상시에도 긴 칼을 차고 돌아다녔으니 교원이 칼을 차야 조선인 교육이 잘 될것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무단정치에 실패한 데라우찌는 물러가고 그 뒤를 이은 사이도오(齊藤)는 정책(政策)을 바꾸어 문화정치(文化政治)를 한답시고 한일공학제도(韓日共學制度)라 하여 1919년 신교육령(新教育令)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가정사정, 둘째 수학(修學)의 편의, 셋째 장래 생활상(生活上)의 필요성이다. 이 세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자는 한일공학(韓日共學) 할 수 있다 했으나 한일합방(韓日合邦)에 공(功)이 있는 자와 자기 영달(榮達)을 위해 일제(日帝)에 아부하는 자의 자녀외에는 응하는 사람이 없는데다가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니나미(南)총독은 1938년 교육방침을 고쳐 국체명징(國體明徵), 내선 일체(內鮮一體), 인고단련(忍苦鍛鍊)으로 정하고 일본인과 조선인은 같은 민족이라 해가며 같은 방법으로 일본어 보급(普及)에 안간힘을 다했다. 왜정말기(倭政末期)에는 학교에 조선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일본어만 사용토록 강요했

지만 조기(所期)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6. 치안(治安)

도천면(道川面)에는 대포리에 주재소(駐在所; 지금의 지서)가 하나 있었다.(1925년 현재) 경찰관 4명 중 순사부장(巡查部長; 일본인) 한 사람, 순사(巡查; 지금의 순경) 3사람 중 한국인 2명(巡查補) 모두 4사람이 한 면의 치안을 맡았으니 그때 사람들은 순박하기도 했지만, 어린이들이 올다가도 “일본순사 온다”하면 그칠 정도로 사나웠건만 치안이 잘 되었다는 것은 일제의 탄압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7. 교통(交通)

가. 육운

1925년경 속초지방에는 자동차, 기차는 다니지 않았지만 도천면 면세일반(面勢一班)에 의하면 육운(陸運)에 있어서는 원산·양양선과 인제·대포선이 있었다.

원산·양양선은 2등도로라 하여 동해안을 따라 양양서 원산까지 통하는 육로(陸路)인데, 지금 청호동 갯배다니는 곳을 지나 다녔다. 당시에는 갯목이 막혀 배를 타시 않고 나닐 수 있었으나 청초호가 개발된 뒤로부터는 갯배를 타야 했다.

1932년경부터 붉은 색의 소형버스가 다녔는데 그 때는 차도 갯배에 실려 다녔다.

왜정말기(倭政末期)부터 현 도로인 청초호 서쪽을 돌아 다니게 되었다. 이 우회도로는 1939년 착공하여 1940년에 준공했다 한다.(金澤鎮 證言)

대포·인제선은 3등도로라 하여 인제에서 미시령(彌失嶺)을 넘어 노리(蘆里)를 거쳐 지금 부월리에서 양양·원산을 통하는 2등도로와 연결하게 되었다.

운반용구(運搬用具)로는 짐수레 8, 소달구지 11, 자전차 56대가 이용되었다.



참 고

• 미시령(彌矢嶺)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신증문헌비고(新增文獻備考), 간성지(杆城誌; 李植著)에는 모두 미시파령(彌時坡嶺)으로 기록되어 있다.

미시파령(彌時坡嶺)이란 뜻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험하고 급한 언덕의 재”란 뜻이다. 다시 말해서 彌時란 오랜 시간이란 의미고, 彌矢는 활시위에 메인 화살이란 뜻이다. 彌時와 彌矢는 음은 같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거리가 멀다.

彌時坡嶺을 “坡”를 빼고 “彌時”로 한다는 것은 간편하다 할 수 있지만 “彌時”를 “彌矢”로 고친다는 것은 아무 설득력(說得力)이 없다.

미시령은 간성군에 속해있는 嶺임에도 불구하고 간성지에는 彌矢嶺으로 기록된 것이 없고 전부 彌時로 기록되어 있으며, 1877년 이후에 발간된 것으로 보이는 관동읍지(關東邑誌)와 1887년 이후에 발행한 양양읍지(襄陽邑誌) 도로조(道路條)에 “…관문으로부터 …북으로 낙산사십오리, 인제 미시령 육십오리 …(自官門 …北脂洛山寺十五里, 麟蹄彌矢嶺六十五里….)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彌矢嶺이란 “矢”的 첫 출처(出處)는 양양읍지이고 시간적으로는 약 100년 전후이다. “時”가 “矢”로 변한 것은 음이 같고 “彌”를 “오

렐 미”로 해석못하고 “활 부릴 미”로만 해석한 까닭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산지 전(峴山誌 全) “오색령조(五塞嶺條)”에 오색역(五色驛)을 간성 원암령(元岩嶺) 밑으로 옮겼다.(移驛於杆城之元岩嶺地梢) 미시령을 원암령으로도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간성지 잡기(杆城誌 雜記)에 “간성관내 영(嶺)들은 다 협한 곳이어서 겨울이 되면 모두 눈(雪)에 막혀 다니지 못하고 오직 미시파령만 다닐수 있다. 양양과 간성지방에서 나라에 바치는 공물(貢物)들을 이 채로 넘겼는데 말(馬)과 장정들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 인제 남교역(嵐校驛)까지 운반해 갔다”한다.(原文省略)

『1630년(仁祖10) 12월초 10일 토성촌(土城村)에 사는 애남(愛男)이란 청년(18세)이 아버지와 함께 장사차 이 채를 넘다가 눈사태를 만나 수백자(尺)나 되는 구렁에 말(馬)과 함께 묻혔다. 밤낮 아흐례가 지난뒤 장사 지내려고 시체를 발굴하는데 사람 우는 소리가 들려 “너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애남”이라 하기에 귀신인줄만 알고 “애남”이란 증거를 보이라 하니갓(笠子)을 내보여 겨우 구출했다. 9일동안이나 눈을 먹고 연명하고 눈 녹은 비위틈에 빙 곳이 있고 그리 춥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原文省略)

원암리(元岩里) 마을 한가운데에 “서낭봉”이라는 등근산이 있는데 옛날 미시령을 넘을 때는 이 산에 제사를 지내고 넘었다 한다.

4. 해운

해운(海運)에 있어서는 일본 큐슈모지항(日本九州 門司港)에서 출발하여 대포(大浦)를 거쳐 함경북도 웅기(雄基)까지 우편물을 싣고 매달 운행했는데 매우 편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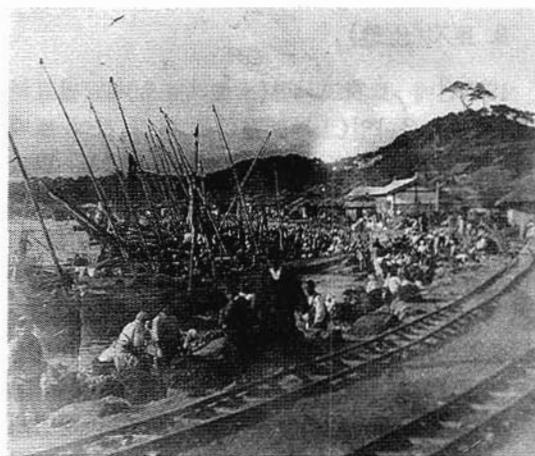
5. 철도

철도는 경인선(京仁線; 서울-인천)이 1900년(光武4, 高宗37) 처음 개통되어 매일 4회씩 왕복했다.(黃玹著 梅泉野錄)

경부선(京釜線; 서울-부산) 광무5년(1901,

高宗38) 착공, 1905년에 개통되었다. 목재는 울릉도에서 가져왔다.(梅泉野錄)

속초지방에는 1935년경부터 기차가 다니게 되었고 철로(鐵路)는 삼척까지 기초공사가 다되어 있었으나 기차는 양양까지만 다녔고 기차역은 부월리와 동명동에 있었다.



교 통

(大正十四年, 1925년 現在)

| 육 운 (陸運) | 노 선 명 | 등 급 | 폭원(幅員) | 연 장 | 연도저명부락 | |
|-------------|---------------------|-------------|--------|----------|----------|-----|
| | 원산·양양선 | 2 | 3 | 1,350丁 | 대포리, 속초리 | |
| | 인제·대포선 | 3 | 2 | 218丁 | 노리 | |
| | 육 상 | 인력거 | 하차(荷車) | 하우차(荷牛車) | 객마차 | 자전차 |
| | 운 반 구 | | 8 | 11 | | 56 |
| 해 운(海運) | 조선우편정기선 모지(門司)·옹기선로 | 대포 기항(寄港)회수 | 남·북행 | | | |

각면 이정표(各面 里程表)

| | | | | | | | | |
|-----|-------|-------|-------|-------|--------|-------|--------|--------|
| 죽왕면 | 1.20丁 | 4.27丁 | 6.09丁 | 8.27丁 | 11.09丁 | 9.27丁 | 12.09丁 | 14.27丁 |
| 토성면 | 3.07 | 4.25 | 7.07 | 10.25 | 8.07 | 10.25 | 13.07 | |
| 도천면 | 1.18 | 3.18 | 7.00 | 4.18 | 7.00 | 8.00 | 8.18 | |
| 강현면 | 2.18 | 6.00 | 3.18 | 6.00 | 7.18 | | | |
| 양양면 | 3.18 | | 1.00 | 3.18 | 5.00 | | | |
| | | 서 면 | 4.18 | 7.00 | 8.18 | | | |
| | | | 손양면 | 2.18 | 5.00 | | | |
| | | | | 현북면 | 2.18 | | | |
| | | | | | 현남면 | | | |

도천면 각리 이정표(道川面 各里 里程表)

| | | | | | | | | | | |
|-----|------|------|-------|-------|------|------|-------|-------|-------|-------|
| 내물치 | 10丁 | 25丁 | 1.18丁 | 3.00丁 | 20丁 | 35丁 | 1.05丁 | 1.23丁 | 2.05丁 | 2.04丁 |
| 하도문 | 15 | 1.08 | 2.26 | 15 | 30 | 1.00 | 1.18 | 2.00 | 1.35 | |
| 중도문 | 29 | 2.11 | 25 | 1.04 | 08 | 36 | 1.08 | 1.08 | 2.09 | |
| 상도문 | 1.18 | 1.18 | 1.33 | 1.18 | 1.00 | 2.18 | 1.00 | 1.18 | 3.00 | |
| 장항리 | 3.00 | 3.15 | 3.00 | 2.18 | 2.00 | 4.18 | | | | |
| 대포리 | 25 | 1.00 | 1.18 | 2.00 | 1.20 | | | | | |
| 외옹치 | 21 | 1.03 | 1.21 | 1.10 | | | | | | |
| 부월리 | 28 | 1.00 | 2.00 | | | | | | | |
| 논 산 | 18 | 1.18 | | | | | | | | |
| 노 리 | | 1.18 | | | | | | | | |
| 속 초 | | | | | | | | | | |

8. 토지(土地)

1912년에 토지조사령(土地調查令)을 발표하고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查事業)이라 하여 토지 소유자(土地所有者)로부터 신고(申告)를 받았는데 토지의 넓이, 등급, 위치(位置) 등을 기입(記入)한 서류(書類)를 소정(所定)의 기일(期日)내에 내지 않으면 소유권(所有權)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순진하고 몽매한 농민들 중에는 기한내에 신고(申告)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동리 일을 맡아보던 구장(區長)들도 잘못이 있어 기일내 신고되지 않은 토지들은 모두 총독부(總督府) 소유가 되고 말았다.

땅을 빼앗긴 농민들은 면사무소(面事務所)로 찾아가 읊며 애원했으나 아무 소용없었다.

총독부는 이 토지들을 일본인이 경영하는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에 넘겨 주었고 토지 빼앗긴 농민들은 소작(小作) 또는 화전민(火田民)신세가 된 사람도 많았다.

1925년 도천면(道川面) 통계를 보면 논(畠) 54097 단 보 중(1 단 보 = 300坪) 자작(自作)이 29446단보 소작(小作)이 24748단보 거기다가 소작료 마저 반분(半分)해야 했으니 수탈(收奪)에 가혹(苛酷)했음을 알수 있다. 농민 중에는 살 수 없어 남부여대(男負女戴) 정든 고향

을 두고 만주(滿洲)나 일본 탄광 아니면 막노동자로 고향을 떠나야 했다. 필자(朴益勳)도 어릴때 이 광경을 보고 같이 울기도 했다. 이 지방 토박이 박용권(朴容權)씨에 의하면 병자년(丙子年, 1936) 수해때 더 심했다 한다.

잃은 토지들은 8. 15해방후 적산(賊產)이라 하여 국가에 귀속(歸屬)되기도 하고 일부는 일본인 밑에서 고용살이를 하던 한국인에게 인수되기도 했다.

재리에 밝은 사람들은 적산인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내 줄부가 되기도 했다.

임야는 국유림(朝鮮總督府所有)이 49,736단보 사유림(私有林; 한국인·일본인 합한것)이 70,357,507단보였다.

9. 산업(產業)

가. 농업

다음 표와 같이 농업이 주업이고 양잠, 축산, 양봉, 과수원도 있었다. 축산에 있어서는 소가 776두나 되어 농가호수(640호)보다 많았고 돼지는 119마리, 닭 756마리인데 말 한필, 노새 3필, 나귀 3필이 있었으며 종모우(種牡牛)가 6마리에 교배수가 241회였으니 일년에 241마리의 송아지가 난 셈이다. 소가 큰 재산이었고 말, 노새, 나귀는 주로 영(嶺)을 넘을때 짐을 나르는데 사역(使役)되었다.(1925년 현재)



도문리 토박이로 알려진 박용권(朴容權)씨 말에 의하면 속초 중앙동 서독약국 뒷편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큰 쇠고기 통조림공장이 있었



는데 8. 15해방 될때까지 가동되었다 한다. 이건석(李建錫)씨는 군수공장에 있었는데 전국에서 수많은 소를 사들였다 한다.

농업

(주요작물)

| 종별 | 단위 | 벼 | 찰벼 | 보리 | 밀 | 콩 | 팥 | 녹두 | 조 | 기장 | 수수 | 옥수수 | 메밀 |
|-------|------|-------|------|-------|-------|-------|------|-----|-------|-----|-----|-----|------|
| 경작면적 | 단보 | 52972 | 1125 | 386 | 147 | 10064 | 1007 | 55 | 1256 | 19 | 233 | 13 | 1563 |
| 수확고 | 말 | 45859 | 699 | 49782 | 13829 | 22791 | 1813 | 103 | 56767 | 617 | 477 | 624 | 7944 |
| 반당수확고 | 흡(合) | 768 | 568 | 1578 | 371 | 219 | 175 | 188 | 443 | 320 | 399 | 375 | 508 |

(소채)

| | | | | | |
|-------|----|---------|---------|---------|--------|
| 경작반별 | 단보 | 감자 6431 | 무 5186 | 배추 1401 | 오이 246 |
| 수확고 | 관 | 408900 | 577.333 | 172.049 | 9487 |
| 반당수확고 | 관 | 619.0 | 1,073.7 | 198.4 | 4570 |

(개량농작물)

| 종별 | 단위 | 벼 | | | | 밀 | 콩 | 감자 |
|------|------|-------|------|------|-------|--------|-----|------|
| | | 히노데 | 오카야마 | 이세짱코 | 계 | 카리테루니야 | 금강태 | 금강산 |
| 경작면적 | 반(反) | 22800 | 2395 | 3085 | 28280 | 4048 | 285 | 91 |
| 수확고 | 말(斗) | 24899 | 1049 | 3617 | 3059 | 19508 | 176 | 3266 |

(양잠업)

| 상전 | 구별 | 사육수 | 잠종 매수 | | | 산견수(產견數) | | |
|-------|------|-----------|-------|--------|-----|----------|-----|-----|
| | | | 재래종 | 교배종 | 계 | 재래종 | 교배종 | 계 |
| 뽕밭 | 1587 | 춘잠 | 152 | | 195 | 195 | | 780 |
| 산전 | 6685 | 하잠 | 43 | 3 | 5 | 8 | 12 | 20 |
| 소계 | | 추잠 | 4 | 2 | | 2 | 8 | 8 |
| 합계 | | | 199 | 5 | 200 | 205 | 20 | 800 |
| 잠종제조자 | | 원장종제조시기매수 | | 잠종제조매수 | | | | |
| 1 | | 봄 5, 가을 4 | | 2,000 | | | | |

(축산)

| 종류 | 황소 | 암소 | 계 | 말 | 노새 | 나귀 | 돼지 | 닭 | 산양 |
|-------|-------|-----|-----|-------|----|------|-----|------|----|
| 사육수 | 200 | 576 | 776 | 1 | 3 | 3 | 119 | 756 | |
| <hr/> | | | | | | | | | |
| 종모우 | 보호종모우 | | | 기타종모우 | | | 합계 | | |
| | 두수 | 교배수 | 두수 | 교배우수 | 두수 | 교배우수 | 두수 | 교배우수 | |
| 종부건수 | 6 | 242 | | | | | 6 | 241 | |

(양봉)

| 사육호수 | 소상수(巢箱數) | 봉밀 생산액 | | 밀 생산액 | |
|------|----------|--------|------|-------|-----|
| |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 2 | 3 | 5 | 1000 | 3 | 450 |

(과수)

| 본수 | | | | | | 수확고(貫) | | | | | |
|----|----|-------|-----|--------|--------|--------|----|-----|-------|-------|-----|
| 감 | 포도 | 복숭아 | 사과 | 밤 | 배 | 감 | 포도 | 복숭아 | 사과 | 밤 | 배 |
| 78 | 70 | 1,120 | 672 | 12,780 | 12,670 | 150 | 4 | 567 | 2,784 | 5,609 | 300 |

나. 수산업 및 수산가공업

다음 표와 같이 도천면 당시 총호수 1,119호 중 수산업이 346호 전호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수산자원(水產資源)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획고(漁獲高)에 있어서는 명태와 열개이(目張魚)가 최고로 많았으나 1931년부터는 정어리(鰻)가 많이 나 해안 곳곳에 정어리가 산더미같이 쌓였고 기름 짜는 공장도 많이 생겨 정어리 무거리 말리는 구수한 냄새가 도처에 풍기었는가 하면 청어도 많이 잡히게 되어 청초호 안에서도 그물을 놓아 밤이 새도록 고기를 펴 냈다하니 일반 경기도 호황을 이루었음을 말할 여지도 없다.

그렇게 많이 잡히던 정어리는 제2차세계대전

(1931년)이 일어날 무렵에 가서 자취를 감추어 “일본이 패전할 징조”라고 일본인 자신들이 말하였다 한다.

1937년경부터 청초호 안에서 일본사람이 굴양식을 하였는데 성적이 좋아 1945년 8. 15해방 까지 계속하다가 인공때 없어지고 말았다 한다.(金鎔基, 朴永植 증언)

속초시 대포동 별미횟집 자리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고등어 통조림공장이 있었는데 규모도 크고 경기도 좋아 1945년 8. 15해방될때까지 계속 운영되었다 한다.(박용권씨 증언)

《타케나카(竹中) 통조림 공장》

1944년(昭和19)경 장전(長箭)에 있던 타케나카(竹中)라는 일본인이 부월리(扶月里)에 있는 나카지마(中島)공장을 사서 현 H.L.D가 있는 장소로 옮긴 것인데 하루 평균 소 20~30두(공출한 소)와 꽁치 고등어등 어물통조림도 많이 생산하여 군수품(軍需品)으로 일선에 보내졌다. 해방이 되자 모든 시설물들이 어디론가 실려가고 말았다 한다.(당시 보일러공 李鍾雲, 朴永植 증언)

《무라타공장(村田工場)》

부월리에 있었는데 꽁치를 말려 케스리 부시(削節)를 만들어 부식품으로 군납(軍納)했다 한다.(李鍾雲, 朴永植증언)

《하마타 공장(濱田工場)》

주로 어비(魚肥)와 어유(魚油)를 생산했다 한다.(李鍾雲, 朴永植 증언)

어업

| 호수 | | 어선수 | 어획고 | 주요 어획고 (원) | | | | | | | |
|-----|----|-----|--------|------------|-------|--------|-----|-------|----|--------|--------|
| 전업 | 겸업 | | | 정어리 | 고등어 | 명태 | 칼치 | 미역 | 상어 | 청어 | 열개이 |
| 323 | 23 | 100 | 58,746 | 1,485 | 2,115 | 29,689 | 150 | 2,128 | 70 | 12,325 | 29,689 |

다. 상공업

상공업(商工業)에 있어서는 주로 삼베, 명주, 한지(韓紙), 도자기(옹기그릇), 기와, 어유(魚油), 깨기름, 농구(農具), 듯자리, 가마니, 누룩 등이 생산되었다.

물품거래로는 주로 생활필수품이 거래되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좁쌀은 만주와 북간도, 밀가루 맥주 과일 간장 성냥 철물 물감 석유는 일본(內地)서 수입, 면포(綿布) 금포(錦布) 청주(清酒)는 부산·원산, 식염(食鹽)은 부산, 메밀은 인제서 이입(移入)하고, 누에고치는 양양읍, 어비(魚肥)는 부산·원산, 해조류(海藻類)는 인제, 생선·목재는 포항·원산, 절인생선 한지(韓紙) 우피(牛皮) 소



(牛)는 홍천으로 이출(移出)하였다.

부산·원산서 사들인 물건들은 대부분 일본 물품들인데 부산과 원산을 거쳐서 수입 되었을 뿐이다.

라. 금융

1925년까지만 해도 도천면(道川面)에는 금융 기관이라고는 없었고 창동산업계(昌同產業契)란 계(契)가 있었는데 계원수(契員數) 84명에 자금이 1,500원이고 보증대부(保證貸付)를 하는 데 이자가 매일(日分) 3부였으니 고리대금의 모임인 것 같다.

개인끼리는 돈 거래는 일본인끼리는 이자가

최고 5부, 최저 2부5리, 보통 3부로 거래됐고 한국인끼리의 거래도 일본인들과 같았으나 한국인과 일본인과의 거래는 최고 6부, 최저 2부 5리, 보통 4부로 거래했다.

예금은 우편(郵便) 저금뿐이었는데 일본인 예금액이 9백12원50전이었고 한국인 예금은 5천90원36전이었다. 예금도수(豫金度數)는 한국인이 1,770회인데 비해 일본인은 5,110회이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한꺼번에 많은 돈을 저금하였고 일본인은 적은 돈이라도 수중에 두지 않고 우편소(郵便所; 지금 우체국)에 저금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속초 고로(古老)들의 말에 의하면 1927년경에는 도천면 소재지인 대포리에 금융조합(金融組合; 지금의 농협의 전신)과 어업조합(漁業組合; 수협)이 생겼는데 1937년 도천면을 속초면(束草面)이라 이름을 고치고 면소재지를 대포에서 속초로 옮길 때 두 조합도 함께 옮기게 되었다 한다.

마. 직업

1925년(大正14年 現在) 도천면 면세일반(道川面 面勢一班) 통계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다.



직업별

| 구별 | 일본인(內地人) | | 한국인 | | 계 | |
|-----------|----------|----|-----|-------|-------|-------|
| | 호수 | 인구 | 호수 | 인구 | 호수 | 인구 |
| 농업 | | | 640 | 3,941 | 640 | 3,941 |
| 어업·제염·광공업 | 2 | 8 | 217 | 1,104 | 219 | 1,112 |
| 공무원·자유업 | 4 | 15 | 12 | 92 | 16 | 107 |
| 기타유업자 | | | 43 | 251 | 43 | 251 |
| 무업자 | | | 3 | 17 | 3 | 17 |
| 상업 | 14 | 55 | 76 | 379 | 90 | 434 |
| 계 | 20 | 78 | 991 | 5,784 | 1,110 | 5,862 |

10. 종교(宗教)

불교와 천주교 야소교(耶蘇教=지금 개신교)뿐이었는데 일본인 신도는 한사람도 없고 전부 한국인뿐이며 불교도(佛教徒)는 남승(男僧)이 34명, 여승(女僧)이 6명, 전부 40명인데 사찰(寺刹)은 4개소에 있었다.

천주교(天主教)는 포교소(布教所) 1개소에 신도(信徒) 140명이었고 야소교 감리파(耶蘇教監理派; 지금 감리교)는 예배당(禮拜堂)이 4개소에 신자(信者)가 149명, 신도수는 천주교와 비슷하다.

11. 명소(名所)

도천면(道川面) 면세일반(面勢一班)에 명소라하여 신흥사(神興寺), 토왕성폭포(土旺城瀑布), 비선대(飛仙臺), 계조암(繼組庵), 비선대(秘仙臺)라 기록되어 있다.

토왕성폭포는 “土旺城”이 아니고 “土王城”이 옳다.

1782년(正祖6) 발간된 문헌비고(文獻備考)三十一 여지고(輿地考)十六 국방(國防)四 성곽(城郭)四 양양읍성조(襄陽邑城條) 三十一에 《도왕성은 읍북쪽 오십리 지점에 있는 석축이다.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다. 권금성과 설악산 위에 있다. 읍지에 왕씨 성을 가진 지방민이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土王城 在北五十里 石築 遺址尙存 右兩城 在雪岳山上 邑誌 土民王姓人築)

말하자면 토왕성폭포는 토왕성이 있기 때문에 토왕성폭포라 했고 토왕성은 王씨 성을 가진 그 지방 사람이 쌓았다하여 토왕성(土王城)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뜻이다.

토왕(土旺)이라고 쓴 것은 일제(日帝) 때 1925년 도천면 면세일반에 “王”이 “旺”으로 변한 것이다.

《신흥사(神興寺)》

신라 선덕왕(善德王) 때, 지금부터 약 1300년 전(善德王卽位元年에서 大正15년까지; 632~1926) 자장율사(慈葬律師)가 현 장항리(獐項里) 탑평(塔坪; 탑들)에 사원(寺院)을 세워 향성사(香城寺)라 했다. 이것이 신흥사(神興寺)의

시작이다. 그후 화재로 말미암아 사원과 여러 보물들은 다 타버리고 지금은 다만 5층석탑만 남아 있을뿐이고 현 동명(洞名)을 탑평(塔坪)이라 부르는것도 여기서 나온 이름이다.

그후 신라 애장왕(哀藏王)3년(802)에 의상선사(義湘禪師)가 이곳에 와 다시 절을 세우고 선정사(禪定寺)라 했다. 그후 화재가 자주 일어나 약사(略史)와 보물등 사원의 물건들은 거의 재로 변하고 말았다.

정보원년(正保元年; 1644, 仁祖22) 영서(靈瑞), 연옥(連玉) 두 선사가 절을 다시 짓고 신흥사(神興寺)라 불렸다. 그후 관연3년(寬延3; 1750, 英祖26) 6월 각훈선사(覺薰禪師)가 절을 개축(改築)하여 오늘에 이른다. 전 선정사(前禪定寺)는 내원암(內院庵)이라 부른다. 본산(本山)은 금강산(金剛山)의 여맥(餘脈)으로 산모양이 외아(巍峨)하고 웅장한데다가 존엄(尊嚴)하다.

동쪽에는 달마로양의 달마봉(達磨峰)이 솟아 있고 동남쪽에는 토왕성폭포가 있으며 서남쪽으로는 권금성(權金城), 와선대(臥仙臺), 비선대(飛仙臺), 금강굴(金剛窟), 천불동(千佛洞)이 있다. 북쪽에는 천후산(天吼山), 계조암(繼組庵)이 있어 그 절승(絕勝)은 금강산을 무색(無色)케 한다하여 세상 사람들이 “소금강(小金剛)”이라 부른다.

《토왕성폭포(土旺城瀑布)》

신흥사를 향해 장항치(獐項峙; 노루목고개)를 넘어가면 남쪽하늘 높이솟아 있는 천여척에 넘는 석장절벽(石嶂絕壁)에 한폭의 흰 비단처럼 보이는 폭포가 바로 저 유명한 토왕성폭포다. 그 밑에 큰 용소가 있는데 가뭄이 심할때면 근처에 사는 농민들이 기우제를 지낸다. 수량(水量)은 그리 많지 않으나 떨어지는 물이 옥(玉)처럼, 흰 눈처럼 보이고 아무리 더운 여름철이라 해도 한기를 느낄 정도로 시원하다.

《비선대(飛仙臺)》

절벽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기로운 방초(芳草)와 우거진 푸른 소나무 그 사이 한복판에 흰 바위, 맑은 물, 정원같이 아름답다. 몇층으로 되어 있는 반석은 와선대(臥仙臺)보다도 아름답다. 평탄한 반석은 충충으로 되어 마치

식당같다 하여 옛부터 식당(食堂)이라 부른다. 식당옆에는 티끌하나 없는 맑은물이 흐르고 그 물소리 음악소리같이 들리는가하면 신기한 말 소리 같기도 하다. 거기다가 식당의 반석에는 고금명사(古今名士)들의 송덕(頌德)을 새겨 먼 훗날까지 길이 전해진다.

참 고

현산지 전(峴山誌 全)

비선대조(飛仙臺條)에 《비선대는 와선대에 위쪽에 있는데 천석(川石)을 보면 와선대보다 더 좋으며 북쪽에는 돌 봉우리가 높이 솟아 있고 숲은 나무를 묶어 세운듯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케 한다. 봉래에도 이런 곳이 없다고 삼연 김창흡이 이른바 동방 천석중에 가장 뛰어났다 했고, “비선대”라 크게 새겨진 세 글자는 판서 윤순이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다.(在臥仙臺之上川石視臥仙尤勝而北崖石峰之突巒森東令人驚吁赤逢萊之所無三淵金公昌翁所謂東方川石中上垂者臺號森字大刻尹判書淳筆)

이 골짜기를 식당골(食堂洞)로 양양읍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고, 비선대 반석을 식당(食堂)이라 부른다고 1926년 도천면 면세일반에 명기되어 있다.

《금강굴(金剛窟)》

설악산 청봉의 여맥(餘脈)으로 미륵봉(彌勒峰)이 하늘에 대일듯 높이솟아 있어 거기에는 반드시 명소(名所)가 있을 것이다. 천추에 이름난 비선대는 탐승객들을 금강굴로 안내하고 있다. 이 굴은 남향이고 천길이 넘는 석벽 중간에 있어 중국 촉(蜀)나라 산길보다 오르기 더 어렵다 한다. 죽을 힘을 내어 올라가면 길이 10간(間), 넓이 3간, 높이 5간, 굴 안은 옛날 도승(道僧)이 서식(棲息)하던 곳인데 한좌(一座)의 불상과 두어개의 고기(古器), 수천개의 건물 잔해들이 오랜 역사적 향기를 풍긴다. 거기다가 절벽을 바라보면 주위의 전망이 특별하다.

사방은 산이 연이어져 길이 넘는(丈餘)폭포가 있는가 하면 서남쪽에는 푸른 송백(松柏)들이 골짜기를 메우고 있고 기이한 암석들은 마치 한폭의 그림같다. 남쪽 골짜기 저편에 천불

동(千佛洞)이 보인다. 천연의 암석들이 무수한 불상으로 보이는데 아미타불인가 하면 문주보살이고, 관세음인가 하면 미륵봉이다. 금강산 천불동에 비해 부끄럼없는 이 선경(仙境)이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못한것이 참으로 유감천만이다.

참 고

금강(金剛)이란 금강석, 금강사(金剛砂)의 약어(略語) 또는 매우 견고하여 아무것에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뜻도 되지만, 불교에서는 범어(梵語) vajra의 역(驛), 가장 강한 무기(武器)의 뜻이다. 이 무기는 제석천(帝釋天)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서 아무 것에나 파괴되지 않고 무엇이든지 파괴할 수 있다. 보리심(菩提心) 도(道) 지(智) 각(覺)을 상징하는 무기이다. 즉 금강은 진수(眞髓)의 진(眞)이란 뜻이다.

이 굴은 금강굴(金剛窟)이라 하는 뜻은 이 굴 안은 모든 사악(邪惡)과 번뇌(煩惱)를 물릴칠 수 있어 다른 어느곳보다 수도가 잘 되는 진수의 진이라 하여 부쳐진 이름이다.

제석천(帝釋天)은 관음보살(觀音菩薩)이 모든 중생(衆生)을 제도(濟度)하기 위해 변신(變身) 33가지중의 하나라 한다.

6.25후 제일 먼저 이 굴을 다시 개척한 분이 중앙동에 사는 최의건(崔義健)씨인데 그의 설명도 도천면 면세일반에 실려있는 내용과 같다. 고기(古器)는 슬병(濬甁)하나가 있었는데 삼베로 쌔서 만든 토기(土器)라 하며 그외 식기(食器)와 엽전(한 되박정도) 등을 굴안에 철조망을 치고 그 안에 넣어 두었는데 언제 누가 가져갔는지 다 없어지고 말았다하며 그때는 그 토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있다면 수천금을 받을 수 있을 것…”하고 후회한다. 아마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토기인지도 모른다.

《계조암(繼組庵)》

신흥사의 북쪽에 하늘높이 솟아있는 산이 바로 천후산(天吼山)이다. 이 산 전체가 돌로 되어 있는데 산 중턱에 큰 구멍이 있어 바람이 불지 않아도 저절로 소리가 난고 모양이 속흘(束笏)같이 생긴 기이한 암굴(岩窟)이다. 그 밑

에 유명한 계조굴(繼組窟)이 있다. 신라 애장왕 원년(新羅 哀莊王 元年; 800)에 동산(洞山), 각지(覺知), 봉정(鳳頂) 삼선사(三禪師)가 이 굴에 암자 하나를 짓고 이름을 계조암(繼組庵)이라 불렀다. 바위 꼭대기에는 약 한평ガ량 되는 물웅덩이가 있는데 물이 좀처럼 마르지 않는다. 암자 앞에 있는 큰 바위에는 수백명이 앉을 수 있고 반석위의 한 모퉁이에 동석(動石)이 있어 한 손가락으로 밀어도 움직이고 만사람이 밀어도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아 기석(奇石)이라 한다.

《비선대(飛仙臺)》

도천면 면세일반에 실려있는 원문(原文)을 우리 말로 번역하면 “속초리 동쪽 바위 끝에 바다로 돌출(突出)한 모습이 묘하고 아름다워 비선대(飛仙臺)라 부른다.

동남쪽에 있는 조도(鳥島)는 고도(孤島)처럼 바다와 구름사이에 솟아있고 송림이 우거진 섬(島)부근에는 크고 작은 둛단배들이 철 사이없이 오가는가 하면 바다위를 스쳐오는 서늘한 바람은 무더운 여름을 잊게한다. 거기다가 해수욕까지 하고 나면 상쾌한 기분이란 말로서는 나타낼 수 없을 정도다.

또 바다 저쪽 우뚝 보이는 대(臺)를 영금정(靈琴亭)이라 한다. 수십척이나 되는 석벽 사이에 길이 9간(間; 1간은 6尺), 넓이 5간되는 모래언덕(沙原)이 있고 그 가운데에 기이한 석봉(石峰)하나가 우뚝 솟아있는데 아름답고 신기한 모습은 표현하기조차 어렵다.

서남쪽 좀 떨어진 곳에 양양(洋洋)한 청초호(青草湖)가 있고 서남쪽으로 천후(天吼) 달마(達磨) 청대산(青岱山)들이 서로 마주 연이어져 푸른 물결과 서늘한 바람, 흰구름, 호수와 하늘이 함께 어울려 온 누리의 정적(靜寂)과 조화(調和)를 말해 주는것 같다.

이른 여름 늦은 가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산수(山水)의 아름다움에 도취(陶醉)되어 신흥사 소금강(神興寺 小金剛)과 함께 소 해금강(小 海金剛)이라 전해진다.”



참 고 (1)

비선대(飛仙臺)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지(卷之)四十四 양양(襄陽)도호부(都護府) 누정조(縷亭條)에 “부 북쪽50리 쌍성호 동쪽에 있다. 들 봉우리가 가파르게 빼어났고 위에 노송 두어그루가 있어서 바라보면 그림같다. 그 위는 앉을만하며 실같은 가는 길이 육지와 통하는 바다물결이 사나워지면 건널 수 없다”라 하였다.(在府北五十里 雙城湖東有 石峯峭拔 上有虬松數株 望之如函 其上可坐 有徑如線通陸 海惡則不得渡)

설악산에 있는 비선대(飛仙臺)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명동에 있는 비선대는 460여년전부터 널리 알려진 승지(勝地)이다.

1964년 해안경비초소(海岸警備哨所)를 지을 때 명소(名所)는 고사하고 두어그루 남아있던 규송(虬松)마저 없어지고 말았으니 애석하기 짹이 없다.

참 고 (2)

조도(鳥島)는 1901년(光武5) 현재 양양읍지 도서조(襄陽邑誌 鳥嶼條)에 무로도(無路島)로 기록되어 있다. “이 섬은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북쪽30리 속초진(束草津)에 있는데 대가 생산 된다.”(無路島 在府北三十里 束草津 散竹)고 기록되어 있는가하면 한때에는 용초도(龍草島)라 부르기도 했다. 1960년 5.16후 군정(軍政)당시 이 섬에 정자를 짓고 정자 이름은 용초정(龍草亭)이라 불렸다. 龍은 그때 강원도지사 李龍이라는 “龍”자와 속초라는 “草”자를 따서 “龍草亭” “龍草島”라 했는데 정자는 2층으로 잘 지었다. 그러

나 오랜 풍우에 정자는 허무러지고 지금은 그 자리에 1984년 7월에 조도등대(鳥島燈臺)가 세워져 이 부근을 오가는 배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용호도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정자를 처음 세울 때 기공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고로(古老)한 분을 만났는데 용촌도 내력을 듣고난뒤 웃으며 “李完用은 큼직한 나라나 팔아 먹었지만 이 못난놈들은 겨우 섬하나밖에 팔지 못했단 말이냐?”하고 농담조로 비웃었다. 그러니 이용지사에 아부하여 섬이름을 바꿨다는 풍자다.

《권금성(權金城)》

신흥사 서남쪽에 있는데 동서가 60간(間) 남북이 180간이나 되는 성벽(城壁)이다. 이 성은 옛날 권 금(權金) 양성의 석축(石築)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후세사람들이 이 성을 권금성(權金城)이라 전해온다. 동북쪽은 천연적 절벽의 요지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문터(門趾)만 남아 있을 뿐이다. 축성년대(築城年代)를 밝힐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이상은 도천면 면세일반에 기재된 것임)

《유물재 비(愈勿齋碑)》

“창원유씨(昌原人)로서 회일(晦一)이란 은사(隱士)가 내물치뒤 산기슭에 살고 있었다. 경오년(1690년; 肅宗16) 그의 아버지 추담(秋潭)의 묘앞에서 시묘살이를 하다가 순효(殉孝)하였다.

그후 영조 24년(1748) 무진(戊辰)에 유허(遺墟)를 보존하기 위해 판서 조관빈(判書 趙管彬)이 비문을 짓고 유수 홍봉조(留守 洪鳳祚)가 글씨를 써 비를 세워 천추에 빛날 효행과 어진 자취를 길이 빛나게 했다.”

참 고

원문(原文)에는 인조무진(仁祖戊辰)이라 쓰여 있는데 유물재는 숙종때 순효(殉孝)하였는데 비석을 사람이 죽기도 전에 세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비문에 있는대로 고쳐 쓴다.

《대포성(大浦城)》

대포에서 북으로 약 5정(町; 약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고산(高山) 하나가 있는데 이를

마성대(馬城臺)라 한다.

산 꼭대기는 사람 백명정도 앉을 수 있는 넓이이고 지금도 아직 옛터가 남아 있다. 이 터는 신라시대 봉화수(烽火燧)의 감독관이 살던 곳이라 한다.

산정(山頂)에 오르면 바다에는 물고기가 뛰어 오르고 주위의 경치가 아름다워 봄·가을에는 시인묵객(詩人墨客)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봉수지(烽燧趾)》

외옹치(外翁峙)에 돌출(突出)한 산정(山頂)에는 신라(新羅)시대에 만들었나는 봉수대(烽燧臺) 자리가 울창한 송림사이 우거진 잡초 속에 남아 있다. 길이와 넓이가 3간(間)이고 높이가 한간반(一間半)이나 되는 석축(石築)인데 무심한 갈매기만 그 위를 날고 있다.

《첨사 유허(僉使 遺墟)》

노리척산(蘆里尺山)이란 곳에 신라시대의 만호첨사(萬戶僉使)가 주재(駐在)했다는 옛터가 있다. 지금은 주춧돌(礎石)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때 심었다는 소나무 한그루가 있었는데 생긴 모양이 기묘하기 짹이 없었다 한다. 이 소나무는 옛날부터 잎이 다 말랐다가도 다시 살아나기를 두차례나 되풀이 되었는데 명치(明治) 23년경에는 잎이 다 떨어졌다가 3년이 지난후 다시 잎이 무성하여 전과 다름이 없었다 한다. 나무 높이는 약 36자나 되고 둘레는 직경이 3자 5치였는데 오랜 풍상(風霜)속에서 꿋꿋이 자라온 숭려고아(崇麗高雅)한 모습은 옛정취를 풍겨주고 있었다 한다.

《소야팔경의 기원(所野八景의 起源)》

면내 논산리(論山里)는 높은 지대인데다가 청초호(青草湖)기슭에서 가장 경치 좋은 곳이다. 청초호를 바라보기에 가장 알맞는 지점에 청초정(青草亭)이란 정자를 짓고 시인묵객(詩人墨客)들이 계절의 정취(情趣)를 따라 술잔을 기울여가며 이곳 팔경(八景)의 풍경(風景)을 소재로 지를 지었다.

청호마경(靑湖馬鏡)

속초귀범(束草歸帆)

주교야화(舟橋野火)

온정조화(溫井朝霞)

논산조양(論山朝陽)

청대화병(靑岱畫屏)

노동명월(蘆洞明月)

이동백설(梨洞白雪)

이 팔승(八勝)을 한없이 즐겼다 하여 소야팔경(所野八景)이란 명칭의 기원(起源)이 되었다.

① 청호마경(靑湖馬鏡)

서쪽 가까이는 태백산맥(太白山脈) 주봉(主峰)인 설악산이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아 마치 그림병풍 같이 청초호의 수면에 그 웅장한 모습을 비치고, 북쪽 멀리 운봉산(雲峯山)이 일본 후지산(富士山)을 축소시켜 놓은 것 같아 보이며 동에는 양양(洋洋)한 동해(원문에는 일본해로 기록되어 있다)가 깊숙이 굽이쳐 있는데 원산(元山), 양양을 잇는 2등도로가 백사장을 따라 뻗쳐 있는가 하면 남쪽은 부월리(扶越里) 앞을 돌아 원형(圓形)을 이루고 동북쪽 바다물이 들고 나는 갯목은 술명 목처럼 가늘고 좁다.

호면(湖面)은 언제나 푸른물결이 아득히 보이는데 갈매기를 비롯한 여러 물새들이 제 세상인양 자유롭게 떠돈다. 누가 이 자연을 찬미하지 않겠는가? 목동들이 부는 피리소리, 어부들이 부르는 뱃노래 서로 화음이 이루고, 달밝은 가을밤, 꽂피는 봄철이면 절경(絕景)을 이룬다.

호수의 북쪽 한 구석에 약 8길(八丈)이나 되는 바위 하나가 호숫가에 높이 솟아 있는데 이름을 용암(龍巖; 용바위)이라 불렀다. 시인묵객(詩人墨客)들이 수시로 모여 시를 읊조리고 노

래와 춤으로 즐겼는데 그중에서도 전한국시대(前韓國時代)의 군수 남궁익(郡守 南宮穡)씨가 석존탄생일(釋尊誕生日)에 낙화놀이(落花遊)를 했다.

이 아름다운 경치중에 마경(磨鏡)이라 한 것은 설경(雪景)의 뛰어난데서 택한 것으로 겨울 결빙기(結冰期)가 되면 맑은 유리처럼 투명(透明)하여 마치 대지(大地)에 놓여있는 큰 거울같이 보이는 장관(壯觀)이라 하여 지은 것이다.

참 고

왜정말(倭政末) 속초항(束草港) 수축시 이 용암(龍岩)을 비롯하여 소해금강(小海金剛)이라 부르던 영금정(靈琴亭)부근의 기암괴석(奇岩塊石)들이 모두 석재(石材)로 파괴되고 말았다.

② 속초귀범(束草歸帆)

넓고 평탄한 기 모래언덕이 호수를 끼고 있는 부락을 이름지어 속초(束草)라 부른다. 앞에는 한없이 넓은 만경창파(萬頃蒼波)에 햇빛을 실은 수많은 뜻배들이 만선(滿船)의 뱃노래를 부르며 암초(暗礁)를 피해 포구를 찾아오는 모습은 중국 소상팔경(中國 蕭湘八景)의 원포귀범(遠浦歸帆)에 못지않는 장관(壯觀)이다.

참 고 (1)

설악동 온정국민학교 앞 도로변에 세워진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의 비문에 소야팔경(所野八景) 속초귀범(束草歸帆)이 조도귀범(鳥島歸帆)으로 잘못 새겨져 있다.

참 고 (2)

속초란 지명에 대하여 여러 설이 있는데 중요한 몇가지만 기록한다. 첫째, 옛날 속초에는 속새풀이 많았다 하여 “속초”라 한다는 주장이다.(이하생략) 둘째, 삼국사기 권삼십오(三國史記 卷三十五) 잡지 사(雜誌 四) 지리 이(地理 二) 명주(溟州)편에 신라 경덕왕(景德王) 16년에 군주(軍主)를 두어 영현(領縣) 네 고을을 진수(鎮守)케

했는데, ①정선현(旌善縣) ②속제현(棟堤縣)=棟은 棟으로 되어 있음. 이 현은 고구려때 속토현(束吐縣)이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딘지 알 수 없다. ③지산현(支山縣)=지금 연곡면(連谷面) ④동산현(洞山縣)=지금 양양 남쪽

②의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현인 속토(束吐)가 바로 속초라는 주장이다. 속토가 우리말 음운법칙(音韻法則)에 의하여 속초로 되었다는 것이다.(原文과 상세한 것은 생략)

셋째, 구전에 의하면 속초에 제일먼저 정착(定着)한 성씨는 구(具)씨라 한다. 고증(考證)은 할 수 없지만 구씨가 난을 피해 말을 타고 가는데 이곳 속초를 지나다 보니 영랑호와 청초호 사이에 있는 지형(地形)이 소가 누어 있는 형국(臥牛形)이고 앞에 있는 조도(鳥島 또는 松島)가 소앞에 놓여있는 풀단(東草)같이 보여, 소가 풀을 먹으면 힘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이야말로 자자손손(子子孫孫) 안주(安住)할 수 있는 곳이라 하여 정착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未來指向的)인 풍수설에 의한 이름이란 것이다.

③주교야화(舟橋夜火)

소야(所野)의 동쪽 청초호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부락을 부월리(扶月里)라 한다. 이 부락은 본래 주교리(舟橋里)였다.

옛날에는 이 주위가 호수여서 도선장(渡船場)이 있었다해서 주교리(舟橋里)란 이름이 생겼다. 지금도 부락이 호수(湖水) 가까이 접해 있어 초여름인 4월과 늦가을인 9월경에는 물고기와 게를 잡느라고 삼삼오오 많은 사람들이 밤에 불을 켜들고 나와 전 호수를 둘러싸 그 불빛이 호수에 비치어 그야말로 불야성(不夜城)을 이룬다. 이 광경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風景)이다.

④온정조하(溫井朝霞)

부월리(扶月里)는 안 마을(內里)과 바깥마을(外里) 두 부락으로 나누어져 안 마을은 남쪽 청대산(青岱山) 기슭에 민가(民家)가 두어집 있고 산 기슭 오른쪽 산간계곡(山間溪谷)에 춘하추동(春夏秋冬) 끊이지 않고 솟아 나는 온천(溫泉)이 있다. 이 물은 겨울에는 조금 따뜻하고 여름에는 보통물과 수온(水溫)이 별차이가

없다.

겨울철이 되면 이 물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안개처럼 연기처럼 한일자 모양으로 속초리까지 뻗친다. 마치 아름다운 구름의 띠(帶) 같다. 이 광경이 아침에 시작되어 해가 중천(中天)에 이를 때 비로소 없어졌다.

⑤논산조양(論山朝陽)

소야의 일대가 평탄하고 그 부근에 있는 부락들도 모두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독 논산리(論山里)만은 조금 높은 곳에 있는데다가 동향(東向)이어서 다른 부락보다 아침 해를 일찍 맞이하게 된다. 그때의 장엄한 광경은 소야팔경(所野八景) 중 제일로 느껴진다.

⑥청대화병(青岱畫屏)

본군(本郡)의 진산(鎮山)인 설악산맥 하나가 구불구불 동쪽으로 뻗쳐 천대산(天臺山) 달마봉(達磨峰) 등을 이루고 여기서 다시 두 갈래로 나누어져 도천면(道川面)의 중앙(中央)을 관통(貫通)했는데 그중 높이 솟은 산 하나가 있다. 그산이 바로 청대산(青岱山)이다.

이 산의 최고봉(最高峯)에 고송(古松) 심여 그루가 있어 항해(航海)하는 사람들의 주요한 방향목표가 되었다. 모든 산과 여러 봉(峰)들이 꿈틀거리는 용처럼 보여 전망(展望)이 더욱 좋다. 특히 가을의 단풍은 2월에 핀 꽃보다 붉고 아름다워(霜葉紅於二月花) 마치 비단병풍을 보는 듯 선대(仙臺)를 그려내는 정취(情趣)를 자아낸다.

⑦노동명월(蘆洞明月)

서쪽에 높이 솟은 울산바위는 구름 속에 솟아 있고 동해의 푸른 물결은 한없이 넓고 푸르러 장엄(莊嚴)하기 이를 데 없고, 남쪽의 주봉치(朱鳳峙)는 청대산(青岱山)을 그림 병풍처럼 둘러싸고, 동쪽에는 양양(洋洋)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진 듯 느껴지는가 하면 소야(所野)의 평탄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부락이 바로 노동(蘆洞)이다. 중추야(仲秋夜) 밝은 달이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정적(靜寂)을 깨뜨리고 아름다운 옥(玉) 토끼처럼 솟아 올라 중천에 이르렀을 때 “중천에 뜬 달빛 한없이 그립다”(中天月色好須着)는 옛 시귀를 자아낸다.

⑧이동백설(梨洞白雪)

◇ 특집 ◇

소야의 서쪽 한 모퉁이에 조그마한 부락 하나가 있는데 이동(梨洞)이라 부르며 노리(蘆里)에 속해 있다. 봄날 야외(野外)를 지나다 보면 부락 전체가 흰 꽃의 세계를 이룬다. 마치 때아닌 백설(白雪)이 휘날리는 것처럼 흰 배꽃

(梨花)이 떨어져 옛 시인(詩人)의 글귀를 불러 일으킨다.

애석하게도 마을 초동(樵童)들이 배나무를 다 베어버려 지금은 지난 날의 그 자취조차 찾을 길 없다.



□ 鄉土史料 □

유물재비(俞勿齋碑)

목 차

- I. 머리글
- II. 비문 내용
 - 1. 원문
 - 2. 해석
 - 3. 보충 설명
- III. 맷음글

I. 머리글

유물재비(俞勿齋碑)는 속초시(東草市) 대포동(大浦洞) 내물치리(內勿淄里), 속청 “설악산(雪嶽山) 입구”상가 일충봉회집 뒤편, 옛 철길 옆에 위치하고 있다. 흔히 유물재비(俞勿齋碑)라고 부르지만, 원명은 “물재유선생유허비(勿齋俞先生遺墟碑)”이다.

몇 해 전에, 속초문화원(東草文化院) 발행(1984년) <속초문화(東草文化)> 창간호에서, 거기에 실린 박의훈(朴益勳) 선생님의 글 “국립공원 설악산(雪嶽山) ”을 통하여, 물치(勿淄) “설악산(雪嶽山)입구”에 이 비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그후, 속초시(東草市) 발행(1982년) <설악(雪嶽)의 뿌리>에서는, 비석의 주인공 물재(勿齋) 유희일(俞晦一) 선생이 속초(東草)의 대표적 향토 역사 인물로 소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때부터 이 비석에 관심을 갖고 몇 차례 답사, 탁본, 비석 해석 등의 활동을 통하여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현지 확인 결과, 이 비석의 현재 위치는 원래 위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원래는 지금보다 조금 서쪽인 현재 내물치리(內勿淄里)마을 가운데에 있었다. 그리고 현재 마을자는 낮은 구릉이었고, 원래 마을은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바닷가에 있었다. 그러면 것이 지금부터 10여년 전에, 마을이 바닷가에서 현재 자리로 옮겨지면서, 현재 마을 자리에 있던 이 비석이 조금 동쪽으로 이동하여 현재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자리는 철길 둑 경사지인데다, 그 밑으로 상가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보존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비석 형태는 사각형의 좌대(座臺) 위에 비신(碑身)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갓이 얹혀진 전형적인 모습이다. 비신의 높이는 138.5cm이고, 폭 60cm, 두께 20cm이며, 비신에다 좌대와 갓을 합친 총높이는 약 2m이다.

비신의 앞면에는 제목으로 “勿齋俞先生遺墟碑”라고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1행에 40자씩 16행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II. 비문 내용

1. 원문

勿齋先生遺墟碑

주상훈

양양 태생. 현재 속초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다.
속초향토사 연구소 연구위원이며, 1990년 제2회 속
초시문화상(학술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於玄石朴文純門文純許與甚重尼尹背師公有書辨論文純嘉其見識之明庚申尤菴自謫還公以劄記往復尤菴亦稱謝不已已以經行薦授水庫別檢旋移金吾郎不就母夫人疾篤斬指進血居喪過毀幾危庚午丁參判公憂嚴冬晝宵露處雉墓墓鳴上壠呼擗病庵庵猶不廢竟以孝殉公可謂有勤苦之學卓絕之行而惜乎天不假年關於中身未得究竟其志業也芝村李公喜朝銘其碣稱揚之今 上己酉回道臣狀 聞旌閭本邑儒林建鄉賢祠於勿縕舊齋之地辛酉回朝禁撤毀噫公誠鄉先生歿而可祭者也祠有無顧何輕重鄉人之薰其德而慕其風者久猶不衰將立碑以表託余爲文余嘗於公之季判書公館甥之日飽聞公實蹟遂略敘其事昔程夫子頑樂亭銘曰水不忍廢地不忍荒嗚呼斯可以銘此碑而示不忘矣

崇祿大夫行禮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 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 世子左賓客趙觀彬撰通政大夫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洪鳳祚書

皇明紀元後再戊辰十二月 日立

2 해석

물재(勿齋)¹⁾ 유(俞)선생 유허비(遺墟碑)

오호(嗚呼)라! 이곳은 고(故) 처사(處士) 물재(勿齋) 유(俞)공이 은거(隱居)하여 집을 짓고 살았고, 죽어서는 그를 追慕하는 사당(祠堂)이 세워졌던 곳이다. 공의 이름은 회일(晦一)이고, 자(字)는 현숙(顯叔)이며, 본관(本貫)은 창원(昌原)이고, 참판(參判) 추담(秋潭) 창(王陽)²⁾의

아들이다. 젊어서부터 학문에 힘쓰고, 행실이 돈독(敦篤)하여 사림(士林)의 존중을 받았다. 갑인(甲寅, 1674, 顯宗15)년에³⁾ 일번인(一番人) 척축적(躡躅賊) 휴(鎬)⁴⁾가 유학자(儒學者)의 이름을 거짓으로 빌려 사화(史禍)를 일으켰고, 그 무리들은 현명함을 흐리고 어지럽혔다. 공은 동지들과 더불어 통문(通文)을 돌려 尹鎬의 죄를 성토하였는데, 휴(鎬)의 이름을 부황(付黃)⁵⁾ 하자는 데까지 이르렀고, (通文의 文章이) 유식(有識)하고 경탄(敬歎)스러웠다. 이로부터 뜻을 꺾고 공은 수레를 타고 이 마을에 정착하였는데, (이 마을은) 양양(襄陽)의 중심지에서 북쪽에 있는 마을이고, 이름은 물치(勿縕)⁶⁾이며, 우암(尤菴) 송(宋)선생⁷⁾이 귀양가던 길에 머물러 잤던 곳이다. 공은 지방에 우거(寓居)하였으나, (尤菴선생의) 산처럼 높고 홀륭한 행실의 뜻을 사모(思慕)하였고, 그 집에 현판(懸板)붙이기를 물재(勿齋)라고 하였는데, “물치(勿縕)”라는 마을의 뜻을 취한 것이다. 산업(產業)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굳게 앉아 <대학(大學)>⁸⁾, <심경(心經)>⁹⁾, <근사록(近思錄)>¹⁰⁾같은 <퇴계어록(退溪語錄)>¹¹⁾ 등 책에서는 현명함을 탐구한 공부가 많이 있어, 한 고장을 풍미(風靡)하였으므로,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공은 부모님의 연세가 점차 높아가자, (이 곳에서) 철수하여 영평(永平)¹²⁾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곁에서 봉양(奉養)하였는데, 그 정성과 힘을 다하였다. 현석(玄石) 박문순(朴文純)문하에서 공부하였는데, 문순(文純)은 (공을) 매우 소중하고 가깝게 여김을 (마음속으로) 허락하였다. 윤(尹)¹³⁾이 스승을 배반하였을 때 공은 (尹鎬을 비판하는) <서변론(書辨論)>을 지었는데, 문순(文純)은 그 견식(見識)이 명석함을 칭찬하였다. 경신(庚申, 1680, 肅宗6)년에¹⁴⁾ 우암(尤菴)은 귀양지로부터 돌아왔고, 공은 尤菴선생과 차기(蔡記)¹⁵⁾를 주고 받았는데, 우암(尤菴)역시 (공을) 칭찬할 뿐이었다. 기사(己巳, 1689, 肅宗15)년에¹⁶⁾ (공은)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이 착함으로 인하여 빙고(冰庫) 별검(別檢)¹⁷⁾에 천거(薦舉)되었고, 다시 금오랑(金吾郎)¹⁸⁾으로 옮겨졌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어머니의 병이 위독(危篤)하자 손가락을 베

어 (입에) 피를 넣어드렸고, 상증(喪中)에는 (몸의) 훼손(毀損)이 지나쳐 위태로웠다. 경오(庚午, 1690, 肅宗16)년에 정(丁)참판(參判)공은 (공이) 추운 겨울에 밤낮으로 한데서 거처하며 무덤을 지키고 있음을 걱정하였다. (공은 새벽에) 닭이 울면 무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다가 병이 들어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어도 오히려 중단하지 않다가 마침내 효(孝)로써 죽었다. 공은 과연 부지런히 학문에 애썼고, 행실이 남보다 뛰어났으나, 애석하게 일찍 죽어 나이는 중간에 막히고 몸은 궁극적으로 그 뜻한 업적을 얻지 못하였다. 지촌(芝村) 이(李)공 희조(喜朝)¹⁹⁾는 그 비석을 새겨 칭찬하였다. 현재 임금님(英祖)이 기유(己酉, 1729, 英祖5)년이 돌아오자 관찰사(觀察使)²⁰⁾의 장계(狀啓)²¹⁾를 듣고 정려(旌閭)²²⁾를 내렸고, 본 고을의 유림(儒林)들은 향현사(鄉賢祠)²³⁾를 물치(勿縕) 옛집의 자리에 세웠다. 신유(辛酉, 1741, 英祖17)년이²⁴⁾ 돌아오자 조정(朝廷)에서 (祠堂 건립을) 금지시켰고 (기존 祠堂은) 철폐해버렸다. 슬프도다! 공은 참으로 (이) 고을의 선생님이었고, 죽어서는 제사를 받을 만한 분이었다. 사당(祠堂)이 있고 없음이, 고장 사람들이 그 덕에 교화(教化)를 받아 감화되는데 어찌 중요하지 않겠으나, 이 유풍(遺風)을 사모(思慕)하는 자가 오래도록 오히려 쇠퇴하지 않았다. 장차 비석을 세워 (祠堂이 있었던 자리를) 표시하고자 나에게 비문을 부탁하였다. 나는 일찌기 공의 아우 판서(判書)공²⁵⁾의 사위에게서 공의 실제 행적에 대하여 자세히 들었으므로 드디어 그것을 간략히 서술한다. 옛날에 정(程) 부자(夫子)²⁶⁾가 완락정(頑樂亭)에 새기기를 “물은 차마 씩지 않고, 땅은 차마 황폐해지지 않는다.(水不忍廢 地不忍荒)”라고 하였다. 오호(嗚呼)라! 이것(程夫子의 말처럼 废荒되지 않고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이 비석을 새겨 나타냄으로써 가능할 것이고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승록대부(崇錄大夫)²⁷⁾ 행(行)²⁸⁾ 예조판서(禮曹判書)²⁹⁾로서 의금부(義禁府)판사(判事)³⁰⁾, 경연관(經筵官)³¹⁾, 춘추관(春秋館)지사(知事)³²⁾, 흥문관(弘文館) 제학(提學)³³⁾, 성균관(成均館) 동

지관사(同知館事)³⁴⁾, 세자(世子) 좌빈객(左賓客)³⁵⁾을 겸임한 조관빈(趙觀彬)³⁶⁾이가 글을 지었고, 통정대부(通政大夫)³⁷⁾ 수(守) 강원도(江原道) 관찰사(觀察使)로서 병마수군절도사(兵馬水軍節度使)³⁸⁾와 순찰사(巡察使)³⁹⁾를 겸임하

고 있는 홍봉조(洪鳳祚)⁴⁰⁾가 글씨를 썼다.

명(明)나라 황제가 사용한 연대가 지나서⁴¹⁾ (즉, 명나라가 망한 후) 두번째 돌아온 무진(戊辰, 1748, 英祖24)년 12월에 (비석을) 세웠다.

3. 보충설명

- 1) 유희일(俞晦一)의 호. 공이 이곳 물치(勿縕)에 우거(寓居)할 때, 이곳이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선생이 귀양갈 때 머물러 잤던 곳이라고 하여, 그 집의 이름을 붙이기로 물재(勿齋)라고 하였고, 나아가서는 물재(勿齋)가 그의 호가 되었다.
- 2) 유창(俞瑒) 1614(光海君6)~1692(肅宗18); 유희일(俞晦一)의 아버지로, 호가 추담(秋潭)이며, 병조참판(兵曹參判): 호조참판(戶曹參判) 등을 지냈다.
- 3) 조선(朝鮮) 현종(顯宗)때 예송(禮訟) 논쟁이 2차례 일어났는데, 1차를 기해예송(己亥禮訟), 2차를 갑인예송(甲寅禮訟)이라고 한다. 기해(己亥, 1659, 顯宗 즉위)년에 효종(孝宗)이 죽자, 그 계모(繼母)인 자의대비(慈懿大妃)가 복(服)해야 할 복제(服制)에 대하여,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西人)이 기년(朞年, 만1년)을 주장하며 채택되었으나, 남인(南人) 윤휴(尹鑄)가 이를 반대하고 3년(만2년) 주장하자 양파의 논쟁이 치열해졌다. 이듬해 남인(南人) 허목(許穆), 윤선도(尹善道) 등이 계속 상소하여, 서인(西人)이 기년(朞年)을 주장함은 효종(孝宗)의 적통(嫡統)을 부인하는 증거라고 하여 (<朱子家禮>에는, 嫡長子일 경우에 어머니는 아들의 상에 3년상을 입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孝宗은 仁祖를 계승하여 왕이 되었으나, 長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서인(西人)의 정치적 세력을 배제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윤선도(尹善道) 등이 유배되었다. 그 후 갑인(甲寅, 1674, 顯宗 15)년에 효종(孝宗)의 왕비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자,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服制)에 대하여 다시 서인(西人), 남인(南人)의 논쟁이 일어나, 집권당인 서인(西人)은 대공(大功, 9개월)을 주장하고, 남인(南人)은 기년(朞年, 만1년)을 주장하여 당쟁이 벌어지다가, 이번에는 남인(南人)의 기년(朞年)이 채택되어 남인(南人)이 득세하고, 대공(大功)을 주장한 서인(西人)은 배척되었다.
- 4) 윤휴(尹鑄) 1617(光海君9)~1680(肅宗6); 성리학자이며, 호는 백호(白湖). 남인(南人)으로, 1차예송(禮訟)에서는 서인(西人)이 기년(朞年)설에 대하여 3년설을 주장하여 송시열(宋時烈)과 논쟁을 벌렸으나 패하여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렸다. 그러나 2차예송(禮訟)에서는 승리하였다.
- 5) 성균관(成均館) 유생들이, 비행(非行)이 있는 조정(朝廷) 관리의 성명을 누런 종이에 써서 북(鼓)에 불이고 거리로 행진하면서 북을 쳐서 그 비행(非行)을 널리 알리는 것.
- 6) 여기서도 “물치”의 원래 이전 한자(漢字)가 현재의 “勿淄”, “湧淄”가 아니고 “勿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물치는 쌍천(雙川)을 경계로 속초시(束草市) 대포동(大浦洞) 내물치리(內勿淄里)와 양양군(襄陽郡) 강현면(降峴面) 물치리(勿淄里)로 나뉘어져 있다. 유허비(遺墟碑)가 속초(束草) 내물치(內勿淄)에 있으므로 향현사(鄉賢祠)는 거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양양(襄陽) 강현(降峴) 물치(湧淄)로 추정된다.
- 7) 송시열(宋時烈) 1607(宣祖40)~1689(肅宗15); 성리학자이며, 호는 우암(尤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는 서인(西人)으로 1차예송(禮訟)에서는 승리하였으나, 2차예송(禮訟)에서 패배하여 덕원(德源)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장기, 용천(熊川), 거제(巨濟), 청풍(淸風) 등지로 옮겨졌다. 이때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다가 이 고장 물치(勿淄)에서도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1680년(肅宗6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서인(西人)이 재집권하자 다시 기용되었다. 속

- 종(肅宗) 9년(1683년) 서인(西人)이 노론(老論), 소론(少論)으로 나뉠 때 노론(老論)의 영수가 되었다. 1689년(肅宗15년, 己巳) 장희빈(張禧嬪)의 소생(후의 景宗)이 세자(世子)로 책봉되자, 이를 시기상조라고 반대하다가 제주(濟州)에 안치(安置)되었고, 곧 사사(賜死)되었다.
- 8) 유학(儒學)의 기본 경전인 4서(四書)의 하나.
 - 9) 송(宋)나라 진서산(眞西山)이 지은 수양서(修養書).
 - 10) 송(宋)나라의 주자(朱子)와 그의 제자 여조겸(呂祖謙)이 함께 지은 수양서(修養書).
 - 11) 숙종(肅宗) 때 권두경(權斗經)이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언행을 수록하여 편찬한 <퇴계언행록(退溪言行錄)>을 의미하는 것 같다.
 - 12) 경기도(京畿道) 포천군(抱川郡)에 있는 지명. 조선시대(朝鮮時代)까지는 독립된 마을이었으나, 일제시대(日帝時代)인 1914년에 인근 포천군(抱川郡)에 합병되었다.
 - 13) 윤증 1629(仁祖7)~1714(肅宗40); 성리학자이며, 호는 명재(明齋).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었으나 후에 절교(絕交)하였다.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1680, 肅宗6년)으로 재집권한 서인(西人)이 1683년(肅宗9년) 남인(南人)에 대한 처벌문제로 강경파인 노론(老論)과 온건파인 소론(少論)으로 나뉘어지자, 소련(少論)의 영수가 되어 노론(老論)의 송시열(宋時烈)과 치열한 당쟁을 벌렸다.
 - 14) 경신(庚申)년에는, 2차예송(禮訟)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남인(南人)이 실각하고, 서인(西人)이 재집권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다른 말로 경신환국(庚申換局)이라 한다.
 - 15) 독서하여 얻은 바를 수시로 적어 놓은 책.
 - 16) 기사(己巳)년에는 기사환국(己巳換局)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왕자가 없던 숙종(肅宗)이 늦게 장희빈(張禧嬪)에게서 소생을 얻자, 숙종(肅宗)은 그 소생을 바로 세자로 책봉(冊封)하려 하였으나,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西人)은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하면서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출산을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하여 왕의 노여움을 샀다. 이로 인하여 서인(西人)은 정치적으로 실각하고, 다시 남인(南人)이 집권하게 되었다. 남인(南人) 정권이 서인(西人) 송시열(宋時烈)의 편인 유희일(兪晦一)에게 벼슬을 준 것은, 공에 대한 회유책인 것 같고, 공은 그것을 받지 않았다.
 - 17) 빙고(氷庫)는 얼음 저장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고, 별검(別檢)은 그곳의 8품 관직이다.
 - 18) 의금부(義禁府) 도사(都事)를 달리 부르던 명칭. 의금부(義禁府)는 왕명을 받들어 추국(推鞠)하는 일을 담당하던 관청이고, 도사(都事)는 그곳의 종5품 벼슬이다.
 - 19) 이희조(李喜朝) 1655(孝宗6)~1724(景宗4); 호는 지촌(芝村)이며,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고, 벼슬은 이조판서(吏曹判書), 대사헌(大司憲) 등을 지냈다.
 - 20) 도신(道臣)이란 관찰사(觀察使)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의 도지사(道知事)에 해당한다.
 - 21) 관찰사(觀察使), 또는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지방에 내려간 관리가 임금께 올리는 보고.
 - 22)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烈女)들을 그들이 살던 고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는 일.
 - 23) 고장의 어진 선비를 제사지내는 사당(祠堂)이란 뜻이므로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듯이, 유회일(兪晦一)을 모신 사당(祠堂)의 고유 이름도 “향현사(鄉賢祠)”라고 칭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朝鮮時代) 양양읍지(襄陽邑誌)인 <현산지(峴山誌)>에는 이 사당(祠堂)이름이 “물재사(勿齋祠)”라고 기록되어 있다.
 - 24) 숙종(肅宗) 때부터 각지에 서원(書院), 사당(祠堂)이 많이 설립되고, 또 그 기능이 변화하여 폐단이 많이 나타났으므로(이때부터 書院과 祠堂의 구분이 모호하여졌다.) 숙종(肅宗) 40년부터 그 설립에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영조(英祖) 17년(1714년, 辛酉)에는 무려 170여개의 서원(書院), 사당(祠堂)이 혁파되었고, 서원(書院), 사당(祠堂) 철폐에 대한 조정(朝廷)

의 조치를 어긴 관찰사(觀察使), 수령(守令)은 파직시키고, 주동한 유생(儒生)은 5년간 과거 응시를 정지시켰다. 그후 고종(高宗) 때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대규모로 서원을 철폐하였다.

- 25) 유득일(俞得一) 1650(孝宗1)~1712(肅宗38); 유희일(俞晦一)의 아우.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형조판서(刑曹判書), 병조판서(兵曹判書) 등을 지냈다.
- 26) 부자(夫子)는 덕행(德行)이 높아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에 대한 경칭으로, 여기서의 정부자(程夫子)는 송(宋)나라의 성리학자로서 주자(朱子)에게 큰 영향을 끼친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를 가리킨다. 성리학(性理學), 즉 주자학(朱子學)을 정주학(程朱學)이라고도 칭하는데, 이것은 이들 형제와 주자(朱子)에 의하여 완성된 학문이란 뜻이다.
- 27) 종1품의 품계.
- 28) 행수(行守)란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는 관리에게 주던 칭호로, 품계가 높으나 관직이 낮을 경우는 행(行), 반대의 경우는 수(守)라고 하여 관직 이름앞에 적었다. 예를들면 예조판서(禮曹判書)라는 관직은 정2품 관직인데, 그보다 높은 종1품 승록대부(崇錄大夫)의 품계를 지녔으니 “행(行)”자(字)가 들어간 것이다.
- 29) 예조(禮曹)는 6조(六曹)의 하나로서, 예악(禮樂), 제사(祭祀), 연향(宴享), 조빙(朝聘), 학교, 과거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고, 그 장관은 정2품의 판서(判書)였다.
- 30) 의금부(義禁府)는 왕명에 의하여 추국(推鞠)하는 일을 관장하던 기관이고, 판사(判事)는 종1품의 관직이었다.
- 31) 경연(經筵)이란 임금이 학문을 닦기 위하여 신하들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궁중에 불러 경적(經籍)과 사서(史書) 등을 강론하게 하는 제도였고, 그 관리를 경연관(經筵官)이라고 하였다.
- 32) 춘추관(春秋館)은 역사 편찬을 담당하던 기관이고, 지사(知事)는 정2품 관직이었다.
- 33) 홍문관(弘文館)은 궁중의 경서(經書) 및 사적(史籍)을 관리하며 문서를 처리하고 또한 왕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고, 제학(提學)은 종2품 관직이었다.
- 34) 성균관(成均館)은 조선시대(朝鮮時代) 대학(大學)의 명칭이고, 동지관사(同知館事)는 종2품의 관직이었다.
- 35) 왕세자를 모시고 경서(經書)와 사적(史籍)을 강의하며 도의(道義)를 가르치던 기관을 세자시 강원(世子侍講院)이라고 하였고, 좌빈객(佐賓客)은 정2품의 관직이었다.
- 36) 조관빈(趙觀彬) 1691(肅宗17)~1757(英祖33); 노론(老論)에 속하였고, 호조판서(戶曹判書), 예조판서(禮曹判書), 대제학(大提學) 등을 역임하였다.
- 37)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품계.
- 38)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전국 주요지점에 육군과 해군사령부 격인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을 설치하여, 그 사령관으로 각각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두었는데, 줄여서 병사(兵使)·수사(水使)라고 하였다. 각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는 으례 해당 지역의 병사(兵使), 수사(水使)도 물론 있었다.
- 39) 조선시대(朝鮮時代)에 군무(軍務)를 순찰하던 벼슬로, 각 도(道)의 관찰사(觀察使)가 겸임하였다.
- 40) 홍봉조(洪鳳祚) 1680(肅宗6)~1760(英祖36); 노론(老論)에 속하였고,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등을 역임하였다.
- 41)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조선(朝鮮)은 청(淸)과 군신(君臣)관계를 맺었고, 또 1644년에 명(明)나라가 멸망하였으므로, 청(淸)의 연호(年號)를 사용하여야 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朝鮮)의 사람들은, 오랑캐인 청(淸)에게 비록 무력(武力)으로는 굴복하였지만 정신적으로는

굴복할 수 없다고 하여, 청(淸)의 연호(年號)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명(明)의 연호(年號)를 사용하였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연호(年號) 다음에 “후(後)”, “재(再)” 등을 사용하게 되었다.

III. 맷음글

日淸抗爭大清上諭總理

이상 살펴본 것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물재(勿齋) 유희일(俞晦一) 선생은, 이 고장 출신은 아니고, 경기도(京畿道) 포천군(抱川郡) 영평(永平) 출신으로, 아버지는 참판(參判, 현재의 차관)을 지낸 유창(俞瑩)이고, 동생 유득일(俞得一)은 판서(判書, 현재의 장관)를 지낸 명문 출신이었다.
2. 1674년(顯宗15, 甲寅) 2차예송(禮訟)에서 남인(南人)이 승리하여 남인(南人) 정권이 탄생하자, 당시 성균관(成均館) 학생이었던 유일희(俞晦一)은, 평소 서인(西人)의 영수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을 존경한 나머지, 남인(南人) 예학자 윤희(尹鑄)를 비판하는 부황(付黃)을 주도한 후, 이 고장 물치(勿縕) 마을로 은거(隱居)하여 살았는데, 학행으로 이 고장 사람들을 감복시켰다.
3. 몇년 지나자 부모님 봉양을 위하여 경기도(京畿道) 포천군(抱川郡) 영평(永平)으로 돌아가, 현석(玄石) 박문순(朴文純) 문하에서 계속 수학하였으며, 윤증이 그 스승 송시열(宋時烈)을 배반하였음을 비판하는 <서변론(書辨論)>을 썼다.
4. 1680(肅宗6, 庚申)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선생께 차기(劄記)를 보여 드려 칭찬을 들었다.
5. 1689년(肅宗15, 己巳) 경행(經行)으로 빙고별검(氷庫別檢), 금오랑(禁吾郎)에 천거되었으나(당시 南人 정권이었으므로?)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6. 1690년(肅宗16, 庚午) 어머니가 위독하자 단지수혈(斷指輸血)하였고, 시묘살이 중 병을 얻어 죽었다.
7. 지촌(芝村) 이희조(李喜朝)가 그의 묘비명(墓碑銘)을 썼다.
8. 1729년(英祖5, 己酉) 나라에서 관찰사(觀察使)의 장계(狀啓)를 보고 정려(旌閭)하였고, 이 고장에서는 은거지 물치(勿縕)에 향현사(鄉賢祠)를 세웠다.
9. 1741년(英祖17, 辛酉) 당시에는 서원(書院), 사당(祠堂)이 많이 세워져 폐단이 많았으므로, 나라에서 전국 170여개의 서원(書院), 사당(祠堂)을 철폐하였는데, 향현사(鄉賢祠)도 같이 철폐되었다.
10. 1748년(英祖24, 戊辰) 향현사(鄉賢祠) 자리에 현재의 유허비(遺墟碑)를 세웠는데, 비문은 예조 판서(禮曹判書) 조관빈(趙觀彬)이 짓고, 글씨는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홍봉조(洪鳳祚)가 썼다.
11. 1978년경 새마을 조경관계로 유허비(遺墟碑)는 조금 동쪽으로 옮겨졌다.

재단법인 靑九문화재단



중·고교 동창생들이 25년동안 3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을 발족했다.

속초중·고등학교 9회동창생들

은 지역 영재양성과 애향심을 높이기위해 청구(青九)문화재단(이사장=金龍現)을 설립, 지난 90년 9월 3일 이사회를 열고 9월 14일 오후6시 장학증서 전달식겸 재단설립 기념식을 가졌다.

장학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67년 동기생 중 장학재단의 산파역인 金龍現이사장과 崔東雄(42) 蘆光福씨(43) 등 7명이 학창시절 월회비 3백원씩 모은것이 3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이들은 당시 3백원의 월회비를 마련키위해 주말이나 휴일 방학때면 비누 치약등을 팔기도 했으며 자신들이 만든 시화를 팔아 수익금을 적립하기도 했다.

지난 70년에는 어렵게 모은 기금 40만원을 높은 이자를 준다는 업자에게 맡겼다가 폐이는 아픔도 당했다.

그러나 72년, 속초중학교 재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첫 지급, 뿌듯한 감회를 맛보았다.

이같이 뜻이 확산되자 75년에는 그동안 관망하던 동기생들이 참여, 회원은 20명으로 증가했고 회비도 연간 15만원씩으로 늘렸다.

기금도 금새 1천5백만원으로 늘어 속초시 변두리에 돈사를 마련, 돼지사육으로 기금을 불렸으며 80년에는 속초시내에서 다방을 경영, 수익금을 적립하면서 한때 중단됐던 중학생들의 장학금지급을 재개했다.

이처럼 억척같은 의지로 지금까지 중학생 60명, 고교생 60명 등 1백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기금 3억원에 회원 1백30명의 어엿한 장학재단을 탄생시켰다.

김이사장은 “동기생들의 조그마한 꿈이 이제야 결실을 보게됐다”며 “속초지역 인재 양성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 |
|-----|-----|
| 이사장 | 김용현 |
| 이사 | 노광복 |
| | 조수웅 |
| | 이일랑 |
| | 이주한 |
| | 김종명 |
| | 안중일 |
| | 윤호동 |
| | 김명수 |
| | 김봉기 |
| | 김상수 |
| | 김철수 |
| | 김정수 |
| 감사 | 방승문 |
| | 황윤구 |
| | 동성문 |
| | 이강한 |

스케치 기행

世界的인 名山 雪嶽의 束草港

朴炳柱
홍익대 명예교수

설악산은 속초시의 배산이다. 설악산이 세계적인 명산이므로, 이런 수려한 자연조건속에 형성된 속초향의 자연경관은 아름다움기 마련이다.

설악산은 주봉인 대청봉(해발 1,708m)을 중심으로 속초·양양쪽을 외설악이라 하고, 인제쪽을 내설악, 양양·오색쪽을 남설악이라 부른다.

1965년 설악산 일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1970년에는 국립공원, 1982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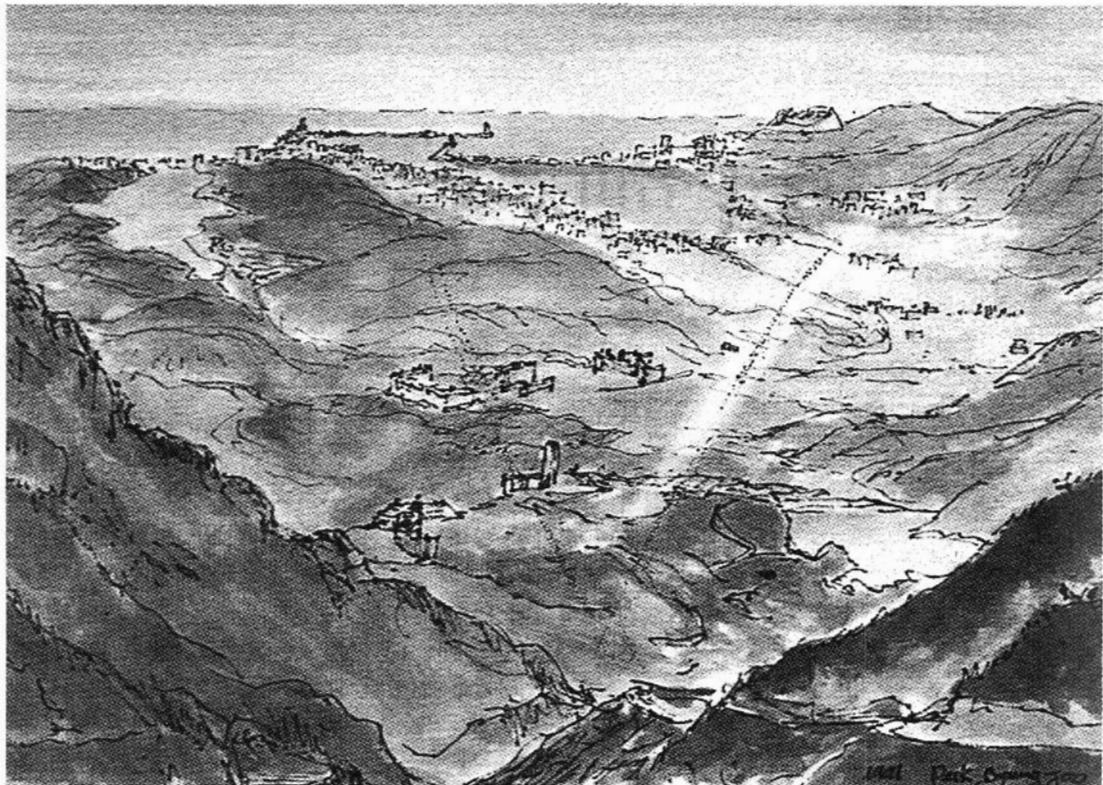
설악산을 찬미한 글 가운데는 「金剛秀而不雄 智異雄而不秀 雪嶽秀而雄」이라는 귀절이 있다. 이는 금강산은 수려하지만 웅장하지 못하고, 지리산은 웅장하지만 수려하지 못한데, 설악산은 수려하면서 웅장하기도 하다는 뜻이다.

최근 속초관광협회가 제정한 설악8경은 설악의 경관을 잘 정리하고 있어 여기에 옮겨본다.

- 용비승천(湧飛昇天) : 설악산에는 폭포가 많고 폭포 물줄기가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다.
- 운악무해(雲嶽霧海) : 산봉우리는 구름위에 솟아 있고, 골짜기는 안개속에 잠겨 있는 풍경이다.
- 칠색유홍(七色有虹) : 폭포에서 생기는 비말(날아 흩어지는 물방울)에 아침 햇빛이 반사되어 영롱한 일곱색의 무지개가 선다.
- 홍해황엽(紅海黃葉) : 가을이 되면 온 산천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인다.
- 춘만철쭉(春慢躊躇) : 봄에 대청봉에는 철쭉과 진달래가 만발하여 산에 가득하다.
- 월야선봉(月夜仙峰) : 가을에 등근달이 중천에 뜨면 기암괴봉의 모습이 선녀같이 보인다.
- 만산향훈(滿山香薰) : 봄에 눈향나무가 다시 소생하면 그 향긋한 냄새가 산에 가득하다.

설악은 동해와 맞붙어 있어 산 계곡뿐만 아니라 바다관광도 즐길 수 있다는 점과 온천·약수 또한 유명하다.

그러므로 작년의 관광통계는 설악동 탐방만으로도 연간 5백50만명을 넘어섰고 2001년에 8백80만명을 추정하고 있다.



〈그림 1. 미시령에서 본 속초시 전망〉

**속초는 세계적인
미항으로서의 자연조건을
구비하고 있는데
건축물이, 그것도
고층건물이 난개발되면
경관의 질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는데서 큰
걱정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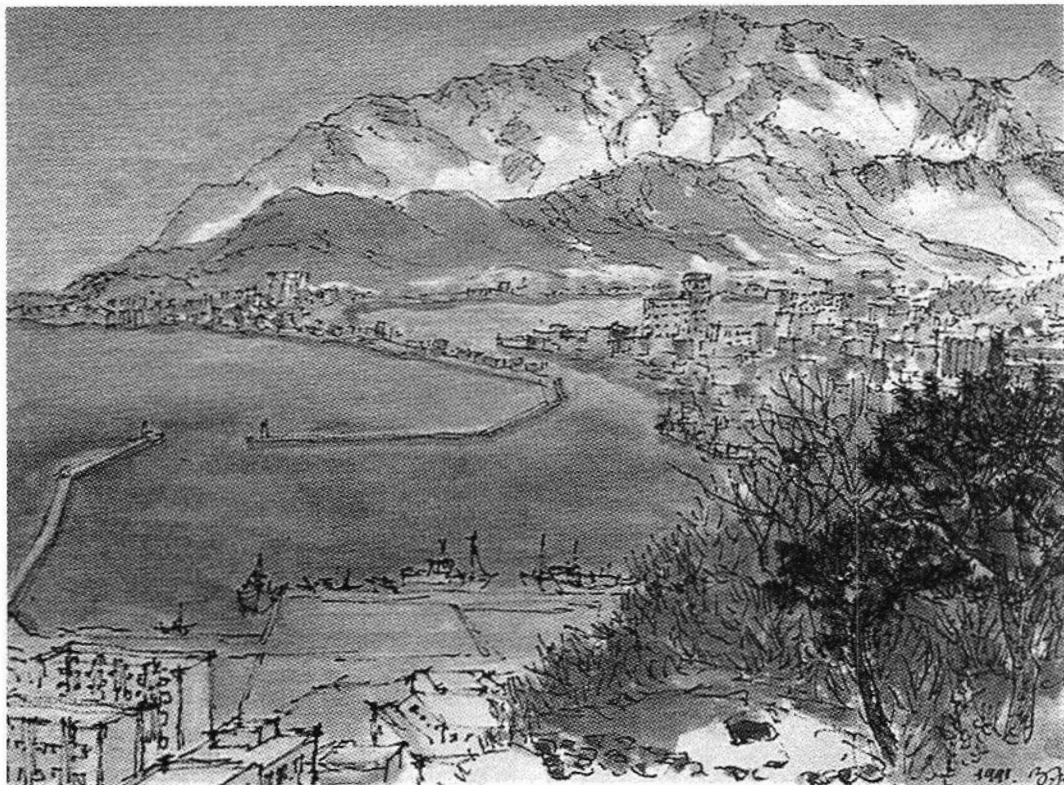
설악동으로 찾아드는 이 관광객이 바로 인접한 속초시로 연결되는 수는 약 3분의 2가 되고 앞으로 속초시가지의 매력도 증가에 따라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속초시의 현재인구는 90년 말 현재 7만3천4백명이다. 속초시의 인구통계를 보면 1970년에 7만3천24명이었고 1980년에는 6만5천7백92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근년에 이르러 증가하고 있다. 속초시 정주인구의 감소는 휴전선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와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탓이라고 분석되어 왔다.

그런데 속초시는 최근에 와서 관광개발붐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 까닭은 남북통일의 대화가 활발해졌고 금강산개발에 대한 기대가 가시화되기에 이르고 보니 설악산을 포함한 금강산 관광권의 동해안루트 거점도시로서의 속초시가 뚜렷하게 빛을 나타낸 때문이다.

이제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진행시켜 보자.

〈그림 1〉은 미시령고개(808m)에서 속초향을 내려다본 조망이다. 속초향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범의 눈같이 생긴 두개의 호수가 있다. 오른쪽 가지에 둘러싸인 호수가 청초호이고 왼쪽 아득하게 보이는 호수가 영랑호이다.



〈그림 2 속초등대에서 속초항 조망〉



〈그림 3〉 속초항 어구, 속초등대를 바라봄

중경에 큰 건물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콘도미니엄 건물이고 제일 가까이 보이는 건물이 '91세계챔버리대회장으로 쓰여진 중앙시설들이다. 또 중경 왼쪽에 척산온천건물도 보인다. 근경 미시령 고개에서 오른쪽만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의 속초행을 미시령령쪽으로 택한 이유는 미시령을 넘어야 만 속초항의 전모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속초~강릉~속초나 서울~인제(한계령)~양양~속초루트에서 〈그림 1〉과 같은 속초항 전체의 경관을 볼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2〉는 속초항의 동단에 있는 속초등대에서의 속초항과 이에 인접한 시가지 경관이다. 그림에서는 항구보다 설악의 빛나는 모습이 더 압도되어 보인다. 물론 이 배경은 설악의 동해로 뻗은 한부분에 불과하다.

나는 이 그림을 스케치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보다는 황홀하기 만 한 속초시의 배경에 압도당하여 한참동안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재확인하고 또 음미하는 시간을 보냈다.

나는 1960년대말에 이 속초 도시계획을 한바 있고 그뒤 여러차례 도시계획,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등으로 속초를 내왕했기에 내심 속초를 잘 있다고 자부해 왔는데, 이 지점에서 보는 이 아름다운 장관을 재발견한 상쾌감에 넋을 잃고 있었다고 표현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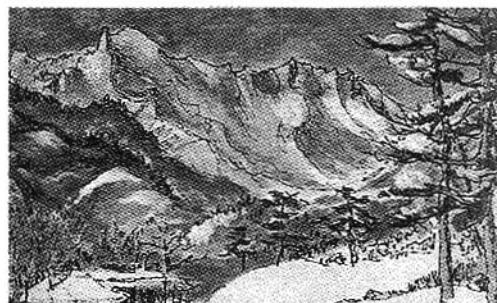


〈그림 4〉 영금정(속초등대)에서 본 북쪽경관

다시 화면 〈그림 2〉에 돌아가서 속초항구를 보자. 근경 방파제쪽에서 자로목으로 들어가 중경의 호수(청초호)와 연결되어 있는 특이한 항만구조를 볼 수 있다. 오징어, 명태, 멸치가 옛날부터 속초의 특산물인데 요즘은 주로 오징어만 잡힌다. 속초의 야경으로 바다위 오징어잡이 배들의 불빛은 유명하다.

〈그림 3〉은 속초항의 자루목 부분을 스케치한 것이다. 이 스케치는 S관광호텔에서 속초등대(원경중앙)쪽으로 바라본 경관이다. 속초등대 바로 밑이 영금정이다. 이 영금정은 옛날에는 기암괴석이 있어 경치가 아름다웠고 파도가 석벽에 부딪칠 때면 신비한 음곡이 들린다는데서 명명되었다고 한다. 그럴정도로 주변경관이 수려했는데 등대공사, 방파제공사때 발파하여 채석함으로써 자연파괴가 되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그 옆에 아파트가 몇채 들어서고 있음을 본다. 하필이면 이런 곳에까지 건축을 해야 하느냐, 잘못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그림 5〉 설악산 국립공원 어구에서의 설경

느낀다. 속초등대가 있는 영금정은 유원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일대의 기존 주택지도 재개발을 하고 속초등대의 고지에도 전망대를 만드는 등 이 일대를 관광요지로서 잘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림 4〉는 속초등대가 있는 자리에서 북쪽 해안선을 본 경관이다. 이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해금강(금강산)에 다다른다. 왼쪽 화



〈그림 6. 신흥사 주변경관, 울산바위가 뒤로 보인다〉

면위에 영랑호가 보인다.

남북대화가 본격화되기 전의 불과 수년전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한산하기만 했다. 휴전선이 가깝기 때문에 개발같은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화면에서 보는바와 같이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속초가 동해를 따라 금강산까지 연결되는 관광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이런 즉흥적인 감상에 잠겼다가 다시 현실문제로 돌아 생각해 보면 이 지역의 개발붐이 오히려 큰 문제로서 대두하게 됨을 느끼게 한다. 난개발(亂開發)이 되고 있는 까닭이다.

규모가 큰 콘도미니엄이나 오피스텔이란 이름의 건물들이 전체적인 면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이나 건축계획같은 마스터플랜이 없이 마구 개발되고 있는 것 같다.

속초는 세계적인 미항으로서의 자연조건을 구비하고 있는데 건축물이, 그것도 고층건물이

난개발되면 경관의 질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데서 큰 걱정을 하게 된다. 속초를 들러싼 주변의(휴전선까지) 광역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그림 5〉는 외설악 입구에서 본 설경이고 〈그림 6〉은 신흥사 입구 권금성쪽에서 본 울산바위(650m)와 신흥사를 조망한 것이다.

끝으로 부언하고 싶은 것은 속초는 설악과 연결시켜 세계적인 미항으로써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하나 더 강조할 것은 속초시의 북쪽 휴전선까지의 해안선 보호및 그 배후의 자연경관이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악산과 금강산은 하나의 권역으로서, 그 수려한 자연경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26회 설악제 참관기

산악인과 속초시민의 대축제

유 만 옥/연합통신 기자



◆◆단풍이 골게 물든 설악산에서
펼쳐지는 산악인과 속초시민의 대축제인
설악제는 올해로 26회째를 맞았다.

태백산맥이 동해에 바짝 붙어서 뻗어 내리면
온갖 재주를 부려서 금강산(金剛山)을 빚고 한
참 더 달리다 금강산만으로는 마음에 차지않아
좀더 높게 빚어놓은 산이 설악산(雪嶽山)이다.

7,800의 봉우리를 거느리고 4계절에 따라 각
각 특색있는 경관을 보여주는 설악산은 한마디
로 금강산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이 명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설악인과 속초시

민의 대축제인 설악제가 지난 10월 1일부터 3
일까지 3일간 설악산 소공원과 속초시 중앙동
공설운동장에서 성대히 펼쳐졌다.

이번으로 26회째를 맞는 설악제는 개막 전날
인 지난 9월 30일 하오 설악산인의 무사고를
비는 산신제(山神祭)가 설악 청년회의 주관으
로 설악산 소공원에서 올려졌으며 이어 속초시
노인회가 주최하는 산신, 용왕신, 토끼신께 올
리는 영신제가 이어져 시민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3일간의 축제가
막이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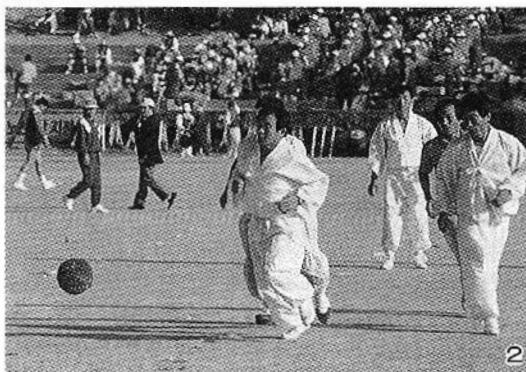




◆실향민들의 한을 풀기 위해 동명동 주민들이 「수복탑」을 만들어 시가지를 행진하고 있다.



1



2



또한 속초에서는 전야제 행사로 속초여고생 등 4개교 500여명의 오색찬란한 제등행렬이 속초우체국에서 시청, 수복탑까지 3km에 걸쳐 펼쳐졌으며 속초고등학교 2개교 200여명의 밴드와 대포국민학교 농악대, 고적대 등이 시가행진을 벌여 거리는 온통 축제분위기에 휩싸였다. 이어 속초시청 상공에서는 250여발의 불꽃놀이가 벌어져 10월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원래 설악제는 「金富軾의 三國史記 難志 第一祭祀條」에 “三山五岳祝 下明山川分慰大中小祝 少祝霜岳 雪嶽山達城郡…”이라 기술한 것으로 보아 신라때부터 설악산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졌음을 알수 있으며 현재의 설악제가 되살아난 것은 1966년 설악산악회가 주축되어 산신제와 동반행사를 갖게 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제17회 설악제부터 전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매년 10월 2일 갖는 속초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 오다 제19회부터는 전통민속놀이도 곁들여 향토문화축제 행사로 정착되었

다.

3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속초시는 모든 상가가 철시하다시피 많은 시민이 동참해 민속놀이를 비롯한 각종 운동경기가 벌어졌으며, 시내 곳곳에서는 꽃꽂이전, 분재전, 미술전시회, 주부가요제등 갖가지 문화예술행사도 아울러 개최됐다.

이번 민속행사로는 씨름대회, 줄다리기, 그네뛰기, 널뛰기, 궁도대회등이 체육행사로는 배구, 싸이클, 게이트볼, 골프대회등이 열렸다.

그러나 설악제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점차 속초시민의 행사로 양상이 바뀌어 가고 있어 전통의 등산대회가 뒷전으로 밀려나 명색이 전국등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참여자가 없어 서운한 감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설악제는 당국의 과소비 풍조 퇴치이유로 속초어민의 화려한 해상 불꽃놀이가 취소되는가 하면 특전사(特戰司)에 의해 펼쳐지는 헬기축하비행, 고공낙하 시범이 무산돼 예년에 비해 축소된 축제이기도 했다.



3



4



5

한편 홍순호 속초시장은 “설악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과 향토색을 살린 지역 특성 문화제로 전시민의 일체감과 애향심이 고조된 화합과 협동의 설악축제로 계성, 발전시켜 각종행사를 확대하고 설악을 찾는 산악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1. 식전행사로 속초중앙국민학교 학생 450명이 부채춤을 추고 있다.
2. 한복에 짚신을 신고 벌이는 민속축구. 공은 그물망에 스치로풀을 넣어 만들어졌다.
3. 속초시 13개 동민들이 중앙동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설악제 개막식에서 입장을 하고 있다. •
4. 민속행사로 벌어진 씨름대회에서 각지역 장사들이 힘을 겨루고 있다.
5. 제26회 설악제 개회식에 앞서 이기섭 설악제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이 란은 설악제위원회측의 요구에 의해 수록하였습니다.〉

제26회 설악제 협찬자 명단

1. 지역인사 및 기업체

| | |
|-----------------|------------|
| 뉴월드콘도 | 300 |
| 박승호(대양㈜) | 2,000 |
| 삼성콘도 | 500 |
| 전상희(대건사) | 100 |
| 전상희(교동) | 100 |
| 강원여객속초영업소 | 300 |
| 방문용(주)동진) | 200 |
| 전창섭(대덕건설) | 500 |
| 재경속초시민회 | 200 |
| 최돈웅(경월주조) | 500 |
| 임정희(척산온천휴양촌) | 300 |
| 한의사협회 | 300 |
| 최성국(현대훼미리타운) | 500 |
| 동해상사속초영업소 | 300 |
| 금용단 | 500 |
| 김길웅(강릉) | 100 |
| 최규식(대명콘도) | 1,000 |
| 심동권(한일례저개발㈜) | 2,000 |
| 김용현(청구장학재단) | 500 |
| 동부고속속초영업소 | 100 |
| 최종열(최종열산부인과) | 50 |
| 치파의사협회 | 400 |
| 2. 고문 및 자문위원 | |
| 박용권(시의회의장) | 500 |
| 노성익(속초의료원) | 100 |
| 이근주(국립공원관리소장) | 100 |
| 김용기(낙천여관) | 50 |
| 안국준(시의회의원) | 100 |
| 이인섭(속초교육장) | 200 |
| 한국통신속초전화국장 | 100 |
| 정재철(한국산업은행이사장) | 500 |
| 김치룡(유일택시) | 300 |
| 윤중국(도의회의원) | 100 |
| 홍종호(설악프라자페밀리타운) | 3,000 |
| | 상당 연회 200발 |

시의회의회 일동 300

| | |
|----------------|-------|
| 김덕규(한국전력속초지점장) | 200 |
| 이기을(동우전문대교수) | 100 |
| 박익훈(전교장) | 50 |
| 이호순(") | 50 |
| 이인수(속초우체국장) | 100 |
| 김천일(신홍사주지) | 2,000 |
| 최정식(국회의원) | 500 |
| 이관희(도의회 의원) | 100 |
| 전상기(도의회 의원) | 100 |

3. 회장단

| | |
|-----------------|-----|
| 이기섭(설악제위원회위원장) | 300 |
| 정국환(설악제위원회부위원장) | 200 |
| 이건석(") | 200 |
| 차진환(") | 300 |
| 김종록(") | 500 |
| 김충호(") | 300 |
| 지일권(") | 100 |
| 최용문(설악제위원회감사) | 200 |
| 윤종구(") | 200 |

4. 운영위원

| | |
|-----------------|-----|
| 김봉해(합동문화인쇄소) | 100 |
| 조희순(새마을부녀회장) | 100 |
| 박명자(교동새마을금고이사장) | 100 |
| 동문성(재향군인회장) | 100 |
| 박용길(약사회) | 500 |
| 이정현(동명동설악제위원장) | 100 |
| 임덕수(동우전문대조교수) | 50 |
| 최이권(동양전기통신) | 100 |
| 김재섭(영랑동설악제위원장) | 100 |
| 오윤근(전 교감) | 50 |
| 김광수(도문동설악제위원장) | 100 |
| 고명환(삼진건설대표) | 500 |
| 이철재(조양동설악제위원장) | 100 |
| 권봉희(속초주류합동상사) | 300 |
| 김광수(예총속초지부장) | 100 |

| | | | |
|----------------------|-----|-----------------------|-------|
| 김일동(장사동설악제위원장)..... | 100 | 최택림(설악케이블카㈜) | 2,000 |
| 백영일(중앙가스) | 200 | 윤중호(중앙전업사) | 50 |
| 김정문(대명기업) | 500 | 김명호(속초축협장) | 500 |
| 5. 집행위원 | | 박재윤(동양시멘트속초공장장) | 500 |
| 박영식(속초시노인회사무국장)..... | 50 | 송재일(속초시의사회) | 1,000 |
| 황석동(테니스협회) | 200 | 최무일(제일약국) | 100 |
| 하은희(여성단체협의회) | 50 | 김철섭(제일라사) | 200 |
| 김길정 (속초농협장) | 100 | 농협중앙회속초지점장) | 500 |
| 김수하(배구협회장) | 100 | 이원익(제일극장) | 200 |
| 임주현(씨름협회장) | 300 | 장창록(대명운수) | 100 |
| 6. 위원 | | 임원일(강원은행속초지점장) | 100 |
| 한국담배인삼공사속초지점장..... | 50 | 노광복(중앙동) | 50 |
| 박춘원(함경조선소) | 50 | 김여수(경향공업사) | 300 |
| 변동만(동명건설) | 500 | 이영선(동해택시) | 1,500 |
| 박상호(금강운수) | 100 | 임창기(동보상사) | 1,000 |
| 김연택(유한상회) | 100 | 박학성(동명동마을금고이사장)..... | 50 |
| 김두환(속초지구선주협회) | 100 | 이명걸(강원렌트카) | 50 |
| 김정애(조양재제소) | 50 | 구창희(파이한클럽속초지회장) | 50 |
| 고석준(장사동)..... | 50 | 7. 90미납자 협찬 | |
| 이설봉(합홍냉면)..... | 70 | 권득수(고성회관) | 50 |
| 길태주(속초고무) | 100 | 최영석(설악슈퍼) | 50 |
| 김두형(교동) | 50 | 함영태(현대슈퍼) | 50 |
| 정종훈(금호동) | 50 | 이형규(시장조합) | 50 |
| 서재홍(제일화원) | 100 | 김길선(상공회의소사무국장) | 50 |
| 정영래(속초라이온스클럽) | 200 | 이건석(행정동우회장) | 100 |
| 김택송(속초약국) | 100 | | |

재단법인 속초경찰서 무궁화 장학회

경찰관 자녀들의 학업을 돋기 위한 장학회가 구성되었다. 경찰관들이 박봉에 시달린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이들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평소 이런 점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임창기씨 등 지역유지 63명은, 지난 8월 장학회를 설립하여 이들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을 결의했다. 이들은 사재를 털어 5,400만원의 기금을 모아, 지난 11월에 재단 창립 기념식을 가지기에 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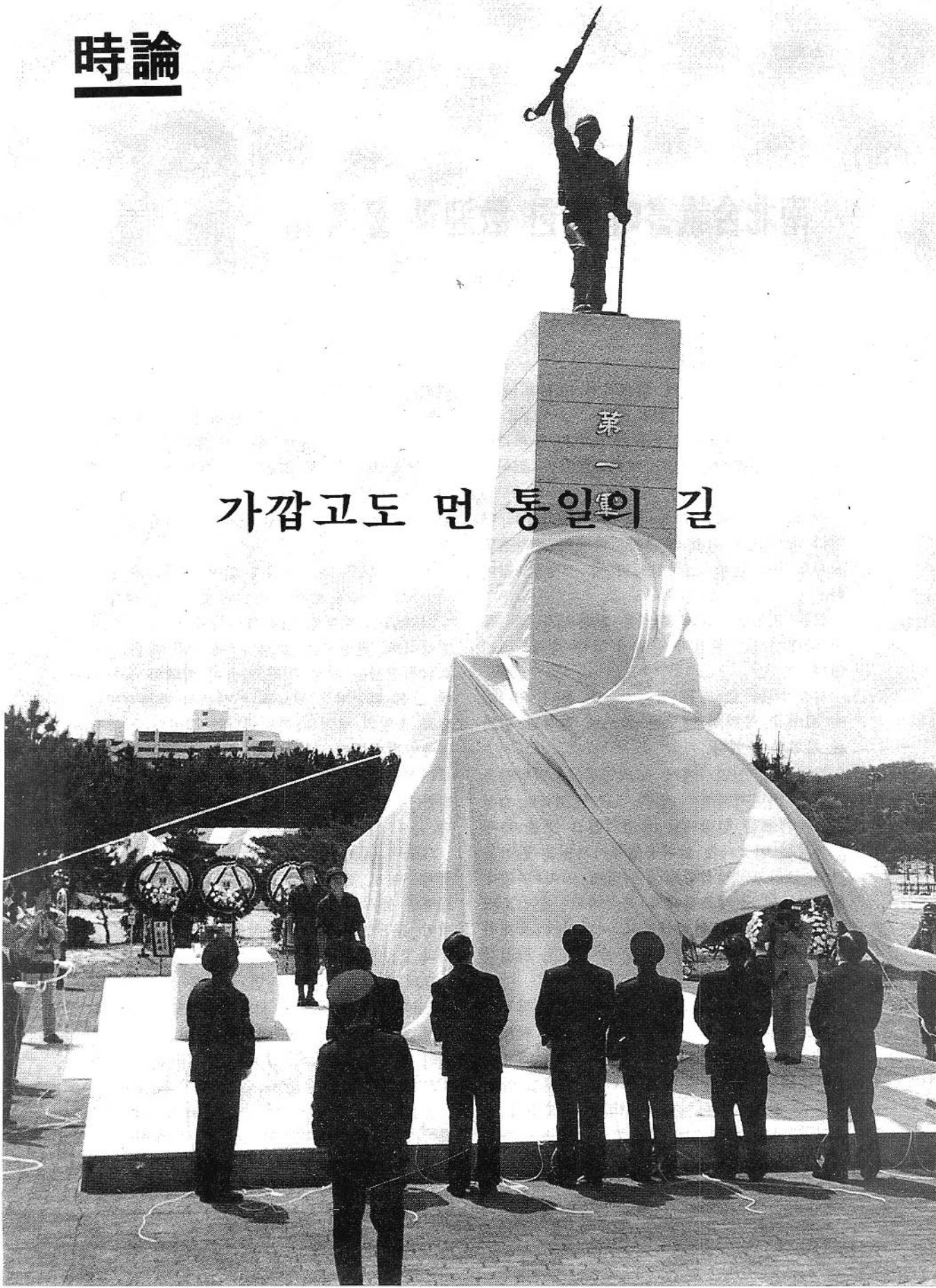
렸다. 이 재단은 앞으로 속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자녀 중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며, 재단 기금을 계속 증액시켜 그 수혜폭을 넓힐 예정이라고 한다.

임창기 이사장은 창립식 직후, “우리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이로써 더욱 철저한 치안행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 재단은 이사장 1인, 이사 10인, 감사 2인등 총 13명의 임원진에 의해 운영된다.



가깝고도 먼 통일의 길

第一



南北合議書에 對한 歡迎과 憂慮



李仁鐵
함북도민회장

국제사회의 혁명적인 대변혁이 마침내 우리 한반도에도 찾아오고 있다.

지난 12월 13일의 신문들은 소련의 붕괴기사와 함께 「남북합의서」가 채택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매사에 방해책동만 노리는 북한공산당도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 드디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많은 외국언론들의 환영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국내에서는 환영과 환희에 들뜬 축제분위기였다.

사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분단 46년만에 보여준 북한의 태도는 참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수정해 가면서까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주장하였고 또한 주체노선과는 어긋나는 남북유엔동시가입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남북합의서」서명에 이어 미핵우선철회동의 전제조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하였고 나아가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사실상 수용키로 할것같다.

이처럼 북한이 전례없이 남북현안에 적극적인 것은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밖으로는 소련공산주의의 역사는 막을 내리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안으로는 경제적위기와 외교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선 일본과 미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해야하고 또한 김정일후계자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국가주석직을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해 이제는 하는수없이 대북한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이 유리하게 돋고있는 한국에 먼저 접근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과 그리고 핵문제해결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보면 대북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은 과거 어느때 보다도 유리하게 된 것 같다.

그러나 그보다도 남북합의서에 대해 그토록 열광하며 환영하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6.25남침전쟁을 치른 우리 민족이 화해와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으로 이땅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통일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통일방법론에 있어서는 북한의 통일전략은 무력적화통일이고 통일전술은 위장평화통일이라는 통일정책을 그동안 당강령으로 삼아 왔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 남북합의서의 서명으로 국제무대에 전쟁을 포기한다는 것을 공식으로 표명한 동시에 북한의 실질적인 관할지역이 현재의 휴전선이북이라는 것을 시인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앞에서 논했지만 북한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합의서에 서명한 이상은 합의서의 한 부분인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물자교역이 더 활발해질 것이고 남북이산가족이 자유롭게 왕래하지는 못하더라도 판문점에 일정한

장소를 정하거나 혹은 특정지역을 마련하여 이 산가족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제 그런 정도로 나마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것은 북한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게 되었다. 때문에 일단은 남북합의서에 대한 서명은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환영과 동시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환영이면 환영에서 끝나야지 우려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바로 이 점이 분단국 가중에서도 우리만이 안고 있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모순이다. 이러한 모순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점이다. 과거의 분단국가들 중에서 동독이나 남예멘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이 유독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안전이 이번 남북합의서에 구체적이 아닌 서사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이 크나큰 우려를 가져오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지난 18일에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남북합의서 발표중지」라는 우리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신문지상에 보도됨으로서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남북한이 핵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비핵화」를 선언하였고 북한은 「비핵지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비핵화란 한반도에 일체의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지대화」, 즉 미국의 핵우산까지도 거부하고 나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동북아에서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속에 있는것이 사실이며 또한 북한도 소련과 중공의 핵우산속에 들어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비핵지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속에 있는한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 북한은 미핵무기철수만으로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고 나아가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할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크게 우려되는 것은 남북합의서의 내용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불가침」문제이다.

역사이래 「불가침」이 지켜진 예는 없었다고

본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구라파의 역사가 또한 보여주고 있다. 가까운 예로서 제2차세계대전의 주범인 히틀러는 먼저 동구라파를 침공하기 위해 배후에 있는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맺어놓고 이어 동구라파를 점령한 후 소련과의 불가침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련에 대한 침공을 개시했다. 소련 또한 일본과 맺은 불가침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8. 15해방직전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던 것이다.

국제정치에 있어서 불가침조약이란 엄밀한 의미로 말한다면 서로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나라들간에 체결한다는 것이다. 환원하면 전쟁도발가능성이 희박한 국가간에는 체결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예를 든다면 미국과 영국이 불가침조약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언젠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짙은 나라들간에 체결되는것이 불가침조약이라면 더더욱이 북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계심도 늦출 수 없다는 명약관화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교류협력이란 부분에 관해서는 더없이 환영하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있는것은 현재의 북한이 이내로 지속된다면 곧 경제파탄에 이를 것인데 북한이 그렇게 되는것은 오히려 위험(도발가능성)하니 북한을 경제적으로 살려가면서 통일에 접근하자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이루어 손해배상금을 얻어내고 우리의 교류협력으로 숨통이 트이게 되었을 때 그것이 김일성부자를 더욱 도와주게 되는 결과라면, 다시 말해서 북한이 그것만을 노리고 있다면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화해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남북대결로 나가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우려가 된다.

그리고 동구에서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소련이 붕괴되었다고 해서 사회주의의 종말이 온 것은 아니다. 중공이 건재하고 그리고 김일성부자는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시도하면서 주체사상이니 반미자주통일이니 우리식대로 살아나가기 운운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북한의 만행과 대남적화통일 전선의 허구와 이중성, 그들의 숨은 의도를 상기해보면 또 기만술책에 걸려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해본다.

이러한 우려가 전혀 망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바둑대국에서 고수들이 수를 읽어가며 바둑알을 놓듯이 아주 치밀한 계산하에 남북합의서를 작성하고 채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때 각계 언론이나 TV의 심야토론 등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즉 7. 4공동성명되

에 남한에서는 유신체제가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세습이 구축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특히 실향민인 나로서는 듣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통일을 위한 디딤돌로 남북합의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적인 대경사로 환영하며 한편으로는 우려를 해야 하는 이 사안들을 우리는 냉철하게 직시해야 하고 그리고 46년간이나 각종 만행을 당하면서도 참아온 저력이 있으므로 너무나 조급하게 달려드는 것은 삼가하고 돌다리속담처럼 두드려 가면서 서서히 추진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가깝고도 먼 통일의 길

오 윤 근
전속초고등학교교감

무자비한 피의 숙청으로 수천만을 살육하고 “인민”위에 군림하던 독재자 스탈린이 1953년에 죽자 소련에 개혁의 기미가 나타나는듯 했다.

1953년 7월에 “보르쿠타”的 강제 노동수용소에 수용된 죄수들이 일으킨 폭동은 억눌려온 수백만의 울분을 폭력에 의하여 극적으로 표현한 한 보기였다.

북극권 넘어 탄광에서 스탈린의 죽음, 악명 높았던 비밀경찰의 두목 베리아의 체포, 동독에서 일어났던 인민 봉기등에 관한 소식으로 용기를 얻은 수천명의 노예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포하므로써 당국에 공공연히 반기를 들었다.

1953년부터 1957년에 걸쳐 소련내 저명한 원로작가들은 젊은 작가들과 더불어 작품활동에 힘써 시, 소설, 회곡등 각 분야에서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두딘체프가 쓴 “빵만으로는 살수 없다”는 작품은 서방측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작품은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소련사회의 추악한 모습을 폭로한 것으로서 동토의 땅 소련에도 해빙의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고 자유진영에서는 기대에 찬 눈으로 주시하였다.

1958년에 권좌에 오른 후르시쵸프는 스탈린 격하운동을 펼치면서 평화 공존을 부르짖어 정치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던져주었다. 이 모든것들은 스탈린의 죽음이 몰고온 일련의 변화였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얼마 못가 물거품처럼 사그라지고 말았다.

보르쿠타에서의 광부들의 파업은 모스크바에서 파견된 내무성 군대의 기총소사로 비참하게 진압되었고, 문단에서 트기 시작한 해빙의 싹은 공산당의 강력한 규제로 여지없이 잘리고 말았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90년대에 와서야 비로서 무소 불능의 권력을 휘두르며 74년간 인민위에 군림하던 소련공산당이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았으며 각 공화국의 독립으로 소련방은 해체되었고, 약화된 경제사정은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니 소련의 민주화가 이룩된 것이다.

소련의 민주화 과정에서 고르바초프와 옐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대변혁이 두 사람만의 힘에 의하여 이룩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련의 민주화를 뒷받침하여 준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1950년대 후반에 소련에서 태동하였던 민주화 움직임이 실패한 원인을 규명하므로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당시 소련 인민의 사고는 그러한 민주화 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자유를 갈망하는 대중의 의침이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었더라면 소련의 민주화는 그때 성취될 수도 있었을것이라는 가정을 하여 보게된다.

1991년 8월에 일어났던 소련의 보수파에 의한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이 이와같은 가정을 가능하게 하여 준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여 보는것도 뜻있는 일일 것이다.

최근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것 같다.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그렇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서가 그렇고, 두만강 개발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 사실이 그렇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변화의 정후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통일의 전주곡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통일에의 기대에 부풀어있다. 멀지않아 통일이 될것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하는 이 마저 있을것 같다.

그러나 번번히 속아온 우리들이기에 북측 태도의 어디까지가 진심이며 어디까지가 가면인지 그 속마음을 알 길이 없으니 마음의 경계를 계율리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고향을 북에 둔 필자는 5년 넘게 공산치하에서 생활하였기에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들이 “인민”의 생각을 통제하기 위하여 어떤 짓을 하였는지를 똑똑히 보아왔다.

문학과 예술이 대중의 마음을 통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된 그들은 문학과 예술을 공산주의 선전의 도구로 전착시켜 버렸다.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입각한 문학 예술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는 모든 작품에 대한 억지풀이를 서슴치 않았다.

성모 마리아가 예술을 임태하게된 사실을 유물사관에 짜 맞추어 “원시공산주의 사회는 모계씨족사회로서 어머니는 알아도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수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수 없는 아기를 임태한 마리아를 신비하다고 미화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하였다.

문학도 마찬가지여서 고전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작품은 계급투쟁의 측면에서 풀이하는 것 만이 용납되었다.

우리의 대표적인 고전 춘향전에도 소위 말하는 혁명성을 부여하여 춘향이가 변사또의 영을 거역한 것이 계급투쟁적인 항거라는 것이었다.

수청들기를 강요당하는 춘향이가 절개를 지키는 일이 어찌 양반만의 전유물일 수 있는가? 천한 상민에게는 절개를 지킬 권리마저도 없단 말이냐라는 계급의식에서 춘향이의 항거가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홍부전과 심청전도 있는자와 없는자, 즉 프로레타리아와 부르조아의 계급대립으로 귀결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개심을 부추기면서 대중의 사상을 통제하기 시작한 공산당은 인민을 원격조정할 수 있는 로보트와 같은 존재를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그들이 시키는대로 또 바라는 대

로 말하고 행동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선지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니 지금쯤은 북한 주민들도 이와 같이 통제되고 억눌린 지긋지긋한 생활에 회의나 반발심 같은 것을 느낄때도 되었는데 과연 그런 조짐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는가?

“남북의 창”이나 “통일전망대”등의 TV프로그램에서 단편적이나마 접할 수 있는 북한주민의 생활상에서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으니 한심스럽기만 하다.

김일성, 김정일이 얼굴을 비치는 군중집회마다 운집한 군중들이 벌이는 광란적인 그 행태는 보는 이의 마음을 섭짓하게 하여준다.

북한을 방문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기자와의 인터뷰에 응하는 북한 주민의 그 모습 — 천편일률적인 대답, 도전적이고 반항적인 말투, 적대적인 태도 —에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과거 그대로의 그들임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북한 주민의 사상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 그것이 확산되어 하나의 커다란 물결을 형성하여 감히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발전할때 동구권이나 소련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대변혁을 북한에서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에 최근 북한이 보여준 태도 변화는 계획적인 책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김정일에게 권력을 세습시키기 위한 술책일 수도 있다는 어느 신문의 기사에 공감이 간다.

공산주의라는 허상에 끝까지 매달려 발버둥치는 북한 당국이 어떤 엄청난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배제할 수 없기에 우리는 어느 한 순간에도 경계하는 마음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인지도 모른다.

滅私奉公

高 荣 和
前 文 化 원 이 사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눈물과 땀밖에 없다”

2次世界大戰이 일어난 英國이 히틀러의 침략

으로 위기에 처하였을 때 윈스턴 처칠 英國首相이 下院에서 행한 有明한 歷史的인 연설이다.

非常時를 當하여 온국민의 非常한 精神과 非常한 각오가 要求되었으며 英國이 勝利할때까지 祖國을 위하여 분골쇄신 오직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을 뿐 滅私奉公의 본보기 이기도 하다.

이 世上에서 위대한 일치고 피와 눈물과 땀의 所產이 아닌 것이 없다. 東歐의 自由도 소련의 民主化도 소련市民의 피와 눈물과 땀의 所產이 아닐 수 없다. 우리 韓國도 오늘이 있기까지 피와 눈물과 땀의 所產임을 누가 부인하리요.

그러나 요즘 紙上이나 TV에서는 이기주의의 팽배로 優理道德이 땅에 떨어졌으며 매우 염려스러운 현상이라고 걱정이 여간 아니다.

國民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럴때마다 개탄하고 홍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호지부지 끝난다. 개탄은 개탄으로 끝나고 윤리도덕을 들먹이는 것이 오히려 우습게 되는 社會다.

좀 잘살게된 그늘에는 인간의 참된 모습이 상실되고 사기 횡령 살인 강도 투기 폭력 납치 등의 소름끼치는 사건이 매일 紙上을 장식한다. 그 뿐인가. 이제는 利己가 극에 달한 느낌이다. 國民의 신성한 의무인 국가수호의 병역문제를 위하여 무릎빼 제거수술을 하였다니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나라 의사란 말인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절망감을 떨칠 수 없다.

우리 모두 눈을 감고 自己를 돌아보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라에 이웃에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2400年前 哲人 소크라테스의 말이다. 우리들

은 더불어 사는 社會共同體의 一員인 것이다. 그 社會안에서 각기 다른 社會的役割을 달리하며 살아 가거니와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땅히 해야할 行爲가 있고 해서는 안될 行爲가 있다. 그것은 社會의 秩序와 調和를 維持하기 위하여 서이다. 社會構成員의 行動準則이며 規範이 되는 倫理는 集團이 있는 곳에 있기 마련인데, 이

것이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살고 옳게 살기를 힘써 땅에 떨어진 윤리 도덕을 제자리로 환원하여야 하겠다. 그것이 인간다운 社會이기 때문이다.

公益을 위하여 滅私奉公의 精神으로 땀흘려 바로 사는 자가 잘사는 사회가 되기를 希望하면서.

방문기행

일본의 관광지실태와 속초시의 개발방향

글 / 경인수
강원일보기자

지난 91년 3월 속초개발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발족한 속초지역문제연구소(회장=尹重國) 회원들이 설악권과 입지조건이 비슷한 일본의 고베 아타미 하코네 등지를 방문, 91년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7박8일간 앞으로의 설악권개발추진모델을 연구했다. 18명으로 이루어진 방문단에는 朴容權속초시의회의장, 白永—속초시번영회장, 李揆喆 속초시상공회의소회장등 지역유지도 참석했다.

日本관광개발실태 방문단은 먼저 교토 오사카 고베등 삼도(三都)방문에 들어갔다. 일본제1의 상업도시인 오사카는 현재 상주인구가 줄어들만큼 도시력이 쇠퇴해가고 있었으나 외관상 도시규모및 시민의 표정은 매우 간결하고 친절했다.

일본의 지방자치역사가 40년이 넘었으므로 일정지역중심의 개발·정치·행정·경제정책이 펼쳐지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실제로는 인근지역 및 도시와 연계,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었다. 교또 오사카 고베등은 삼도(三都)라는 이름 그대로 공동의 관광·지역개발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각각 상업 역사 해상도시로서의 성격을 지켰다.

고베는 해안이라는 자연조건을 잘 이용하여 세계 유수의 항구도시가 된 점에서 관심을 끌었으며 세계적인 명성의 80%이상이 인공에 의한 것이었다. 해상문화도시라고 자칭하는 고베는 지난 66년부터 80년까지 15년동안 앞바다에 1백30만평의 인공섬을 만들었으며 공사비는 차관도입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인공섬은 포트아일랜드라고 불리며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고 산을 깎은 부분과 인공섬에는 주택 상가 공공건물을 지어 해상문화도시를 형성했다.

고베시는 96년도에 포트아일랜드를 2백47만평으로, 1백17만평을 추가 확장키 위해 76년부터 다시 공사를 하고 있다. 또 인근바다에 포트아일랜드는 1백74만평의 인공섬을 만들고 있다. 72년도에 시작, 92년도에 완성된다. 고베는 4백21만평의 인공섬축조를 통해 괘적한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다.

5백개소의 온천공을 가진 아타미시는 온천지대로 유명한 관광지. 산이 많고 경사진 해인지대로 개발할 평지가 부족하므로 자연히 산등성을 이용해 관광숙박시설을 많이 지어 외관상으로 자연훼손부분이 많이 발견됐다. 그러나 산정상까지 도로와 하수도를 만들어 생활하수를 오수관에

연결했다. 아타미시는 현재 인구 5만명 호텔·여관 3백동 사원휴양소가 3백동으로 하루 수용인구는 3만명선이다.

글프장 해수욕장 요트항이 개발되고 연1천5백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아타미시는 83%가 서비스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인구 5만명의 아타미시는 17년전 1천여명이었던 공무원숫자를 지방자치 효율분석에 따라 8백50명으로 감축했다. 그리고 현재 관광부에 60명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시내 5백개의 온천공에서는 1분에 2만1천 ℥의 온천수가 분출하는데 시가 개발한 온천공에서 1분에 3천3백 ℥가 나와 16%의 점유율을 보이며 이 온천수를 공중목욕탕등에 공급,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아타미시에는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막기위해 온천심의위원회를 만들었으며 현재 더이상의 온천시추는 사실상 어렵다. 호텔등 관광·숙박시설은 본사를 아타미시에 두지 않으면 사실상 설립이 어려운 형편인데 이는 관광수익의 유출을 막기위한 것이다.

외지인이 별장을 지을땐 1㎡에 5백엔씩 세금을 거둬들이며 노인용맨션이 가장 인기다. 노인용맨션은 완성되기도전에 다 팔린다. 공해의 근본인 공장굴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관광지실태

관광지는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관광지개발이 정점에 이르러 개발여지가 별로 없었다. 일부지역 특히 아타미지역의 건물이나 시설은 노쇠현상을 빚고 있었으며 속초의 신축 레저건물보다 뒤진 것이 많았다.

국제적 관광도시인 고베는 그들의 표현대로하면 「장엄한 록크산맥에 둘러싸인 유명한 항구를 가진 세계적인 도시」라고 하였으나 설악산의 자연스러움과 동해안의 깨끗함에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인공섬을 만들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해상박물관 해상유람선 항로개척 등이 이루어졌으며 관광객을 맞기위한 시민의 공동자세가 돋보였다.

택시기사들은 하나같이 정장을 하고 관광지및 각종 홍보물을 항시 휴대하였으며 관광지는 쓰레기를 보기 힘들정도로 깨끗했다.

식당들은 위생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도태될 정도로 청결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시민자체가 우선 친절하다는 것이 최대의 강점이었다.

일본의 관광지는 대부분 컴퓨터에 올창한 수립대 호수를 조성,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꾀하였다. 특히 나라시의 법륭사는 1천여년전의 유물을 손상없이 보존시켰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주었다. 법륭사에는 1백35점의 국보와 1천8백67점의 중요문화재를 유지하는등 일본특유의 문화재 보존 의식이 돋보였다. 한편 최근 고도(古都) 교토시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몸살을 겪고 있었다.

여태까지 교토시는 시내에서 건설되는 모든 건물높이에 45m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높이 94m 16층 교토호텔이 허가될 움직임을 보이자 관광지면모를 해친다면 시민차원에서 반발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속초시의 개발방향과 방문단성과

방문단은 고베시청 고베상공

회의소 25년전 교베포트아일

랜드를 기획한 고베대학 鳴田勝次교수를 방문, 대화를 나누었으며 아타

미시장 의회의장과도 만나 속초시와의 민간교류에 대한 문제를 협의했다. 속초 최초로 민간부문에서의 방문단 편성은 전례가 없다.

속초지역개발문제와 관련, 尹重國속초지역문제연구소회장은 『속초시가 개발모델연구단을 구성, 기본모형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수정작업을 거친후 장기적인 플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白永一속초시변영회장은 『고베시의 경우 시(市)가 법인기업체를 1백 여개 가지고 있었다』며 『지역개발과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李揆喆속초상공회의소회장은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동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차관을 끌어 쓸수 있는 정도의 독자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민간경영기법이 행정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權春植관동대교수는 『속초는 인근 고성이나 양양등지의 문화유적지와 연계, 머무르는 관광지가 되도록 해야한다』며 『지역과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방문단〉

▲尹重國(속초지역개발문제연구소회장) ▲崔茂一(『소장』) ▲白永一(『후원회장·속초시변영회장』) ▲洪成萬(『임원』) ▲李根春(『』) ▲李柱喆(『』) ▲張雲植(『』) ▲權根春(『전문위원』) ▲朴容權(속초시의회의장) ▲李揆喆(속초상공회의소회장) ▲李正顯(해병전우회장) ▲朴貞玉·朴秀玉·洪慶子(여성단체) ▲朴邦晉 등 KBS 취재팀 ▲慶仁秀강원일보기자



대 담

“東草 鄉土企業株式會社” 發起와 市民의 同參

—백영일 繁榮會長과 이건석 본지주간과의 對談—



—백회장께서 번영회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많은 사업들이 의욕적으로 펼쳐져 왔는데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최대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 지역 번영을 위해서 지역 경제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지역은 경제 구조상 2차 산업인 제조업이 5%미만을 점하고 있어 고용창출이 어렵고, 1차산업인 수산업은 점차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어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다 3차산업인 관광업은 외지 자본의 침투로 인해, 상당 액의 소득이 발생즉시 외지로 다시 빠져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취약점을 안고 있는 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외지 자본의 침투로, 소득이 유출된다는 사실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설악산의 80여개 숙박업소 중에서 우리 지역민 소유의 여관은 불과 두세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

고 있는 콘도미니엄도 지역 상공인의 소유는 단 한개에 불과 하죠. 이 외에도 많은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들이 다 외지 대자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고, 그 수익은 외지 자본가들이 챙겨가고 있는 꼴입니다. 이제 자방자치제의 실시로 자치 기반도 조성해야 하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여러모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죠.』

—안타까운 일이군요. 하지만

아직 우리로서는 지역 자본이 그만큼 성장해 있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민들의 소규모 자본을 모아 대자본을 형성하는 향토기업이 요즘 다른 지역에서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춘천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죠. 춘천은 그런 성격의 향토기업을 얼마전에 발족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수년전에 그런 움직임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구속초중학교부지를 지역자본으로 공동 구입해서는, 대규모 유통센터를 지어 지역 상공인에게 쌈 값에 불하한다는 계획이었죠. 한때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활동들이 활발히 추진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시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현재 우리는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른바 「제3섹터 방식」의 향토기업 창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3섹터 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와 향토민이 공동 출자를 하여 경영 수익사업을 펼치는 기업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익으

로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고, 지역으로서는 우리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된 수익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본은, 외지 대자본의 침투를 막아 지역개발의 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리는 효과가 있는 것인죠.』

— 제3섹터 방식의 향토기업이 형성될 경우, 어떤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향토기업은 그 설립 취지가 지역주민의 자본을 집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이와 동시에 지역발전도 꾀해야 한다는 여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들도 그런 성격에 맞는 것으로 골라야 하겠죠. 현재 구상중인 사업으로는 설악동에 모노레일을 건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도로의 설치는 설악산의 새로운 명물로 등장할 것이고, 설악산 진입의 고질적인 교통적 혐의상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에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영세 자본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죠. 앞으로도 이런 류의 사업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광광을 위한 숙박이나 운송사업을 비롯해 주차장, 휴게소, 수족관, 민속촌, 동식물원등의 관광관련 부대사업을 일구어 보아야 할 것이고요. 그외 토목, 건축, 백화점 등의 사업도 펼쳐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말씀대로 추진만 된다면 대단히 훌륭한 기

업이 되겠군요. 자본은 어떤 식으로 형성할 계획이십니까?

『株를 팔아 모금하는 주식회사 형식을 취해야겠죠. 우선 주식회사 설립의 최저액수만 모집이 되면 바로 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株당 1만원씩 판매해 26,000주가 매각되면 즉시 회사설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자본의 독점화를 막기위해 발기주식은 3,000주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49%의 한도내에서 제한을 두지 않을 겁니다.』

— 외지 자본으로부터 우리 지역경제를 보호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일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속초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서 우리들은 이곳에서 안락하고 보람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복된 땅으로 만들어 물려주어야 하죠. 그러자면 지역 개발의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관행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변영회에서는 앞으로 속초의 개발 주체가 될 이 향토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지금 기획하고 계신 속초 향토기업은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주민의 의한, 주민의 기업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초대 속초시 의회 구성

속초시의회 의원 명단(1991. 3. 26시행)

| 선거구명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나이 | 주 소 | 직업 | 학력 | 경력 |
|------|-----|----|------------|----|---------------------|-----|---------|--------------------|
| 장사동 | 韓永煥 | 남 | 51. 5. 20 | 39 | 영랑동 195-1 | 요식업 | 동성중졸 | 바르게살기협의회장 |
| 영랑동 | 趙承男 | " | 54. 6. 25 | 36 | 영랑동 112-5 | 인쇄업 | 속초중증퇴 | 강원인쇄대표 |
| 동명동 | 尹鍾九 | " | 39. 3. 23 | 52 | 동명동 466-58 | 약사 | 충북대약대졸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속초지회장 |
| 중앙동 | 張憲榮 | " | 28. 5. 10 | 58 | 중앙동 500-8 | 상업 | 평강공립농고졸 | 경찰공무원 평통자문위원 |
| 금호동 | 安國俊 | " | 32. 6. 20 | 58 | 금호동 1/4 | 수산업 | 원산고졸 | 수협조합장 영북합남도민회장 |
| 청학동 | 鄭英泰 | " | 28. 9. 4 | 62 | 청학동 482-16 | 무 | 개성송도중졸 | 대위전역 예비군중대장 |
| 교동 | 張東希 | " | 37. 3. 1 | 54 | 교동 3차 APT B동405호 | 무 | 속초고졸 | 시변영회상임이사 |
| 노학동 | 林鎬成 | " | 46. 6. 11 | 44 | 노학동 159 | 상업 | " | 시정자문위원 국제방역공사대표 |
| 조양동 | 崔昌永 | " | 37. 12. 19 | 53 | 조양동 1371-15 | " | " | 시변영회이사 |
| 청호동 | 呂錫昌 | " | 28. 1. 3 | 63 | 청호동 587 | 무 | 원산문화중졸 | 청호동마을금고이사장 |
| 대포동 | 李泰根 | " | 31. 3. 11 | 60 | 대포동 379-12 | 수산업 | 대포국교졸 | 동개발위원회장 |
| 도문동 | 朴容權 | " | 22. 3. 25 | 69 | 도문동 177-1 | 약종상 | 연길중졸 | 시정자문위원 시의회의장 |
| 설악동 | 全商益 | " | 42. 11. 17 | 48 | 설악동 342-54 | 상업 | 명신중졸 | 새마을협의회부회장 |

도의회의원 명단(1991. 6. 20시행)

| 선거구명 | 소속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주 소 | 직업 | 학력 | 경력 |
|--------------|-----|--------------|----|--------------------|-----------|-----|------------------|-----------------------------|
| 속초시 제1선거구 | 무소속 | 이관희 (李寬熙) | 남 | 35. 11. 14 (55) | 중앙동 4통 1반 | 약사 | 성균관대 약대졸 | 통대대의원 민정당사무국장 |
| 속초시 제2선거구 | 민자당 | 윤중국 (尹重國) | " | 30. 10. 10 (60) | 교동 734-7 | 양식업 | 단국대 문리 대 3년증퇴 | 마을금고연합속초지회장 속초지역개발문제연구소장 |
| 속초시 제3선거구 | " | 전상기 (全商基) | " | 37. 2. 15 (54) | 조양동 1141 | 건설업 | 속초고졸 | 시정자문위원 민자당지구당부위원장 |

시의회 의원



성명 : 한영환(韓永煥)
선거구명 : 영랑동
생년월일 : 51. 5. 20(39)
주소 : 속초시 영랑동 195-1
직업 : 요식업 학력 : 동성중졸
경력 :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성명 : 조승남(趙承南)
선거구명 : 영랑동
생년월일 : 54. 6. 25(36)
주소 : 속초시 영랑동 112-5
직업 : 인쇄업 학력 : 속초중증퇴
경력 : 강원인쇄대표



성명 : 윤종구(尹鍾九)
선거구명 : 동명동
생년월일 : 39. 3. 23(52)
주소 : 속초시 동명동 466-58
직업 : 약사 학력 : 충북대 약사졸
경력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속초지회장



성명 : 장현영(張憲榮)
선거구명 : 중앙동
생년월일 : 28. 5. 10(62)
주소 : 속초시 중앙동 500-8
직업 : 상업 학력 : 평강공립농고졸
경력 : 경찰공무원, 평통자문위원



성명 : 안국준(安國俊)
 선거구명 : 금호동
 생년월일 : 32. 6. 20(58)
 주소 : 속초시 금호동 1/4
 직업 : 수산업 학력 : 원산고 졸업
 경력 : 수협조합장, 영북함남도민회장



성명 : 정영태(鄭英泰)
 선거구명 : 청학동
 생년월일 : 28. 9. 4(62)
 주소 : 속초시 청학동 482-16
 직업 : 무 학력 : 개성송도중졸
 경력 : 대위전역, 예비군중대장



성명 : 장동희(張東希)
 선거구명 : 교동
 생년월일 : 37. 3. 1(54)
 주소 : 속초시 교동 로얄 3차APT B동 405호
 직업 : 무 학력 : 속초고 졸업
 경력 : 시번영회 상임감사



성명 : 임호성(林鎬成)
 선거구명 : 노학동
 생년월일 : 46. 6. 11(44)
 주소 : 속초시 노학동 159
 직업 : 상업 학력 : 속초고 졸업
 경력 : 시정자문위원, 국제방역공사대표



성명 : 최창영(崔昌永)
 선거구명 : 조양동
 생년월일 : 37. 12. 19(53)
 주소 : 속초시 조양동 1371-15
 직업 : 상업 학력 : 속초고 졸업
 경력 : 시번영회이사



성명 : 여석창(呂錫昌)

선거구명 : 청호동

생년월일 : 28. 1. 3(63)

주소 : 속초시 청호동 587

직업 : 무 학력 : 원산문화중졸

경력 : 청호동마을금고이사장



성명 : 이태근(李泰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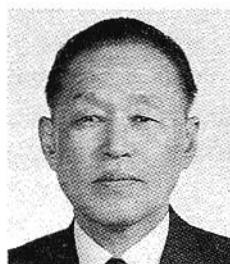
선거구명 : 대포동

생년월일 : 31. 3. 11(60)

주소 : 속초시 대포동 379-12

직업 : 수산업 학력 : 대포국교졸

경력 : 동개발위원장



성명 : 박용권(朴容權)

선거구명 : 도문동

생년월일 : 22. 3. 25(69)

주소 : 속초시 도문동 177-1

직업 : 약종상 학력 : 연길중졸

경력 : 시정자문위원, 시의회의장



성명 : 전상익(全商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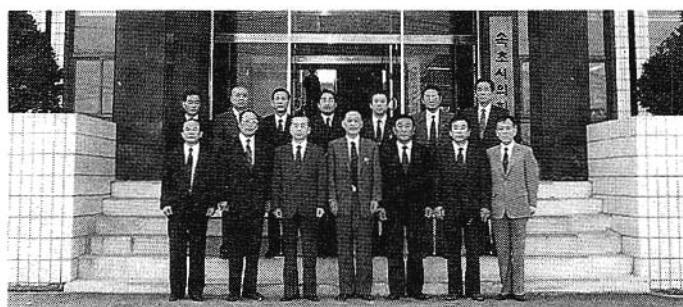
선거구명 : 설악동

생년월일 : 42. 11. 17(48)

주소 : 속초시 설악동 342-54

직업 : 상업 학력 : 명신중졸

경력 : 새마을협의회 부회장



도의회 의원



성명 : 이관희(李寬熙)
선거구명 : 속초시 제1선거구
소속 : 민주자유당
생년월일 : 35. 11. 14(55)
주소 : 속초시 중앙동 4통 1반
직업 : 약사 학력 : 성균관대 약대졸
경력 : 통대대의원, 민주정의당사무국장



성명 : 윤중국(尹重國)
선거구명 : 속초시 제2선거구
소속 : 민주자유당
생년월일 : 30. 10. 10(60)
주소 : 속초시 교동 734-7
직업 : 양식업 학력 : 단국대 문리대 3년중퇴
경력 : 마을금고연합속초지회장, 속초지역개발문제연구소장



성명 : 전상기(全商基)
선거구명 : 속초시 제3선거구
소속 : 민주자유당
생년월일 : 37. 2. 15(54)
주소 : 속초시 조양동 1141
직업 : 건설업 학력 : 속초고졸
경력 : 시정자문위원, 민주자유당 지구당부위원장

내 고 장 人 物

애국지사 李載勳 先生



愛國志士 李載勳先生 事蹟

愛國志士 李載勳(能烈) 선생은 1888년 8월 20일 襄陽郡 襄陽邑 林泉里에서 咸平李氏 가문인 中樞院 議官을 지내신 李錫範公의 長子로 출생하여 유년시절은 林泉里에서 성장하였으며 소년기는 부모를 따라 東草市의 전신인 道川面 中道門里에 옮겨 살면서 그곳 雙川書塾에서 한학을 배우고 峴山學校를 거쳐 景城工業専門學校를 이수한 수재로 장래가 치극히 촉망되었으나 시운이 뒤를 따라주지 않았다.

1919년 3. 1만세는 韓日合邦에 항거하는 통한의 합성이요 자유와 독립을 되찾으려는 비장한 絶叫요, 悠久한 歷史의 빛나는 國權을 光復하여 繼承하려는 당당한 主張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暗黑과 塗炭에 빠져 있던 온民族은 男女老少 貧富의 區別없이 한 덩어리로 뭉쳐진 巨大한 民衆蜂起의 爆發이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 國權回復의 정당한 주장으로 平和의 示威에 대하여 倭敵의 彈圧은 苛酷함이 극에 달하여 무고한 백성을 殘忍無道하고 惡辣한 수법으로 殺戮과 刑罰을 자행하였으니 大韓人으로 그 누가 通分하지 않았으리오!

이 해 襄陽郡은 어떠하였던가? 志士의 아버지 議官公은 儒林의 大家로서 道川面 中道門里에서 隱居하고 있을때 高宗皇帝崩御의 悲報를 듣고 上京하여 國葬에 參禮하고 때마침 長安에서 蜂起한 獨立萬歲 示威를 직접 목격하고 孫秉熙 등이 唱導한 獨立宣言文을 倭警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버선목에 몰래 김추어 가지고 三月下旬경에 下襄하여 곧 舉事의 주동이 되어 襄陽邑 林泉里 李教完氏 家를 三一萬世의 本據地로 삼고 道川面은 志士 李載勳이 주동이 되어 中道門里 李鍾國家에서 金英經 李國範 李載炯 李鍾淳 朴士集 李春在 金鼎式등 다수 各里有志와 隱密히 謀議하여 獨立宣言文

과 太極旗를 秘密裡에 준비하고 4월 4일밤 각리 책임자에게 다음날 勿瀆市場에서 있을 獨立萬歲에 많이 동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4월 5월 勿瀆市場에는 수백명의 군중이 몰려들었을 때 志士는 獨立宣言文을 朗讀하고 太極旗를 높이들고 앞장서 獨立萬歲를 외치니 天地가 진동하였다. 그 길로 群衆과 합세하여 大浦駐在所 앞에 이르러 만세를 부르니 倭人們은 당황하여 배를 타고 바다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4월 6일 오후 1시경 각면에서 동원된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襄陽市場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奏경과 대치하여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나 폭악무도한 奏적의 총검 앞에 무참히 체포되어 酷毒한 고문끝에 소위 保安法違反이라는 죄명을 씌워 1년8개월의 懲役刑을 받고 咸興刑務所에 收監되어 囮圄의 몸이 되었으니 어찌 天人共怒할 日帝의 蠹行을 잊을 수 있으랴!

그후 志士는 獄苦를 마치고 中道門里에 돌아왔으나 毅然한 자세로 日帝의 모든 誘惑을 뿐리치고 清貧한 생활을 一貫하다가 1945년 8. 15 광복을 맞이하여 뜻한바 있어 서울에 移居하였으나 6. 25동란으로 남하 피난도중 1951년 4월 20일 驪州에서 향년 64세를 일기로 큰 뜻을 펴보지 못한채 逝去하였으니 鳴呼라! 이 고장의 先驅者로 탁월한 人格者로 愛國하는 지조와 나라에 貢獻한 충절은 3. 1獨立史에 길이 빛나리!

1982년 8월 15일 政府에서는 그의 功績을 讀揚하여 大統領表彰(제5522호)에 追敍되어 1990년 12월 26일 또다시 政府에서는 志士의 共을 기리어 建國勳章 愛族章(제2046호)을 추서하고 그 유족에게 수여되었다.

配位는 江陵 金榮卿씨의 딸님으로 生以男四女하니 長男 吉行은 좋하고 그의 아들 建德은 현 東草市 校洞에서 거주하며 次男 裳行은 현 서울 城東區 華陽洞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墓는



이재훈지사 기념비 제막식 정경

降峴面 降仙里 福麗 發坐之原에 합장되어 있다.

志士의 子 裳行과 孫 建德은 國家報勳處의
協贊을 얻어 묘역을 聖域化하고 선생의 승고한
愛國精神 그 忠節의 공을 영원히 기리기 위하
여 紀蹟碑를 墓地에 建立하고 1991년 11월 17
일 國家報勳處 및 襄陽郡 關係官을 비롯하여 儒
林등 각계인사 다수의 하객과 京鄉諸族이 운집
한 가운데 엄숙히 제막식을 성대히 거행하였

다.

끝으로 이 3.1운동에 관한 자료는 傳來한 家
乘과 襄陽郡誌에서 參考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됨으로 江湖諸賢의 寬容 있
기를 바라며 東草市가 輩出한 愛國志士 李載勳
先生의 夢福을 빌며 나아가 祖國의 平和統一과
繁榮 福祉로 이어지는 나의 故鄉 東草시의 無
窮한 發展 있기를 祈願하며 이에 객필하고자
한다.



필자 華庭 李時行

- 襄陽郡 中道門里 607번지 出生
- 大浦公立普通學校 7회 卒業
- 襄陽郡 龜楊面 桃花里 231

그리운 내고향

Heron의 公式



이 인 영

三角形의 三邊의 길이가 주어지면 그 面積을 計算할 수 있는 數學公式이다. S: 面積, a: a邊의 길이, b: b邊의 길이, c: c邊의 길이.

$$S = \sqrt{S(s-a)(s-b)(s-c)}$$

8. 15解放後 舊制景城大學(현 서울大學校)豫科 人文系의 마지막 入學試驗에 出題되었던 數學問題중의 하나이다. 나는 8. 15解放 당시 舊制中學校(江陵公立商業學校) 卒業班이었다. 農村出身으로 中學課程만 졸업하여도 職場이 保章되었고 平生은 안이한 편이어서 大學進學은 엄두도 못내고 있던 때이다. 당시의 형편으로는 畫耕夜讀이라 하여 개인날에는 勤勞動員되어 飛行場이나 光山등지에 가서 勞動을 사역당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등교하여 공부하는 실정이고 보면 希望的인 學生生活이라기보다 絶望속에서 시간흐르기만을 期待하는 非生產的인 生活이었다. 설상가상으로 徵兵制渡가 實施되어 졸업후 얼마 있으면 일본군에 입대하여야 할 운명에 처해 있는 때라 의욕과 야망이 없는 터에 8. 15라는 민족해방이 닥쳐왔으니 과거의 절망은 일시에 무너지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이 솟구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당시 사회는 흥분 속에 질서가 없기 마련이고 學校또한 일인교사의 褴임으로 공백상태가 되었고 새직한 교사가 2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터에 상당기한 휴교 상태가 계속되던 중 학교후원회의 노력으로 지방출신 전문대학출신의 선배들의 협력으로 학교는 정상화 되어가고 있었다. 학생들이 등교하고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학생들은 잠에서 깨어났고 너나 할 것 없이 진학의 꿈에 부풀어 면학에 열중하게 되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계속되어가고 있었다.

4월의 학년초가 9월로 바뀌어 우리는 8. 15 1년 후 6월에 졸업을 하고 그때 각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나 자신의 능력과 분수도 헤아리지 못한 채 전기한 京城大學豫科에 志願하였으나 낙방하고 말았다. 실업학교를 졸업하였으니 인문학교에 비하면 理數系는 엄격한 차가 있었으며 지방학교는 도시학교보다 질적으로 차가 심한 때였으며 우리는 상기한 공식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으니 답할 길이 없음은 자명한 일이었다. 지금에 이르러 45년전의 일을 회고하면 어리석기 한량없던 과거가 부끄럽기보다 그러한 야망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생각해 본다. 설악의 정기를 떠났고 잔잔한 동해의 어머니 같은 사랑속에서 생이 시작되었으며 조상을 대대로 모시고 있는 내 고향 東草의 後光으로 그러한 투자가 생겼으리라 믿으며 내 故鄉 東草는 생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될 것이 분명하다.

16세에 大浦학교를 졸업하고 江陵商高에 입학할 때만 해도 東草社會에서 中學校 이상 진학한 자는 헤아릴 수 있는 정도로 極少數였다. 그



러나 지금의 東草教育은 國內的으로 월등한 면이 있다. 각 大學에의 진학을만 보아도 자랑스러우며 卒業生의 사회진출면도 막강하다고 본다. 다만 이들의 고향에 대한 봉사와 애향심만이 기대된다. 그후 38선이 막히고 공부를 하기 위하여는 서울에 머물게 되었으며 기계공학을 전공하게 되니 학교생활 그리고 사생활이 말이 아니었다. 그 당시의 고생스러웠던 일들은 새삼 회고하고 싶지도 않으며 인생이란 꼭 불행하기만은 아니었으니 6. 25사변 當年 4월 1일자로 金浦農業學校 교사 발령을 받았다. 생활이 안정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었으나 6. 25동란을 맞아 부득이 남하할 수 밖에 없었던 중, 군에 입대하여 장교생활을 하다 지금의 육군사관학교가 진해에 창설되어 일반학(공학계) 교수로 취임하게 되면서 인생의 뜻을 찾기 시작하였다. 군생활중 대부분이 전방생활이어서 진념을 가질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나 사관학교생활이 시작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자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후 모교인 漢陽大學校 機械工學科에 출강하여 20여년간 봉직하였다.

교육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부 하겠다는 투철한 의지가 일관되었고 또한 우리 東草가 教育에 열중하는 고장으로서 후진들을 역설히 공부하는 인재로 키워야 할 의무를 복 돌아주기 위한 일념이다.

고향을 사랑하고 東草人으로 자부하면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못가졌으니 애석한 감 많으나 기회가 주어지면 여생을 봉사하는 쪽으로 힘쓸 예정이다.

21년전 선친의 뜻에 따라 출생지 溫井國交에 中學校入學準備金으로 매년 1명분을 보내주고 있다. 당시는 큰 화제가 되었고 東草社會에는 奨學金制度가全然 없을 때여서 칭찬도 있었으나 요즈음은 無關心한것 같다. 近間 東草教育界에는 여러가지 形態로 奖學金制度가 法成化되어 가고 있으며 뜻있는 분들의 공로에 감사할 뿐이다.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 教育都市 東草가 되기를 바란다.

국립공원 설악산(7)

비선대에 얹힌 시문(詩文)과 각자(刻字)(2)

박 익 훈

비선대는 개화설경(開花雪景)이란 설악팔경(雪岳八景)의 하나로 신흥사지(神興寺址) 비선대조(飛仙臺條)의 한 귀절을 요약해 보면 “…반석위를 훌러가는 맑은물은 아름다운 옥구슬이 굴러 가는 것 같고, 녹음방초(綠陰芳草)는 향기를 토하고, 백화(百花)는 제각기 미모를 자랑하는가 하면 높은봉 저멀리서 짐승들 울음소리 들리고 창송위로는 백학이 춤을 춘다. 화창한 봄, 서늘한 가을 계절의 질서… 이 대야 말로 무릉도원(武陵桃源)이 완연하다. 이 대를 찾아 노송가지에 의관(衣冠)을 걸어두고 맑은물에 발을 씻고 반석위에 누워 있으면 속세(俗世)를 벗어나 신선이 되었는듯 하고, 주위의 산봉우리들은 불경(佛境)임이 분명하다. 이런 까닭으로 옛부터 현인달사(賢人達士; 어진선미)들이 찾아와 자기 이름을 새겨 암면(岩面)을 장식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설악산 정고평(停庫坪)에서 찻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호씨(朴鍾浩)는 에베레스트 등반경험도 있는 근 3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산악인으로 살아온 분인데 그의 말에 의하면 비선대 남동쪽에 있는 바위를 신선봉(임시로 붙인 이름)이라 하는데 높이 약 600m되는 암산으로 한번 등반하는데 4~5시간이 소요된다 한다. 등반가들이 세계에서 13급되는 곳을 제일 어려운 곳으로 생각하는것이 보통인데 신선봉은 13~14급 중간되는 곳이어서 세계에서 제일 난코스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훈련한다면 세계 어느 산이라도 정복할 수 있다 했다. 발견된지 얼마되지 않지만 앞날이 매우 촉망된다는 것이다.

산자수명(山紫水明) 신선도 놀다 갔다는 명승지인데다가 세계에서 제일가는 산악인들의

훈련장으로 각광(脚光)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 시와 각자(刻字)등 인문(人文)이 수(繡)를 놓았으니 자연과 인문이 조화(調和)를 이룬 곳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3. 운동이 일어나기 3년전인 1916년 가을 유학자(儒學者) 정송리(鄭松里)가 관동팔경 경학강연(經學講演)차 왔다가 양양 유림(儒林)들과 비선대에서 시를 짓고 “설악아집”(雪岳雅集)을 출간(出刊)했는데 그 시집에 의하면,

宋 達 顯

신선이 날은지 천년이 되어 옛대는 있고
지금은 시선(詩仙)이 신선처럼 찾아왔네
계곡의 급한물 눈발같이 내려가고
숲속으로 뚫인 길 구름에 닿았네
해저문 산속에서 시귀(詩句)를 찾고
국화향기 술잔에 그윽하네
수레를 멈춘채 돌아갈것 잊었더니
길가마귀 울음소리 석양을 알리네
千載飛仙有古臺
試仙今自降仙來
春石急泉翻雪下
穿林徵逢接雲開
暮山題葉成詩句
殘菊留香入酒盃
頓忘歸去停車坐
一陣啼鶯返照回

송달현(宋達顯)은 여산(礪山) 송씨로 자(字)는 치존(致存) 호는 추원(秋腕), 양덕(陽德; 北平)과 흡곡(歎谷; 通川郡) 현감(縣監)을 역임했고 만년에 양양군 손양면 밭포(襄陽郡 巽陽面 鉢浦; 지금의 도화리 바래골)에 은거. 인덕



(人德)이 고매(高邁)하고 덕행(德行)이 출중(出衆)하여 화목을 생활의 신조로 삼았고, 시와 글씨 학문에 능하였으며 특히 명문(名門) 김병기의 총애를 받았다 한다. 양양 김종극(金鍾極·88세)옹이 이 분을 본 일이 있는데 귀공자 풍모였다 한다.

남강 崔 求 宅

와선대 위에 있는 비선대를 찾아
신선의 자취따라 나그네 함께왔네
단풍에 물든산봉 불상이 선듯하고
구름과 물은 흐르고 동천은 터였네
산수는 시경(詩境)이나 가구(佳句)는 생각
나지 않고
술로서 시름잊고자 술잔만 든다네
속세의 영욕을 잊을 수 없는탓인지
막대를 들이켜 돌아갈 길 더듬네
臥仙臺上飛仙臺
晚踏仙蹤客又來
紅樹青巒岩佛立
白雲流水洞天開
詩眞到境無佳句
酒可消愁有此盃

塵世浮榮終不忘 一節還覓路繁回

盧炳翼

충(層)을 이룬 천석(泉石)들은 아직 그대로인데

신선은 간뒤 어찌 다시 오지않나
단풍찾는 손들은 나무밑에 앉아있고
동천은 숲속으로 길이 트였네
이곳 신흥사는 천년고찰인데
때마침 시객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네
신선의 자취따라 미치지 못하고
물가에 달이 지도록 시 읊다 돌아가리
層潭泉石尙有臺
何事飛仙去不來
林下霜客停客坐
洞天雲樹待人開
神興山修千年寺
適會文章九月杯
庭遇仙蹤追未及
臨水盡月浪吟回

최구택(崔求宅), 노병익(盧炳翼) 두 분은 양양 유림(儒林)에는 틀림없는데 이분들의 내력을 아는 분은 아직 찾지 못했다. 사람은 가고 시문만 남았으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이 다시한번 뇌리를 스쳐간다.

비선대에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수많은 인명(人名)들이 새겨져 있는데 대부분이 조선조 중엽초반기(中葉初半期)인 선조때부터 3.1 운동후까지 약 380년간에 걸쳐 새겨진 것들이다. 본인들이 손수 새긴것이 아니고 이 일을 직업으로 하는 석공들이 명승지 부근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들이다. 설악산 개척자인 최구현씨(崔九鉉)씨 말로는 자기가 금강산에 있을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예술이라기보다 생활수단으로 관광객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결론이었다고 한다.

만성보(萬姓譜)처럼 여러 성명들중에 金炳基子玉均(김병기 자옥균)이라는 각자가 선명하게 눈에 띤다. 김옥균은 1851년 1월 13일(哲宗



2) 충남 공주에서 김병태(金炳台)와 은진 송씨의 아들로 태어나 3살때 천안으로 이사갔고, 6살때 서울에 사는 먼 일가 김병기(金炳基)의 양자로 들어가 10살때 강릉부사가 된 양아버지 병기를 따라 강릉으로 가게 되었다. 강릉 송담서원(松譚書院)에서 6년동안 율곡선생의 유풍(儒風)을 열심히 배웠고 16세때 서울로 돌아가 박지원(朴趾源)의 손자인 박규수(朴圭壽)로부터 평등(平等) 개화(開花)사상을 깨우치게 되었다. 그때 동문수학한 박영교(朴泳敎; 永孝의兄), 서광범(徐光範), 홍영식(洪英植)등과 1884년 12월 6일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일으켜 집권(執權) 3일만에 실패하게 되어 세상사람들이 “3일천하”라고 부르게 되었다.

생부 김병태는 생포되어 천안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하고, 누이동생은 음독자살하고 부인 유씨는 7살난 어린딸을 불쌍히 여기어 죽지도 못하고 충북 옥천산골에 들어가 숨어 살면서 주막(酒幕)으로 연명했고, 옥균은 일본으로 망명해 10년이란 세월을 때로는 까닭없이 고도 오까사하라(孤島 小笠原)에 유배되기도 했다. 거기다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자객(刺客)들의 표적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다가 1894년 중국 이홍장(李鴻章)의 초청으로 홍종우(洪鍾宇)가 자객인줄 모르고 같이 상해로가 미국조계(美國租界)에 있는 동화양행(東和洋行)에 투숙하고 다음날 통감(通鑑)을 읽다가 눈에 안약을 넣고 통감으로 눈을 가리려는 순간 홍이 권총으로 옥균의 뺨을 쏘았다. 벌떡 일어나자 다시 배를 쏘이 죽게하니 때는 1894년 2월 22일(양력 3월 28일)이요 옥균의 나이는 방년 44세였

다.

시신은 고국으로 돌아와 양화진(楊花津; 지금 마포구 당인리 부근)에서 부관참시(剖棺斬屍; 죽은 시체를 다시 목 자르는 것)되고, 사지는 찢겨 역적이란 누명을 씌워 토막난 시체를 각 고을에 한토막씩 보냈다 한다. 그래서 그의 묘소가 아산군 영인면 아산리(牙山郡 靈仁面 牙山里)야산에 부인 유씨와 합장되어 있는가하면 일본 도쿄에서 무덤이 두곳에 있는데 하나는 아오야마묘지(青山墓地) 다른 하나는 진조지(眞淨寺)라 한다.

사람이 한번 죽는것도 한이 된다는데 세번이나 죽음을 당했으니 일려 무엇하리요! 옥균은 머리가 총명한데다가 해박한 지식, 넘치는 패기, 폭넓은 인격자로서 보기드문 애국자요 뛰어난 혁명가였건만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달랐다. 박영효는 사기꾼이라 했고, 서재필은 둘도 없는 애국자라 했다. 옥균은 일본을 이용하려다가 도리여 이용당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고 말았으니 시운이 불길한 탓인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이라 해야 옳을지 꽂다운 나이로 뜻을 폐지못한채 역사의 뒤안길에서 빛을 잊고 말았다. 비선대를 찾는 뜻있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옥균이 비선대에 온 것은 양부 김병기가 강릉부사로 재임 6년동안 있을때 그때가 아니면 1968년 2월 병기가 양양부사로 좌천되었을 때의 일로 추측되나 양양부사 당시는 옥균이 같이 왔다는 기록이 없을 뿐아니라 옥균이 22살 때 문과에 장원급제 했으니 시간적으로 그럴 여유도 없었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비선대에 있는 각자중 마지막으로 李甲成 子南熙, 用熙, 泰熙 이고 그 후로는 새겨진 것이 없다 한다. 이갑성씨 하면 3. 1운동당시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의 한분으로 이 세상을 떠날때도 맨 나중이었고 이곳 각자에서도 마지막이었으니 인연치고는 기이함을 느낀다.

비선대야말로 선경인데다가 시경(詩境)이요 수석(水石)이 모두 인문(人文)을 놓아 안팎으로 일색이다. 위치마저 누구나 갈수 있는 곳이어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오가는 발길이 끊길 날이 없으니 어찌 신의 조화에 감탄하지 않겠는가.

속초의 민속

속초의 전통신앙

장 정 풍 / 강릉대 교수

속초지방의 전통신앙은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믿음의 정도를 볼 때 어촌쪽에 전통신앙이 더 많이 계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신앙은 크게 나누어 집안신 계통으로 성주신, 조왕신, 산신, 쇠구영신, 안택제, 영동할머니(통신)제, 지신제 등이 있으며 마을신 계통으로는 성황신, 산신, 용왕신 등이 신봉된다. 또한 무속신앙이 있는데 무당이라는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굿이라는 절차를 행한다.

구체적으로 집안신 계통을 언급한다면 성주신은 성조신이라고도 하는데 집안신중에서 으뜸되는 신이다. 속초지방의 경우는 단지성주와 종이선주 두가지 다 나타나는데 농촌이 많은 도문동과 이웃마을은 성주단지를 신체로 모셔놓고 이곳에 신곡을 넣고 고사를 지낸다. 대부분 안택제라고 하여 정월이나 음력 11월쯤에 제사를 지낸다. 대체로 택일을 하나 정월달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종이성주는 상량대에 달아 매는데 한지를 접고 흰 무명실태래를 통째로 묶는다.

속초의 어업하는 집안에서는 배성주라 하여 배안에도 집과 같이 성주신을 모신다. 정초 첫 출어시 잡은 고기는 반드시 배성주신에게 바친다.

조왕신은 거의 믿지 않는데 안택제를 지낼 때 부엌에 들어와서 솔뚜껑을 엎어놓고 치성하는 정도이다. 옛날 할머니들의 고증은 매일같이 불 한그릇씩이라도 떠서 올렸다고 하나 요즘의 입식부엌과 구조개선 등으로 차츰 사라져 간다. 다만 집안 식구중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부엌 조왕님께 빈다고 한다.

삼신은 아이를 바라는 집에 크게 믿는 경향이 있는데 무명 보자기주머니에 쌀을 넣어 안방 시렁위에 걸어둔다. 주머니는 배로 만들기도 하는데 미역도 함께 걸기도 한다. 어느 집은 밀과 쌀을 번갈아 넣기도 하는데 봄에는 밀, 가을에 쌀을 넣는다.

그러나 대부분 출산을 하게 되면 미역국과 정성스런 메를 지어 상에다가 차려서 산모가 있는 방의 동쪽 구석에 놓고 빈다. “명감하신 삼신 할머니 앉아서 삼천리 서서 구만리 굽어보시는 삼신할머니 우리 가정 귀한 손자 고이가꿔 주십시오”라고 시어머니가 대신 빌기도 한다. 낙산일 경우도 상을 차려서 삼신할머니를 찾는다고 하는데 요즘은 산부인과를 의지한다고 말하여 믿음의식이 변함을 알 수 있다.

쇠구영신은 구옹신이라고도 하는 가축의 신으로 소를 지키는 신이

다. 집에서 소를 키우는 경우에 소의 건강과 무사를 빌기 위해 안택을 지낼 때 소 마구간에 가서 제물을 차려놓고 기원한다. 한지를 매달아 놓기도 하고 베를 짜는 집은 말코 옆에 끊어 달기도 하며 쇠고기나 백설기를 달아 놓기도 한다. 더러 복숭아 나무로 작은 칼을 깎아 잡병 출입을 막는다고 걸어 놓기도 한다.

영등할머니는 바람신으로 속초에서는 극진히 섬긴다. 특히 어업을 하는 이들은 2월달을 바람님달이라고 할 정도로 근신한다. 바람과 어업은 밀접하므로 바람신을 잘 모신다고 한다. 농촌에서도 마찬가지로 믿고 있으나 어촌보다는 믿음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2월 1일날 영등신이 내려오고 15일날 하늘로 다시 올라가며 20일날은 영등신을 보좌하는 수부신이 마저 올라간다고 한다. 속초에서는 무를 넣어 찌거나 밥을 지어 받치며 집안 식구의 수저를 지은 밥에 모두 꽂아놓고 빈다. 2월 초하룻날 바람이 불면 바람영등으로 흥년되고, 비가 오면 물영등이라 하여 풍년든다고 믿는다.

지신제는 안택을 지낼 때 토지신에게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제사지내며 정초부터 보름까지 농악대 결립패가 와서 지신을밟으면 좋다고 하여 청한다. 기타 축신이나 업신등은 믿음이 약하나 집안의 지킴이라 하여 구령이와 같은 종류는 손대지 않으며 혹 손대면 재산이 감한다고 한다.

마을신앙으로는 유명한 설악산제가 10월 1일 매년 행해지며 마을마다 성황당이 있어 정해진 날짜에 따라 도가를 마련하고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정성껏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한다.



용왕신제는 보통 별신굿, 풍어굿때 성대하게 치루고 있는데 선주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신봉한다.

속초의 무속신앙은 다양한 면모를 보여 주는데 만신, 무당, 복술, 철학, 절대등이 있다. 만신이라고 보통 칭하는 여자 무당은 약 30명 정도이고, 보살 또는 점만 치는 무당이 90여명, 기타 철학하는 사람, 염불을 담당하는 절대 등을 합하면 모두 150여명으로 파악된다. 정확한 통계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현 한국불교 강원도 속초지회 최태경 회장의 통계는 이 단체에 120명이 등록되어 있고, 하

의호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경신연합회는 약 30~40명 정도라고 한다.

속초지방의 굿은 용왕굿, 수살굿, 오구굿 등 바다와 관련된 굿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상굿, 신굿, 재수굿, 화도굿, 내림굿 등도 행한다. 보통 12거리굿은 부정굿, 서낭굿, 조상굿, 성주굿, 망자굿, 세존굿, 오구굿, 별상굿, 대감굿, 말명굿, 칠성굿, 산신굿, 꽃노래, 뒷풀이등이 있다.



花鳥走筆





束草文藝

束草 金氏

흙 냄새만 맡으면 뿌리를 내리는
엉겅퀴나 바랭이 종자들이야
바람이 부는 쪽으로 풀풀 머리를 풀며
나가지만
누구라? 束草 金氏
아들 딸 오롯이 피워 놓고

아이들은 아이들과 어울려 자라는 동안
이제는 짜그라진 束草 金氏
바람에 훌훌 날아와
바위틈에 박힌 솔씨라야
뿌리 내리고 살지
푸르게 버티지.

산다는 건 가벼워지는 것
사방 몇 자 벌린 가지
거두면 짐될 거 없다고
가볍게만 살아라
소금쟁이처럼 가벼워지면
물위라도 걷겠다.



김 춘 만/시인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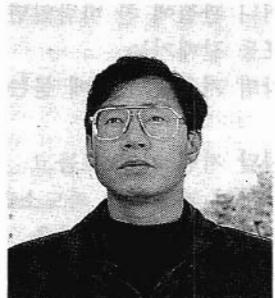
- 「월간문학」신인상으로 등단
- 「갈뫼」同人
-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계령 단풍

악악악악 불이야 불
연기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산등어리
엉망으로 미쳐가는 세상을 태우는
잎새들의 혁명

아 아름다워 오 원더풀
저마다 깃발든 채
멋모르고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아!

태백준령이 모두 불더미인데
걸레같은 웃음으로
숨긴 조상을
얼버무리려 하느냐?



張承鎮 / 시인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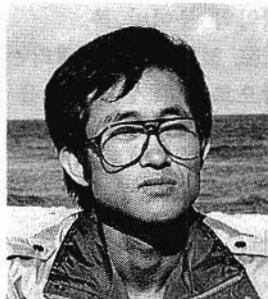
- 1956년 홍천출생
- 강원대 영어교육과 및 동대학원 졸업
- 「心象」신인상 등단
- 「갈뫼」동인

대포동 갈매기

어머니 관절에 찬 바람일면
대포동 갈매기는
설악의 겨울을 동해에 묻는다

동지달 저린 기억 보듬고
이부자리 파고드는 파도소리
살결 시린 아낙의 그리움
대청봉 키를 넘어오면

끼룩끼룩 끼루룩



金 明 起

여서낭당 男根에
前生의 넋을 달래주는 대포동 갈매기

파도의 숨결마다 떠도는 아낙의 속살
휘날리는 눈꽃이여
이승의 못다한 투망이 내린다

끼룩끼룩 끼루룩

바다의 고막을 짚고 솟구치는
설악의 흰뼈들, 오 날아라
갈매기여. 불면의 눈동자여

대포동 등대 상여불꽃 밝히리니
동해의 窓마다
이승과 저승 문을 열고
꽃춤추며 날아라

〈약력〉

- 속초출생
- 무크지 「문학과 지역」에 「안개」와 2편을 발표하고 詩作 활동
- 관동문학同人
- 교동 760-14 명화랑

섬

늘 그렇게 있다.

가까이 다가오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희망.

홀로 걷는 여정
고독의 다리 앞에서
지친 어깨로 주저앉으면
맑은 미소로 보듬어 주고,
안개에 묻혔다가도
아침마다 해가 뜨고,
흔들리거나 침몰하지 않는
기쁨,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 벅찬 감동.

영원히 살아 있는
너는, 내 안에 일찍부터 자리잡은
할머니가 들려주던
한 편의 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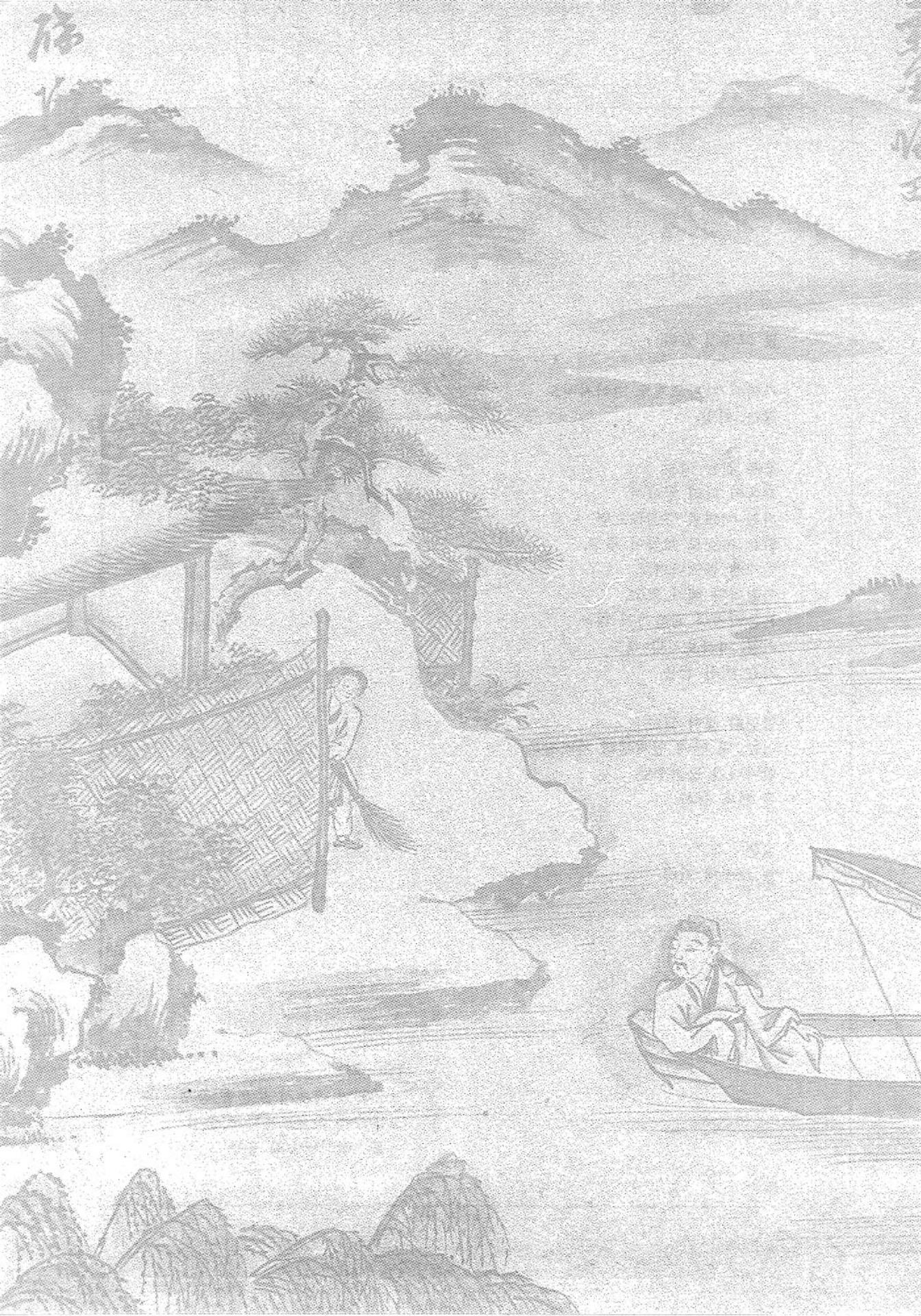
섬은
늘 그렇게 있다.



金 承 基

〈약력〉

- 1958년 속초시 도문동 출생
- 1977년 속초고등학교 졸업
- 물소리시낭송회 춤무



東草市日誌

1963. 1 ~ 1981. 3.

우리 문화원에서는 최근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東草市誌”를 발간 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 지역의 역사,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 모든 자료가 집대성되어 있으며, 4×6배판 1,300쪽 규모의 방대한 양입니다. 이 책은 현재 속초시 문화공보실과 우리 문화원에서 시민 및 전국 주요기관 단체에 배포 중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 문화원에서는 이 책의 내용 중 다소 부실한 부분의 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속초의 민속·설화’, ‘속초의 방언’, ‘속초의 인물’등은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그 외의 미흡한 부분은 이 「속초문화」지를 통해 내용 보충을 시도하겠습니다.

이런 시도의 일환으로, 이번 호에는 “속초 시지” 역사편 일지 부분중 누락된 내용을 보완 합니다. 1963년 1월 1일부터 1981년 12월 31일 까지 수록하였습니다. [편집자주]

東草市日誌 (1963~1981)

【1963年度】

1月 1日

- 襄陽郡 東草邑에서 東草市로 昇格. 東草市廳 開廳

- 市長署理 金致龍

1月 7日

- 市昇格 慶祝式行事을 市民 2萬餘名參席으로 市街地 假裝行列 等 開催.

2月 1日

- 國民銀行 東草支店 開店.

- 大韓通運 東草支店 開店.

3月 1日

- 第44週年 3.1節 記念行事을 市廳廣場에서 舉行.

3月 4日

- 初代 李東晉 東草市長 赴任 就任式 舉行.

3月 16日

- 大統領褒賞轉達式 模範勤勞者賞을 東草準顯 勞動組合에 施賞

4月 17日

- 趙性瑾 建設部長官은 大浦港을 비롯한 各港 施設 및 建設事業狀況 視察次 來市

4月 20日

- 東草市旗 制定式 舉行.

4月 28日

- 韓國日報 東草總局 主觀 普光寺에서 어린이 白日場 舉行.

5月 5日

- 春川 東草 江原線 敷設計劃 교통부에서 通報 (66年度 現地測量豫想)

5月 12日

- 駐韓美大使 월터 가드후리氏 來韓

- 월터大使는 雪嶽山 觀光後 市廳花壇에 記念 植樹.

5月 19日

- 第3回 江原道 綜合體育大會를 東草公設運動場 埃工斗 同時 道內 19個 市郡 選手團 參加 下에 3日間 開催

5月 27日

- 建設部長官 東草와 墨湖邑 綜合港口로 開設發하기위해 世界銀行 調查團을 年內로 派遣한다고 言及.

6月 25日

- 尺山里에서 軍트럭 굴러 23名 死傷者 發生.

8月 15日

- 第18回 光復節 慶祝行事 舉行. 家庭競演 노래 자랑을 東草放送局과 在鄉軍人會 東草市分會 主管 市廳廣場에서 開催.

8月 17日

- 第18回 光復節 慶祝市民體育大會를 東草市體育會에서 主管實施.

10月 12日

- 第1回 國民學校 綜合體育大會를 東草市 主管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10月 14日

- 東草市 勞動會館 新築起工式을 琴湖洞에서 舉行

10月 15日

- 第5代 大統領選舉 實施

11月 1日

- 東草警察署 新築落成式舉行

- 內務部長官 江原道知事 道警局長 參席.

11月 2日

- 金東石 東草市長 赴任 就任式

11月 12日

- 襄陽郡 土地改良組合을 東草土地改良組合으로 移管.

11月 23日

- 東草漁業協同組合 漁販場 落成式을 舉行 規模 672坪(2,910千원 投入)

11月 26日

- 第6代 國會議員 選舉 實施

12月 9日

- 市政協議會가 市長室에서 市政報告會를 開催

12月 17日

- 第3共和國 誕生. 第5代 朴正熙大統領 就任 慶祝式 舉行.

【1964年度】

1月 1日

- 新年 名卿 交禮會을 市長室에서 各級 機關長 및 社會團體長 有志 參加 名卿交禮會 開催

1月 7日

- 市制實施 第1週年 紀念式 舉行.

1月 23日

- 韓屋改良 電力對策委員會 市長室에서 舉行

2月 5日

- 電力 對策協議會 開催. 嶺北地區 韓國電力 誘致을 為한 討議.

2月 14日

- 東草水產業協同組合 漁販場 火災 發生.

2月 20日

- 東草市 移動市廳을 大浦里 事務所에 開廳 運營

3月 25日

- 上水道擴張工事 L22097m 着工.

- 第45週年 3.1節 慶祝式을 市廳廣場에서 舉行

3月 3日

- 東草市廳 教育課가 東草市教育廳 發足으로 移管.

3月 5日

- 國會農林分科委員 김병순의 4名이 農業政策에 對한 資料收集次 來廳.

3月 27日

- 東草市 觀光協會 創立 任員發足에 金東石 東草市長을 會長으로 選任. 副會長 金周赫 李基燮

4月 15日

- 필리핀 地域社會開發委員團 一行 來市.

- 金東成 公報部長官 難聽地區 現地踏查次 來市來訪.

4月 20日

- 東草水利組合 通水式을 鶴沙坪에서 舉行. 朴敬遠江原道知事 參席.

- 嶺北地區 電力對策委聯合委員全員이 地方負擔金中 1千萬원을 郵政資金으로 起債키로 決議 建議.

4月 27日

○글增殖 適地調查를 為해 서울大學教授 崔기철博士 現地踏查.

○下水道工事 LU型 941.9m 着工.

○原子力委員會 최상博士 永郎湖 및 青草湖를 現地 踏查.

4月 30日

○上道門里 雙川 堤防 289m 着工.

5月 3日

○第5回 全國어린이 美術大會를 少年韓國日報主管 開催.

5月 7日

○朴敬遠 江原道知事 地方當面主要事業 確認次來市.

5月 9日

○文化公報部長官 初度巡視次 來市.

5月 12日

○趙成根 大韓通運社長 來市.

5月 15日

○中央市場 副食物販賣市場 開場.

5月 16日

○5.16革命式을 各級國民學校對抗 體育大會를 教育廳主管 舉行.

5月 23日

○顯忠塔 建立準備委員會 開催.

委員長 金東石 東草市長

副委員長 金學鐵 李相德

5月 26日

○上水道擴張工事 D=200%, 대체 L=1,000m, D=150%, 新設 L=1.097m, 總 2,648千원 投入 完工.

5月 29日

○ROYAL, Asia 奬學會員一行 來市.

5月 30日

○市街 道路包裝 起工式 舉行(收復塔에서 校洞間).

○西獨下院議長 E.ケンステン 마이어博士 一行 觀光地觀察次 雪嶽觀光호텔에서 留宿.

6月 1日

○東草市 保健所 起工式을 舉行.

6月 3日

○大韓產業美術家協會 會員一行 來市.

6月 6日

- 第9週年 顯忠日 記念行事 및 顯忠塔 建立除幕式을 永郎洞 現地에서 舉行.
- 6月 15日**
- 桃源橋竣工式을 現地에서 舉行(總工事費 275千원 投入).
- 6月 16日**
- 東草市行政協議會를 市長室에서 開催.
- 6月 18日**
- 國民運動東草市支部主管 反共 응변大會를 第一劇場에서 開催.
- 6月 19日**
- 建設部長官 東海地區 港灣視察次 來市.
- 6月 21日**
- 王子大使 雪嶽山觀光地 視察次 來市.
- 6月 25日**
- 第14週年 6.25 記念式行事을 市廳廣場에서 舉行.
- 6月 30日**
- 韓電誘致 郵政資金 2天萬원 起債에 對한 協議次 박정돈 遞信部 郵政局長 來廳.
- 7月 11日**
- 水產物檢査所落成式 舉行.
- 7月 16日**
- 韓電誘致에 따른 協定締結 및 變電所位置 現地踏查次 관계管 來訪.
- 7月 18日**
- 東草地區 新聞記者團創立結成式 舉行.
- 7月 21日**
- 東草市廳舍 起工式 舉行.
- 7月 25日**
- 韓國電力 江陵支店 東草出張所 開所式 舉行.
- 8月 3日**
- USOM職員一行 PL480: II ○ 助勤勞 및 開墾事業場 現地視察
- 8月 4日**
- 朴敬遠 江原道知事 地方巡察次 來市.
- 8月 7日**
- 新聞倫理法 反對會議開催.
嶺北地區 記者團.
- 8月 11日**
- 第11回 江原道藥師會 定期總會를 神興寺에서 60여명 參席 開催.
- 8月 12日**
- 遞信部長官 東草郵遞局巡視次 來市.
- 8月 15日**
- 第19週年 光復節 慶祝行事을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 慶祝體育大會를 各里對抗 및 國民學校 蹴球와 各 職場對抗 排球 一般部 씨름, 그네, 유도 競技를 實시.
- 8月 17日**
- 李孝祥 國會議長 來市.
- 市行政諮詢委員會 開催.
- 8月 21日**
- 青湖洞事務所 廳舍新築竣工式 舉行.
- 8月 22日**
- 韓電誘致로 江陵~東草間 72km 電柱 1,000株 高壓線 送電線施設工事 完了로 電氣復舊起工式을 東草中學校에서 舉行.
來賓으로 李孝祥 國會議長, 金鍾浩 國會議員, 商工部次官補, 江原道知事, 韓國電力社長 參席.
- 東草市保健所 廳舍辛築落成式을 校洞에서 舉行.
- 8月 25日**
- 金東石 東草市長 離任式(國防大學院 入校).
- 8月 27日**
- 朴建周 東草市長 赴任 就任式.
朴有植 江原道 副知事 參席.
- 8月 30日**
- 金剛會 會長 崔善晚 江原道出身 在日僑胞 來市.
- 8月 31日**
- 江原道 移動道廳을 東草市廳에 開設하고 朴敬遠知事 室局長 參席 運營.
- 10月 30日**
- 下水道工事 LU型 941.9m 總工事費 688千원 投入 完工.
- 12月 23日**
- 韓電誘致 送電工事 完全 竣工.
- 12月 24日**
- 韓電送電 点火式을 現場에서 舉行.
- 來賓으로 李孝祥 國會議長 參席.
- 12月 31日**

- 幹線道路鋪裝工事 延長 1,850m 幅 8.12m(6,100千원) 投入 完工.

【1965年度】

1月 1日

- 新年名卿交禮會를 束草市長室에서 各級機關長 및 社會團體長 有志들이 參加 名卿交禮會 開催.

3月 1日

- 第46週年 3.1節 記念行事를 市廳廣場에서 舉行.

- 大韓航空 空路開設.

4月 15日

- 市街中心街路에 水銀燈 20燈을 60萬원 들여 처음 가설.

4月 5日

- 第20回 植木日 記念行事를 各級機關別 指定된 場所에서 舉行.

5月 26日

- 東明洞 宅地造成事業 實施.

6月 6日

- 第10回 顯忠日 記念行事를 永郎洞 顯忠塔에서 舉行.

6月 23日

- 朴敬遠 江原道知事 年度巡視次 來廳.

6月 25日

- 第15週年 6. 25 記念行事를 市廳廣場에서 舉行.

- 市內 送水管 對替 660m(D=200mm) 着手.

6月 30日

- 都市計劃調查 測量 69,000m² 完了.

- 社團法人 束草文化院 設立.

8月 15日

- 第20週年 光復節 慶祝行事를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8月 20日

- 道立束草病院 建物起工式 舉行.

10月 22日

- 文藝公報社 主催 全國어린이 피아노競演大會에 최우수상을 束草國民學校 5年生 金勝順어린이 입상.

10月 30日

- 이름모를 自由勇士의 碑를 韓國日報社에서 雪嶽山 191의 2番地에 建立.

- 在鄉軍人會 束草聯合會分會에서 無名勇士 追慕 陸海空軍 武裝競技를 舉行.

11月 5日

- 雪嶽山 一圓을 天然紀念物 第171號로 指定 (文公部 告示 228號).

11月 8日

- 鐵礦石실은 리페아貨物船 7千噸級 船員 53名 태운채 大浦港 坐礁.

11月 23日

- 元容奭 無任所長官 東海岸 水產進興請求資金關係豆 來市.

12月 25日

- 市行政諮詢委員會를 市廳會議室에서 65年度 決算報告會 開催.

【1966年度】

1月 1日

- 新年名卿交禮會를 市長室에서 各級機關長 및 社會團體長 有志 參加 名卿交禮會 開催.

- 洞名稱과 區域에 關한 特例公布로 里名稱을 洞으로 改稱.

2月 28日

- 朴敬遠知事 年初巡視次 來廳.

3月 1日

- 第47週年 3.1節 記念行事를 市廳廣場에서 舉行.

3月 17日

- 束草商工會議所設立 創立 推進.

3月 29日

- 束草上空에 飛行접시로 보이는 怪容體出現.

4月 10日

- 宅地造成事業을 2個所에 12,000坪 完工.

- 東明洞에 버스綜合駐車場을 誘致.

4月 20日

- 青草湖水路擴張工事を 67年度 着手, 120m를 開設을 為해 家宅 90棟 撤去.

- 社團法人 束草市觀光協會로 改稱.

5月 6日

- 尺山溫泉開發을 為해 682m의 시추工事 實施 水溫 25°C까지 굴착하여 1계속工事로 年次 的으로 실시하여 45°C이상 굴착토록 推進.
- 5月 11日**
- 東海岸에 2日間 소련飛行機 出現.
- 5月 20日**
- 마을文庫 設置를 落後된 農漁村의 文化向上 과 農村의 農事技術指導와 生活改善을 為해 各種 圖書를 自然部落에 普及(中道門里巍 4個部落).
- 5月 23日**
- 市街道路鋪裝 620m 擴張 120m에 2,399萬원 投入着手.
- 5月 30日**
- 市로 昇格되어 新興產業都市로 發展一路에 있는 바, 社會機能 友好作用을 為한 各級 機關誘致推進委員會 構成.
- 6月 4日**
- 第11回 顯忠日 記念行事를 永郎洞 顯忠塔에서 舉行.
- 6月 8日**
- 市街地街路燈 65年度 이어 95柱의 電柱 設置 150燈 完成.
- 6月 10日**
- 염소滅菌器(YCS刑) 처음 導入 架設.
- 6月 20日**
- 東草市機構 戸籍兵務係를 市民課로 改稱.
- 6月 22日**
- 街路擴張測量 完了와 街路網擴張告示 2.29km 完了.
- 7月 10日**
- 上水道事業 青湖洞 水中配水管 70m 交替.
- 7月 12日**
- 政府에서 雪嶽洞을 國立公園 觀光地施設을 5個年 計劃으로 推進決定.
- 7月 18日**
- 江原道內 市長·郡守 教育長 會議를 東草에서 開催.
- 7月 20日**
- 永郎洞 幹線道路 鋪裝工事を 120m 完了하고 街路擴張 620m 施工.
- 6月 25日**
- 第16週年 6.25記念行事를 市廳廣場에서 舉行.
8月 9日
- 農漁村電化事業을 為한 水路擴張工事에 撤去 對象家屋 200棟 朝陽洞 宅地造成地로 마련 移住計劃.
- 8月 15日**
- 第21週年 光復節 慶祝行事를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8月 20日
- 蘆鶴洞 配水池防水工事 1棟 施工.
- 8月 30日**
- 水產센타를 中央洞 埠頭에 7,500萬원 投入하여 現代式 水產센타 1棟을 建立.
- 9月 10日**
- 코로나 택시 東草市內에 첫 등장.
- 9月 15日**
- 飛仙台에 民間資本을 投資하여 山莊 1棟을 建立하고 양쪽山莊 1棟을 市費投資 骨體工事 完了.
- 9月 18日**
- 內水面開發을 為한 '무지개송어' 12,000尾를 鶴沙坪 賯水地에 放流.
- 9月 26日**
- 商業銀行 東草支店 開店.
- 所野에 堤防改修工事 늘려 3m 延長 1,145m 完工.
- 9月 27日**
- 内雪嶽 봉정암 金潤씨 無名勇士 유골모아 봉안하기 為한 運動으로 널리 알려져各界에서 呼應.
- 9月 28日**
- 東草市廳 舊廳舍에서 新築廳舍로 移轉.
- 9月 30日**
- 第1回 雪嶽祭行事 舉行(山神祭, 登山大會, 산진공모전, 童詩白日場, 美術實技大會 開催).
- 10月 1日**
- 李孝祥 國會議長 東草에 와 雪嶽山國立公園化 推進등 言明.
- 11月 5日**
- 江陵測候所 東草出張所로 發足.
- 11月 27日**
- 東草郵遞局에서 磁石拭電話를 自動式으로 交

替.

12月 24日

- 東草放送局의 放送自家發電에서 韓電 전원공급으로 改良.

【1967年度】

1月 1日

- 新年名卿交禮會를 市長室에서 各級機關長 및 社會團體長 有志 參加 名卿交禮會 開催.

1月 19日

- 海軍警備艇 56艦 漁撈保護中 北傀斧격에 沈沒豆 死亡 11名 失踪 28名 發生.

- 嶺北地區 東海岸 漁民 北傀만행糾彈蹶起大會를 東草公設運動場에서 舉行.

1月 26日

- 花郎軍人會 東草聯合分會에서 紙水船 5톤級 을 新造運營.

2月 16日

- 東草市民憲章制定 및 市花制定.

2月 25日

- 東草市港灣綜合開發計劃樹立 第一次的으로 3,000t級 船舶 出入토록 太白建設局 東草築港事務所를 誘致 本格着手.

3月 1日

- 第42週년 3.1節 記念慶祝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3月 18日

- 內務部 主管으로 東草市廳 會議室에서 接敵地區綜合開發關係官會議를 開催.

4月 3日

- 오징어乾燥場 30棟을 市費投資 各洞別 希望者에게 建築費補助 建築.

4月 5日

- 第21回 植木日 行事 舉行.

4月 6日

- 金鍾泌 共和黨議長 東草中學校庭에서 大統領選舉遊說.

4月 14日

- 東草水協에서 中型漁船 19隻 進水式 舉行.

4月 23日

- 東海出張所 發足 嶺東地區 6個 市郡 管轄.

5月 3日

- 第6代 大統領選舉.

5月 13日

- 交通部에서 서울~雪嶽山間을 國際觀光 韓國第2코스로 指定 計劃.

5月 20日

- 東草에서 미스江原選拔大會 開催.

6月 6日

- 第12週년 顯忠日 記念行事를 永郎洞 顯忠塔에서 舉行.

6月 8日

- 第7代 國會議員選舉 實施.

6月 12日

- 수은街路燈 200燈을 市內一圓에 架設 完工.

7月 17日

- 春川地方法院 東草支院과 春川地方檢察廳 東草支廳 開廳을 舊東草邑事務所에서 始務.

7月 21日

- 雪嶽山 登山路 開設 飛龍瀑布間 摩登嶺間 大青峰間 鐵製로 위험登山路 設置.

8月 7日

- 極東航空社에서 最初豆 東草~서울間 大浦飛行場에 就航.

8月 15日

- 第22週년 光復節 慶祝行事를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8月 16日

- 東草에 海溢豆 防波堤 파손(青湖洞).

8月 28日

- 魚族資源 保護를 為해 鳥島앞과 大浦洞앞 바다에 人工魚礁 125個 制作 投下.

8月 30日

- 雪嶽洞과 權金城間 交通便宜를 為한 民間資金과 國費補助 400萬원 投資하여 飛龍橋를 完工.

9月 8日

- 東草專賣署豆 昇格.

9月 12日

- 大浦飛行場 擴張工事를 1억 원 投入 慶南企業株式會社에서 着工.

9月 25日

- 內水面開發事業을 為해 雪嶽山 臥仙台에 道

- 費 呉 市費 總 100萬원 投入하여 稚魚增殖場 1個所를 設置.
- 10月 1日
- 雪嶽山 飛龍瀑吳 權金城으로 連結하는 飛龍橋를 在鄉軍人會 束草分會에서 架設.
- 10月 3日
- 農漁村電化事業으로 道門洞 雪嶽洞에 242戶 에 總工事費 8,9992千원 들여 電氣架設 完了.
- 10月 8日
- 第2回 雪嶽祭 行事 開幕.
- 第1回 全國山岳人登山大會를 開催.
- 10月 27日
- 朴敬遠 江原道知事 雪嶽山 登山路 擴張工事 確認次 來廳.
- 11月 1日
- 束草市 機構 水產課 新設.
- 11月 15日
- 雪嶽山 登攀隊 遭難者 6名 全員 救助.
- 12月 1日
- 李建確 束草市長 就任.
- 12月 6日
- 交通部에서 雪嶽飛行場 新設을 計획.

【1968年度】

- 1月 1日
- 新年名卿交禮會를 束草市長室에서 各級機關長 및 社會團體長 有志들이 參加 名卿交禮會 開催.
- 1月 28日
- 朴敬遠知事 年初巡視次 來廳.
- 3月 1日
- 第43週年 3.1節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 4月 5日
- 第22回 植木日 行事를 大浦洞 現地에서 舉行.
- 4月 8日
- 束草商業高等學校 設立認可.
- 4月 20日
- 上水道深井掘搾을 通한 地下水開發을 蘆鶴洞에서 全國最初로 試圖 成功.
- 雪嶽山觀光路 開設을 神興寺에서 臥仙台間 3.6km 工事 着工.
- 4月 25日
- 束草警察署에서 請願警察隊發隊(束草放送局).
- 5月 1日
- 大韓航空 束草支社 設置.
- 5月 21日
- 雪嶽洞一帶 保護區域內 建物撤去令으로 明東旅館 撤去始作.
- 6月 6日
- 第13週年 顯忠日 紀念行事를 永郎洞 顯忠塔에서 舉行.
- 6月 8日
- 道門洞雪嶽出張所 設置, 雪嶽山 松月旅館에 臨時事務所를 마련 開所式을 舉行.
- 6月 15日
- 永郎洞 街路整備擴張 幅 25m로 開設 着手.
- 6月 18日
- 束草縫織工場 起工式을 永郎洞 現地에서 舉行.
- 宅地造成事業을 東明洞 1,452坪 校洞 7,065坪 朝陽洞 3,895坪 着工 實施.
- 7月 10日
- 束草海水浴場을 國民觀光休養地로 指定.
- 7月 17日
- 第20週年 制憲節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開催.
- 7月 30日
- 雪嶽山觀光路 開設 延長 3.6km 積 5m 完工.
- 8月 15日
- 第23週年 光復節 慶祝行事를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 8月 20日
- 道立束草病院 新築工事 竣工.
- 8月 29日
- 束草市 機構 公報室을 文化公報室로 改稱.
- 9月 13日
- 束草稅務署 開署式을 校洞에서 開始.
- 9月 30日
- 永郎洞 街路擴張整備工事 500m 開設 完工.
- 10月 3日

- 第4300週年 開天節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
서 舉行.
 - 大韓航空 東草～서울間 1日 3回 就航.
10月 8日
 - 雪嶽山探勝隊 朴敬遠 江原道知事外 135名 内
雪嶽山 外雪嶽 橫斷道路 開通祝賀次 登攀.
10月 9日
 - 第3回 雪嶽祭行事 開幕. 山神祭, 登山大會, 寫
眞공모전, 市民가요콩쿨大會.
10月 24日
 - 嶺東地區 海岸일대 史上最大의 海溢被害 發
生. 家屋, 船舶, 防波堤, 道路流失.
10月 25日
 - 雪嶽山登攀隊 카톨릭醫大生 폭풍으로 6名 遭
難 發生.
11月 10日
 - 海溢漁船復舊建造團 朝陽洞 青草湖邊에 本部
設置. 208隻 新造 着手.
11月 19日
 - 北傀만행규탄궐기대회를 公設運動場에서 거
행.
11月 30日
 - 海溢被害家口 住宅復舊(新築) 朝陽洞 464棟,
校洞 210棟, 入仕拭 舉行.
12月 23日
 - 放送局廳舍新築 東明洞 306의 2번지로 移轉.
- 舉行.
 - 3月 3日**
 - 죽음의 계곡 遭難者 死體 7具 發掘.
3月 5日
 - 遭難者 10名 合洞葬禮式 노루목에 安葬.
3月 15日
 - 東草機構 監查室 新設.
3月 28日
 - 嚴秉吉 江原道知事 初度巡視次 來廳.
4月 5日
 - 第23回 植木日 記念行事를 蘆鶴洞에서 舉行.
4月 20日
 - '68被害漁船復舊 新造進水式을 現地에서 舉
行(總新造 208隻 5억6천3백60만원으로 建
造).
5月 16日
 - 5.16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5月 20日
 - 총혼탑 전립이전(동명동 산62～1번지로).
6月 6日
 - 第14回 顯忠日 記念行事를 顯忠塔 移轉으로
東明洞 山621의1番地 새로 建立된 顯忠塔에
서 盛大히 舉行.
7月 17日
 - 第21週年 制憲節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8月 5日
 - 水產業振興事業으로 문어단지 1,000個, 人工
魚礁 125個 制作 鳥島 및 大浦洞에 投下.
8月 15日
 - 第24週年 光復節 慶祝行事를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10月 1日
 - 雪嶽山登攀隊員 10名 죽음의 계곡에서 遭
難.
10月 9日
 - 測候所 新築廳舍 竣工.
10月 12日
 - 李建雄 東草市長 公務遂行中 過勞殉職.
10月 14日
 - 故 李建雄 市長 市民葬으로 市廳廣場에서 追
悼式을 嚴肅.
10月 14日
 - 雪嶽山을 國立公園으로 指定키로 建設部에서

【1969年度】

- 1月 1日**
- 新年名卿交禮會를 市長室에서 各級機關長 및
社會團體長 有志들이 참가 名卿交禮會 開催.
- 2月 14日**
- 雪嶽山 登攀隊員 10名 죽음의 계곡에서 遭
難.
- 2月 21日**
- 雪嶽山을 觀光地로 指定(交通部告示 第2336
號).
- 2月 22日**
- 雪嶽山登攀 遭難者 救助作業 本格.
- 3月 1日**
- 第44週年 3.1節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協議.

11月 1日

- 海岸警備隊 東草支隊 設置 東明洞에서 開館
始務.

12月 11日

- 東草飛行場 出發~서울行 KAL YS-11
(HL5208號) 拉北未遂事件으로 巨津邑 草島
里 海岸에 불시착.

【1970年度】

1月 1日

- 新年名卿交禮會를 市長室에서 各級機關長 및
社會團體長 有志들이 參加 名卿交禮會를 開
催.

2月 13日

- 地域社會團合大會를 第一劇場에서 1,300餘名
參席 舉行.

3月 1日

- 3.1節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開催.

3月 3日

- 金景山 東草市長 赴任 就任式 舉行.

3月 16日

- 東草商業高等學校 開校.

3月 24日

- 建設告示 28號로 國立公園 指定.

4月 5日

- 第24回 植木日 記念行事를 大浦洞에서 舉行.

5月 6日

- 大浦洞漁販場 覆蓋施設 470萬원 들여 漁民待
機所 設置.

5月 16日

- 5.16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6月 6日

- 第15週年 顯忠日 記念行事를 普光寺 顯忠塔
에서 舉行.

6月 10日

- 水產振興事業으로 문어단지 2,000個 製作 大
浦洞옆 바다에 投下.

7月 1日

- 道門洞雪嶽出張所를 雪嶽洞으로 昇格. 開所
式을 現地에서 舉行.

7月 17日

- 第22週年 制憲節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7月 18日

- 江陵測候所 東草出張所를 東草市測候所로 昇
格.

8月 15日

- 第25週年 光復節 慶祝行事를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9月 6日

- 幹線道路鋪裝을 校洞에서 大浦洞 雙川橋間
4.5km 着工.

10月 1日

- 第5回 雪嶽祭行事 開幕.

10月 7日

- 所野川直江工事着工實施.

10月 9日

- 雪嶽山 權金城 高麗高宗41年에 蒙古侵入 방
어위해 築城 李崇寧博士 調查끝에 밝혀.

10月 13日

- 江原日報 創刊記念 道內 國民學校 야구대회
를 公設運動場에서 9個팀 热戰.

10月 15日

- 所野川 直江工事 2,789m 着工.

10月 20日

- 永郎洞 校洞에 공영주택 65棟 建立 入住.

11月 10日

- 市街幹線鋪裝 校洞~雙川 校洞 4.5km 6,000萬
원 들여 完工.

12月 1日

- 東草支院 支廳 新築廳舍 竣工으로 廳舍移轉.

【1971年度】

1月 1日

- 新年名卿交禮會를 東草市主管으로 市廳會議
室에서 各級機關長 社會團體長 有志 參加 名
卿交禮會 開催.

1月 28日

- 行政諮詢委員會를 市廳會議室에서 開催.

2月 30日

- 嚴秉吉 江原道知事 年初巡視次 來廳.

- 3月 1日**
- 第25週年 3.1節 記念行事를 第一劇場에서 舉行.
- 3月 2日**
- 朝陽國民學校 開校.
- 3月 21日**
- 拉北漁夫 金剛山號 被拉 9個月만에 歸還.
- 4月 5日**
- 第26回 植木日 記念行事를 機關別 指定된 現地에서 舉行.
- 4月 12日**
- 農林部에서 雪嶽山 小金剛等 4個地域을 天然紀念物 保護區域으로 指定.
- 4月 17日**
- 所野川 直江工事 2,780m 1,982,000원 들여 完了.
- 4月 27日**
- 第7代 大統領選舉.
- 5月 14日**
- 朴正熙大統領 江陵 遊說에서 束草~浦項을 잇는 高速化道路 建設을 밝혀.
- 5月 15日**
- 江原日報 社長旗爭奪 道內 國民學校蹴球大會를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 5月 25日**
- 第8代 國會議員選舉.
- 6月 6日**
- 第16週年 顯忠日 記念行事를 普光寺 顯忠塔現地에서 舉行.
- 6月 7日**
- 雪嶽山에서 白色 철쭉꽃이 피어 植物學界 큰 관심.
- 6月 9日**
- 陸軍 第1668部隊 不遇士兵昏기 詩畫展을 束草에서 舉行.
- 6月 16日**
- 校洞外 8事業下水道工事 延長 2.7km 總 19,000千원 投入 完工.
- 6月 25日**
- 第11週年 6.25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 7月 1日**
- 雪嶽山 케이블카 6千萬원 投入 竣工式 舉行.
- 7月 8日**
- 市內 道路鋪裝改修工事 2.7km 總 330萬원 投入 完工.
- 7月 17日**
- 第23週年 制憲節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 8月 5日**
- 青湖洞 防波堤 165m 竣工.
- 8月 10日**
- 國內最初의 단백질 化學飼料工場 校洞에 建立.
- 8月 15日**
- 第26週年 光復節 記念行事를 東寶劇場에서 舉行.
- 8月 20日**
- 鄭相千 江原道知事 初度巡視次 來廳.
- 9月 18日**
- 國立公園管理事務所 開所.
- 9月 20日**
- 所野川 上部 下川改修工事 980m 總 2,100千원 投入 完工.
- 10月 3日**
- 第4303週年 開天節 記念行事를 東寶劇場에서 舉行.
- 10月 8日**
- 第6回 雪嶽祭 行事 開幕.
- 10月 20日**
- 市街地 道路擴張工事를 收復塔에서 中央注油所까지 幅 20m 完工.
- 10月 25日**
- 第8回 賦蓄의 날 記念式을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1972年度】

- 1月 1日**
- 新年名卿交禮會를 束草市 主管으로 市廳會議室에서 各級機關長 社會團體長 有志 參加, 名卿交禮會 開催.
- 1月 10日**
- 時局講演會를 反共聯盟束草支部 主管 東寶劇

- 場에서 演士 韓丙起 議員을 모시고 開催.
- 1月 16日**
- 崔鍾浣 江原道知事 初度巡視次 來廳.
- 1月 20日**
- 束草市 行政諮詢委員會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 東防司領官 淮將 장정열 新任人事次 來訪.
- 2月 2日**
- 水協中央會長 初度巡視次 束草水協에 예방.
- 2月 5日**
- 故鄉심기運動 展開 失鄉民의 마음을 달래여 定着感을 심어주기 為한 살기좋은 이 故場을 만들기 為해 特殊施策으로 展開.
- 3月 3日**
- 國會農村分科委員 韓丙起 외 6名 來市.
- 3月 10日**
- 勤勞者의 날 記念行事를 東寶劇場에서 舉行.
- 3月 15日**
- 束草港 船舶統制所 起工式 中央洞에서 舉行.
- 3月 20日**
- 宅地造成事業을 永郎洞 2,525坪 校洞 3,293坪 일제히 着手.
- 4月 20日**
- 崔鍾浣 江原道知事 時局講演會를 大原劇場에서 開催.
- 5月 6日**
- 束草地區 海洋警察隊로 昇格.
- 5月 15日**
- 水產振興事業으로 外翁峙防波堤 63m 東明洞 物揚場 60m와 漁民대기소와 문어단지 2,000 個 製作 投下.
- 5月 16日**
- 束草市 文化賞 制定. 江原日報 束草支社에서 主催, 束草文化賞委員會 主管 社會奉仕賞 藝術文化賞 教育部分 勤勞部分.
- 6月 2日**
- 鎮海 海軍艦隊司領官 少將 오윤경 來廳.
- 6月 6日**
- 第17回 顯忠日 記念行事를 普光寺 顯忠塔 現地에서 舉行.
- 6月 10日**
- 都市새마을運動 束草市促進大會를 市廳會議室에서 200餘名 參席 舉行.
- 6月 16日**
- 農地改良組合 統合設立委員會를 市廳會議室에서 束草, 襄陽, 高城 組合員 參席 開催.
- 6月 25日**
- 6.25 第22週年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 7月 17日**
- 第24回 制憲節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 8月 10日**
- 束草市 行政諮詢委員會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 8月 15日**
- 第27週年 光復節 記念行事를 東寶劇場에서 舉行.
- 8月 18日**
- 雪嶽山 계곡을 飛行中 헬리콥터 1台 케블카 線에 걸려 추락, 조종사등 4명 死亡.
- 9月 5日**
- 拉北漁夫 93名 歸還 배4척 束草港에 入港.
- 9月 28日**
- 第2回 全國健全歌謡合唱競演大會를 江原道 土管 豫選大會에 束草市 새마을合唱團에서 장려상 수상.
- 10月 3日**
- 第4304週年 開天節 記念行事를 第一劇場에서 舉行.
- 10月 6日**
- 第7回 雪嶽祭 行事 舉行.
- 10月 25日**
- 第9回 賦蓄의 날 記念式을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 校洞~尺山溫泉間 道路 3,500m 總 1,600萬 投入 完工.
- 11月 21日**
- 維新憲法改憲 國民投票 實施.
- 12月 10日**
- 市行政諮詢委員會를 市廳會議室에서 72年度 決算報告 實施.
- 12月 12日**
- 神興寺 境內地를 江原道知事로부터 制定(보

세후 추녀에서 반경 1km내).

12月 15日

○第1代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 選舉.

12月 28日

○雪嶽山 일대 動植物實態調查 結果 1,317種이 서식하는 것으로 學術研究團으로부터 밝혀내.

【1973年度】

1月 1日

○新年名卿交禮會를 束草시 主管으로 市廳會議室에서 各級機關長 社會團體長 有志 參加 名卿交禮會 開催.

1月 28日

○行政諮詢委員會를 副市長室에서 開催.

2月 2日

○束草市 女子副班長制 新設 實施.

3月 1日

○第54週年 3.1節 記念行事를 第一劇場에서 舉行.

○韓國放送公社 束草放送局으로 發足.

3月 10日

○第15回 勤勞者의 날 記念行事를 東寶劇場에서 開催.

3月 15日

○束草시 機構 새마을課, 綠地課 新設, 監查室 폐쇄.

3月 18日

○鄭石謨 江原道知事 初度巡視次 來廳.

4月 5日

○束草市廳 公務員福祉造林事業으로 밤나무 15,000주 大浦洞 市有林에 植栽.

4月 12日

○第2回 少年스포츠대회를 束草市 教育廳 주관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4月 15日

○東昌實業 工場에서 大火災 發生.

5月 11日

○國防大學院生 22名 來廳.

6月 6日

○第18回 顯忠日 記念行事를 普光寺 顯忠塔에

서 舉行.

6月 19日

○漁撈報勞巡迴講演會를 農水產部 主管 東寶劇場에서 開催.

6月 23日

○雪嶽山 進入路 整備事業 總延長 10.5km 着手.

6月 25日

○6.25 第23週年 記念行事를 東寶劇場에서 舉行.

7月 1日

○高城郡 土城面 一部 沙津里 章川里를 束草市로 編入.

7月 15日

○市街地 道路擴張工事 步道, 車道線 區分 가드레이 設置着手.

7月 17日

○第25回 制憲節 記念行事를 視聽會議室에서 舉行.

7月 31日

○拉北漁夫 80名 束草港으로 歸還.

7月 22日

○江原道知事 當面主要事業 現地確認次 來廳.

8月 15日

○第28週年 光復節 記念行事를 第一劇場에서 舉行.

9月 26日

○케이블카 竣工式 舉行.

9月 30日

○市街地 環境整備事業 市內 中心街 完工.

10月 2日

○雪嶽山 觀光客에게 國立公園 入場料 받기로 協議.

10月 3日

○第4305週年 開天節 記念行事를 東寶劇場에서 舉行.

10月 15日

○束草專賣署 新築廳舍로 移轉.

10月 20日

○第8回 雪嶽祭 行事 舉行(全國男女弓道大會를 永郎湖에서 開催).

10月 30日

○雪嶽山 進入路整備事業 10.5km 조경 및 석축

- 세천工事 일제히 완공.
11月 7日
○全國文化院長會議를 雪嶽洞 明雲旅館에서 開催.
12月 22日
○束草警察署 中央派出所 新築工事 竣工式 舉行.
12月 24日
○行政諮詢委員會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12月 27日
○第9代 國會議員 選舉.
- 第16回 勤勞者의 날 記念行事를 東寶劇場에서 舉行.
3月 21日
○建設部長官 來市.
4月 27日
○全國早起蹴球大會를 公設運動場에서 19個팀 參加 實施.
5月 14日
○國防大學院生 來市.
5月 15日
○丁一權 國會議長 束草市에 자전차 30台 寄贈.
6月 6日
○第19回 顯忠日 行事를 普光寺 顯忠塔에서 舉行.
6月 10日
○雪嶽國民學校 開校式 舉行. 外雪嶽國民學校 雪嶽分校에서 昇格.
6月 14日
○江原道地方兵務廳長 初度巡視次 來廳.
6月 25日
○第24週年 6.25記念 緑기大会를 公設運動場에서 15,000餘名 參席 舉行. 市街行進—가장행렬 實施.
7月 17日
○第26週年 制憲節 記念行事를 東寶劇場에서 舉行.
7月 28日
○丁一權 國會議長 歸鄉報告次 來市.
8月 3日
○東邦建設開發公社에서 永郎湖 綜合開發에 着手.
8月 15日
○第29週年 光復節 記念行事를 東寶劇場에서 舉行.
8月 19日
○大統領夫人 故陸女史 國民葬으로 全市民哀悼.
8月 27日
○第4回 全國民俗工藝品競進大會에서 束草市 琴湖洞 朴啓淑氏가 관솔木刻品으로 大統領賞受賞.

【1974年度】

- 1月 1日
○新年名卿交禮會를 束草主管 市廳會議室에서 各級機關長 社會團體長 地方有志 參席 名卿交禮會 開催.
1月 12日
○丁一權 國會議長 來市.
○束草市教育廳 故장영복 學務課長 葬禮式을 束草市教育葬으로 舉行.
1月 16日
○朴鍾星 江原道知事 初度巡視次 來廳.
1月 19日
○嶺北地區 國會議員 代議員協議會議를 市廳에서 開催.
1月 24日
○金寅起 國會議員 來廳.
2月 2日
○崔德新 天道教 教領 來市.
3月 1日
○第55週年 3.1節 記念行事를 동보劇場에서 80餘名 參席 舉行.
○國民會議 代議員事務所 開所式을 中央洞에서 舉行.
3月 2日
○對間諜對策本部長 來市.
3月 3日
○機關長 親善 庭球大會를 檢察廳테니스court에서 開催.
3月 10日

- 8月 29日**
- 公設運動場 石築 및 下水道 工事 竣工
- 9月 3日**
- 金明漢市長 赴任 就任.
- 9月 6日**
- 第4回 全國健全歌謡合唱競演大會를 江原道 豊選大會에 東草市 새마을合唱團에서 우수상 수상.
- 9月 10日**
- 江原銀行 東草支店 開店.
- 9月 17日**
- 朴鍾星 江原道知事 當面主要事業 確認次 來市.
- 10月 3日**
- 第4306週年 開天節 記念行事를 東寶劇場에서 舉行.
- 10月 4日**
- 雪嶽祭 行事 舉行. 種目：山神祭，登山大會를 實施.
- 10月 8日**
- 市行政諮詢委員會 開催.
- 10月 9日**
- 第528週年 한글날 記念行事 舉行.
- 10月 11日**
- 朴鍾星 江原道知事 檢事長 中情支部長 等 雪嶽山登攀橫斷 雪嶽洞 到着.
- 美8軍 司領官 夫妻 秘書官 雪嶽山에서 休養.
- 10月 19日**
- 豫備軍 戰力強化 및 相互親善 武裝競技大會를 在鄉軍人 東草市分會 主管으로 雪嶽洞~東明洞事務所間 走行.
- 10月 25日**
- 第2悔 全國弓道大會를 永郎湖 雪嶽亭에서 舉行.
- 10月 26日**
- 第4回 東草市 職場對抗蹴球大會를 東草記者具樂部 主管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 11月 6日**
- 襄陽郡 降峴面 管內 崔龍國民學校 學生 46名 市廳見學.
- 11月 9日**
- 咸演國 建設課長 停年退任式 舉行.

- 12月 10日**
- 第26回 世界人權宣言 記念行事를 東寶劇場에서 舉行.
- 12月 27日**
- 丁一權 國會議長 來廳, 市政現況 청취.

【1975年度】

- 1月 1日**
- 新年名卿交禮會를 東草市 主管 市廳會議室에서 名卿交禮會 開催.
- 1月 22日**
- 朴鍾星 江原道知事 年初巡視次 來廳.
- 2月 1日**
- 市街地 街路樹 植栽 汎市民運動으로 獻樹金募金 展開.
- 2月 2日**
- 第4共和國 憲法改正案 國民投票 實施.
- 2月 16日**
- 새마을運動 前進大會를 大原劇場에서 舉行.
- 3月 1日**
- 第56週年 3.1節 記念行事를 東寶劇場에서 舉行.
- 3月 10日**
- 第17回 勤勞者의 날 記念行事를 東寶劇場에서 舉行.
- 4月 5日**
- 第30回 植木日 行事를 各級機關別 指定된 現場에서 舉行.
- 4月 6日**
- 第7週年 豫備軍의 날 記念行事를 公設運動場에서 東邦司領官 參席 行事 舉行.
- 中央街路逐條事業으로 家屋撤去 85棟 土地買入 44筆地 下水道 1,200m와 街路築造 거리 620m 幅 15m 着手.
- 4月 10日**
- 海岸道路擴張工事를 青湖洞 210m 大浦洞 80m 새마을就勞所得事業으로 着手.
- 4月 13日**
- 雪嶽山에 平年보다 10日 앞당겨 벚꽃 滿發.
- 5月 10日**
- 永郎橋擴張工事(幅 7m 14m 着工).

- 5月 16日**
○國防大學院生 22名 市廳에 訪問.
- 6月 5日**
○市內 電信電話 地下케이블 매설 第1次工事 着工.
- 6月 6日**
○第20回 顯忠日 記念行事을 普光寺 現地에서 舉行.
- 6月 16日**
○建設部에서 嶺東東海高速道路 開通에 따라 雪嶽洞 集團施設地區로 指定 10月까지 앞당 기기로 決定.
- 6月 22日**
○丁一權 國會議長 歸鄉報告次 來市.
- 6月 25日**
○第25週年 6.25 記念行事을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 6月 26日**
○海岸道路擴張工事 完工.
- 6月 30日**
○永郎橋 擴張工事 1,000萬원들여 完工.
○下水道事業 永郎洞 200m 東明洞 260m 中央洞 450m 琴湖洞 10m 青湖洞 180m 朝陽洞 360m 총 3,200萬 投入 完工.
- 街路樹植栽 은행나무 汎市民獻樹運動으로 推進 總 500株 市民獻樹運動 展開하여 市內 街路樹植栽 完了.
- 7月 17日**
○第27週年 制憲節 記念行事을 第一劇場에서 舉行.
- 7月 18日**
○朴鍾星 江原道知事 嶺東地區 海水浴場 점검 차 來市.
- 7月 26日**
○束草市 行政諮詢委員會을 市廳會議室에서 當面主要事業推進狀況을 報告.
- 8月 15日**
○第30週年 光復節 慶祝行事을 第一劇場에서 舉行.
- 8月 24日**
○大浦洞 水源池施設工事를 3次年 計劃으로 着手.
- 8月 30日**
○束草機構 民防衛課 新設.
- 9月 5日**
○一福文化館 建立推進委員會 構成.
- 10月 3日**
○第4307週年 開天節 記念行事을 東寶劇場에서 舉行.
- 10月 8日**
○第10回 雪嶽祭 行事 舉行. 種目: 山神祭, 登山大會, 豊漁祭, 테니스大會.
- 10月 9日**
○第529週年 한글날 記念行事 東寶劇場에서 舉行.
- 10月 23日**
○第5回 全國健全歌謡合唱競演大會를 江原道豫選大會에 束草市 새마을合唱團에서 장려상 수상.
- 11月 15日**
○以北五道民 主管 離散家族省墓實現을 為한 束草市民궐기大會를 大原劇場에서 舉行.
- 12月 10日**
○第27回 世界人權宣言 記念行事을 東寶劇場에서 舉行.
- 12月 20日**
○中央街路築造工事 375m 着手.

【1976年度】

- 1月 1日**
○新年名啣交禮會을 束草市 主管 市廳會議室에서 各級機關長 社會團體長 地方有志 參석 名啣交禮會 開催.
- 1月 4日**
○新年 始務式을 市傘下 全公務員 參席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 1月 19日**
○朴鍾星 江原道知事 煙草巡視.
- 2月 6日**
○假稱 束草市開發促進委員會 臨時會議을 市長室에서 開催.
- 2月 12日**
○束草市開發促進委員會을 市廳會議室에서

- 170餘名 참석 목우재道路開設 推進키로 決議.
- 2月 13日**
- 第1海域司領官 張世煥准將 來訪.
- 2月 19日**
- 새마을運動前進大會를 大原劇場에서 1,300餘名 참석 舉行.
- 3月 1日**
- 第57週年 3.1節 記念行事를 東寶劇場에서 舉行.
- 3月 10日**
- 第18回 勤勞者의 날 記念行事를 東寶劇場에서 舉行.
- 3月 15日**
- 安保時局講演會를 大原劇場에서 開催.
- 3月 27日**
- 原州군수창기지 司領官 少將 김국주 來市.
- 4月 3日**
- 第8週年豫備軍의 날 記念行事를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 4月 5日**
- 第31回 植木日 行事를 各級機關別로 實施.
- 4月 7日**
- 交通部長官 및 江原道知事 來市.
 - 朴鍾星 江原道知事 來市.
- 第4回 世界保健의 날 記念行事 및 第20週년 記者的 날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 4月 8日**
- 永郎橋 雙橋架設工事 着手.
- 4月 20日**
- 山林廳長 山불豫防對策 및 砂防事業 現地確認次 來市.
- 4月 22日**
- 聖心女子師範大學生 地理科 150餘名이 來訪.
- 4月 26日**
- 第14回 體育週間行事를 東草市 主管 職場蹴球大會를 公設運動場에서 開催.
- 4月 30日**
- 國防大學院生 21名 來訪.
- 5月 12日**
- 春川地方檢察廳 檢事長 東草支廳 初度巡視次 來市.
- 5月 15日**
- 住宅改良事業을 自然部落別 262棟 일제히 着工. 이밖에 담장개량 113棟 下水道 980m 進入路鋪裝 390m.
- 5月 18日**
- 東海出張所長 初度巡視次 來廳.
- 5月 22日**
- 咸鏡道民會를 普光寺 境內에서 開催.
- 5月 25日**
- 勸農日 行事를 蘆鶴洞에서 市傘下 全職員 參席 舉行.
- 5月 26日**
- 第2回 知事旗爭奪庭球 市郡對抗 親善束草地區 豫選大會를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 5月 29日**
- 嶺東地區 初·中·高學生 태권도大會를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 6月 15日**
- 市廳 廳舍 3層 增築 55坪 着工.
- 6月 24日**
- 束草地區 보이스카우트 前進大會를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 7月 7日**
- 內務部長官 國立公園 雪嶽山開發地域 巡視次 來市.
- 武裝共匪射殺有功者 歡迎大會를 東寶劇場에서 市民 多數參加 舉行.(有功者 김종명 일병)
- 7月 21日**
- 朴鍾星 江原道知事 海水浴場 点檢次 來廳.
- 7月 25日**
- 朝陽海水浴場 進入路 250m 開設.
- 8月 5日**
- 束草市 行政諮詢委員會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 8月 8日**
- 永郎橋 架設工事 完工.
- 8月 10日**
- 尺山溫泉場과 雪嶽洞으로 連結하는 목우재道路 2.1km 2,000萬원 投入 初음 道路開設에 着手.
- 8月 15日**

○第31週年 光復節 記念行事를 東寶劇場에서
　舉行.

8月 24日

○第13回 賦蓄의 날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
　서 舉行.

8月 30日

○束草火葬場 및 納骨堂을 蘆鶴洞에 建立.

8月 31日

○市廳舍 3層 增築工事 完工.

9月 17日

○農漁村 1兆원 賦蓄競進大會를 第一劇場에서
　盛大히 舉行.

○束草海警隊에서 新造艇就役式을 現地에
　서 舉行.

9月 10日

○束草學生體育館 新築工事 竣工式을 校洞에서
　舉行 開館.

9月 22日

○民防衛隊 創設 第1週年 記念式을 東寶劇場에
　서 舉行.

10月 5日

○制憲國會議員 53名 來廳.

10月 7日

○第11回 雪嶽祭 行事 開幕.

10月 15日

○第3新進號가 被拉 45日만에 北傀로부터 풀려
　너 束草港에 歸港.

10月 22日

○서울大學校學生 修鍊場 竣工式을 목우재 現
　場에서 舉行.

10月 28日

○10. 28부터 7日間 颱風으로 東海岸 漁船 大遭
　難事故 發生으로 人命被害 115名 失踪.

11月 3日

○全國市道選舉擔當官會議를 市廳會議室에서
　36名 參席 舉行.

11月 19日

○內務部에서 主管하는 第17回 地方行政研修大
　會 研究論文세미나에서 束草市는 班常會運營
　強化方案 主題發表에 入賞 內務部長官으로부
　터 最優秀賞 受賞.

12月 3日

○山林廳長 雪嶽山開發地區 踏查次 來市.

12月 23日

○束草市 行政諮詢委員會를 市廳會議室에서 76
　年度 市政決算報告會를 開催.

【1977年度】

1月 1日

○新年名卿交禮會를 文化院 主管으로 農協束草
　支所에서 名卿交禮會 開催.

1月 11日

○束草青年會議所에서는 市政세미나를 市廳會
　議室에서 開催.

1月 12日

○76. 10. 28 海難家族 107家口에 生計費 37,600
　千원 傳達式을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1月 16日

○第5回 束草市民 氷上競技大會를 永郎湖에서
　束草市體育會 主催 거행.

1月 26日

○새마을運動前進大會를 大原劇場에서 市民 1,
　300餘名 參석 舉行.

1月 27日

○雪嶽圖書館이 束草市文化館으로 移管.

2月 8日

○束草市 永郎湖 71萬餘坪에 民資 12억원 들여
　綜合레저센터를 86年까지 建立키로 計劃確定
　開發着手.

2月 10日

○포플리 大植栽運動推進 공한지 하천부지 90
　ha에 4,600,000원 投資.

2月 22日

○束草市 民間團體 새마을運動協議會를 市廳會
　議室에서 舉行.

2月 24日

○柳忠興 江原道地方兵務廳長 初度巡視次 來
　訪.

3月 1日

○第58주년 3.2節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市傘下 全公務員 參席 舉行.

3月 10日

○第31週年 勤勞者의 날 記念行事를 鄉里劇場

- 에서 800餘名 參席 舉行.
- 3月 15日**
- 韓國反共聯盟 東草市支部 自立運動推進委員會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 3月 18日**
- 東草市 體育振興推進委員會 總會를 市廳會議室에서 50餘名 參석 舉行.
- 4月 3日**
- 東草市 一福文化館 新築工事 竣工 開館.
 - 開館式에 丁一權 國會議長, 在日僑胞 黃七福, 朴鍾星知事 參席.
- 4月 2日**
- 東草市 公設運動場 스텐드工事 着工 總投資費 12,000千원(360m).
- 4月 5日**
- 第32回 植木日 記念行事을 各級機關別 指定現地에서 舉行.
- 4月 15日**
- 永郎~校洞間 循迴道路 쳐음 1,420m 開設工事着手.
 - 雪嶽山 權金城에서 自然石에 파여진 들철구 發見.
- 4月 20日**
- 丁一權 國會議長 一福文化館에 圖書 513卷 기증.
- 4月 21日**
- 孫守益 山林廳長 砂防地 巡視次 來市.
- 4月 30日**
- 節電運動學生雄辯大會를 東草市 主觀 一福文化館에서 開催.
- 5月 3日**
- 東草中學校 排球 全國에서 優勝, 歡迎大會를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 5月 5日**
- 第55回 어린이날 記念行事을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 5月 7日**
- 國防大學院生 21名 市廳에 來訪.
- 5月 11日**
- 建設部 國土計劃局長 雪嶽山國立公園 新團地造成 事業場 現地踏查次 來市.
- 5月 30日**
- 朝陽海水浴場 進入路 擴張工事 500m와 電氣工事を 完工.
- 6月 2日**
- 雪嶽洞 觀光地綜合開發計劃에 依하여 B地區에 取水場과 淨水場施設 工事を 着工.
- 6月 7日**
- 全榮浩 東草市長 赴任 就任式.
- 6月 15日**
- 李鍾培 江原地方兵務廳長 初度巡視次 來訪.
- 6月 27日**
- 東草中央市場 垦地 新有權紛爭을 6年만에 서울高法에서 東草市 勝訴判決.
- 7月 16日**
- 觀光民藝品競進大會 開催, 出品 總119點 出品中 5點 入賞.
- 7月 19日**
- 丁一權 國會議長 實業專門大學을 設立至尋 다짐.
- 7月 21日**
- 東草市 行政諮詢委員會를 市廳會議室에서 開催.
- 7月 21日**
- 丁一權 國會議長 婦人 박혜숙여사 東洋畫 한폭 一福文化館에 寄贈.
- 8月 15日**
- 第32週年 光復節 記念行事을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 8月 16日**
- 崔圭夏 國務總理 雪嶽山에서 休養.
- 8月 25日**
- 東草市 豫備軍綜合訓練場 竣工式을 鶴沙坪現地에서 舉行(工事費 493萬원 投資).
- 9月 6日**
- 青草湖 오염防止對策會議를 市廳會議室에서 80餘名 參석 實施.
- 9月 12日**
- 全國女性代議員 11名 來市.
- 9月 24日**
- 給水事情 惡化로 因한 市民陳情사태 發生.
- 9月 24日**
- 第1回 太白文化祭 民俗藝術競演大會에서 東草市에서 民謡部門에서 道川 메나리 功勞賞과 새마을合唱團에 銅賞을 받음.
- 10月 5日**

- 雪嶽山 新團地 現地確認次 青瓦臺 經濟第一
首席祕書와 6名 踏查 實施.
- 10月 11日
- 第12回 雪嶽祭 行事 實施. 種目：山神祭，登
山大會，豐漁祭，낚시大會.
- 10月 14日
- 東草行政諮詢委員會를 市廳會議室에서 開催.
- 10月 16日
- 大韓佛教 曹溪宗 總務院 主催，新興寺 主觀
大法會를 一福文化館에서 信徒 500餘名 參석
舉行.
- 10月 23日
- 道民學徒體典에서 東草市選手團 綜合優勝.
- 10月 27日
- 東草市 自然保護對策委員會議를 市廳會議室
에서 開催.
- 10月 28日
- 東草市 自然保護協議會 構成.
- 10月 29日
- 東草市記者具樂部 主管 職場親善蹴球大會를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 日本東京農業大學 農友會 探檢部에서 5日間
Chier. Leader 上神各吳典와 12名 學術研究豆
雪嶽山 踏查.
- 11月 5日
- 自然保護 東草市民驟起大會를 東草 公設運動
場에서 舉行.
- 11月 20日
- 雪嶽洞 新團地 取水場工事費(386,991원장) 淨
水場工事費(91,112,738원정) 其他 工事費 송
수관 및 배수관 等(80,817,349원정) 總 210,
000千원 投入 完工.
- 12月 23日
- 道門洞 耕地整理事業 44ha 着工.
- 12月 26日
- 雪嶽山 既存地區 撤去補償金支給을 12月 26
日부터 80年 1月 30일까지 支給.
- 12月 28日
- 東草消防署 開署式을 校洞 新築廳舍에서 舉
行.
- 12月 29日
- 市政報告會를 市廳會議室에서 代議員 行政諮

問委員 市開發委員 開催.

【1978年度】

1月 1日

- 市長，副市長，室課所長 吳 洞長 顯忠塔 參拜.
- 新年名啣交禮會 東草文化院 主管 農協東草支
所에서 名啣交禮會 開催.
- 市長 및 警察署 新正 管內 高齡老人宅을 訪
問 歲拜.

1月 12日

- 東草青年會議所에서 市政세미나를 副市長室
에서 開催.
- 市廳會議室을 새마을研修館으로 運營 實施
市傘下 全公務員은 每週 月曜朝會 開催.

1月 19日

- 朴鍾星 江原道知事 年初巡視次 來廳.

1月 20日

- 元一雪嶽觀光HOTEL 起工式 現地에서 舉行.

2月 3日

- 市政報告會議를 市廳會議室에서 代議員 吳
施行政諮詢委員과 開發委員 연석報告會議를
開催.

2月 10日

- 住民生活相談制 運營을 全國에서 첫 試圖 零
細民 2,922家口 對象 每月 10日에 市傘下 全
公務員이 일제히 家口 訪問相談.

2月 12日

- 業務遂行의 能率化와 迅速化를 制度화하기
爲하 各種行事事例集을 第1輯과 第2輯을 發
刊.

2月 14日

- 垈地所有權認認 및 公認證書 不失記載로 因
한 所有權 保存登記 抹消請求訴를 東草市가
被告 柳東烈外 4名 相對로 1972. 8. 24 江陵
支院에 提訴 6年만에 大法院 判決로 東草市
가 勝訴(中央市場 垈地 1,609坪).

- 汎市民 3大秩序運動前進大會를 大原劇場에서
舉行.

2月 15日

- 移動市廳運營 雪嶽洞事務所에서 設置.

2月 18日

- 海難事故 遺族救護對策會議 開催.
- 2月 20日 完工.
- 雪嶽호텔 建立起工式 舉行.
- 2月 25日 5月 9日
- 全國最優秀班常會 運營을 다짐하는 班長促進
大會를 東寶劇場에서 開催.
- 3月 1日 5月 16日
- 第59週年 3.1節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公務員 및 有功者 200餘名 參席 舉行.
- 3.1節 慶祝 역전마라톤大會를 舉行.
- 3月 6日 5月 18日
- 金武然 江原道知事 初度巡視次 來廳.
- 3月 10日 5月 23日
- 第33回 勤勞者의 날 記念行事를 大原劇場에
서 勤勞者 800餘名 參席 舉行.
- 3月 14日 ○趙誠雲 副市長 東南亞地域 觀光地 視察次 出國.
- 팀스피리트 78訓練參加 動員豫備軍慰問을 東
草市防衛協議會에서 사과 70상자를 蘆鶴洞
現地에서 傳達.
- 3月 16日 6月 1日
- 交通部長官 雪嶽洞新團地 開發事業 確認次
來市.
- 3月 17日 ○雪嶽洞 C地區 公務員아파트 建立 起工式 舉行.
- 3月 18日 ○校洞아파트 第1次 新築 5棟 建立 着手.
- 海難無事故團合促進大會를 一福文化館에서
350餘名 參席 舉行.
- 3月 25日 6月 2日
- 雪嶽國民學校 移轉地 降峴面 上福里에 建立
着工.
- 4月 1日 6月 17日
- 第10週年 豫備軍創設 記念行事를 公設運動場
에서 舉行.
- 4月 10日 ○靈琴亭 畜養場 開場式 舉行.
- 校洞아파트 敷地 7,700坪에 5棟 建立 完工.
- 4月 18日 6月 19日
- 山林廳長 78年度 造林事業 現地 視察次 來市
(自活村一帶).
- 4月 20日 7月 24日
- 校洞아파트 第2次(700세대) 建物 5棟 着手.
- 4月 30日 8月 1日
- 道門洞 耕地整理事業 44ha에 70,000千원 投入
- 雪嶽山 綜合開發計劃에 依하여 雪
嶽洞 舊團地所在 家屋 및 부속사 等 總 987
棟을 東草市에서 28일만에 完全 撤去.
- 丁一權 國會議長 歸鄉報告次 來訪.
- 丁一權 國會議長任을 모시고 市民 1,000餘名
參席 성대히 舉行.
- 東草市 上水道擴張起工式을 大浦洞 現地에서
丁一權 國會議長任을 모시고 市民 1,000餘名
參席 성대히 舉行.
- 第33週年 光復節 및 政府樹立 30週年 記念行
事를 市廳會議室에서 市傘下 公務員 參席 舉行.
- 崔圭夏 國務總理 國立公園 雪嶽山 觀光地事
業 確認次 來市.
- 山林廳長 雪嶽洞 舊團地 조경사업 推進現況
踏查次 來市.
- 第4310週年 開天節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
서 舉行.

10月 14日

- 第13回 雪嶽祭 行事 舉行. 種目：山神祭, 登山大會, 豊漁祭, 낚시大會, 市民慰安잔치(登山人 100,000餘名 參與).

10月 19日

- 金致烈 内務部長官 住宅改良事業 確認次來市, 中道門里 마을에서 金榮浩 市長으로부터 現況 聽取, 金武然 江原道知事 隨行.

10月 28日

- 第4回 國立公園大會를 國立公園協會 主管 雪嶽洞小公園에서 舉行.

11月 6日

- 金鍾浩 國會圖書館長 來訪.

11月 11日

- 北傀蠻行糾彈市民蹶起大會를 總力安保協議會主管 公設運動場에서 20,000餘名 參席 舉行.

11月 13日

- 朴正熙大統領閣下 雪嶽山觀光地 造成 現地祝賀次 東草觀光호텔 3泊 留宿.

11月 15日

- 大統領閣下 市內視察後 金武然知事에게 東草市 道路補修費 등 9억원 支援約束.

11月 20日

- 交通部長官 雪嶽山觀光地 視察次來市.

11月 23日

- 東草에 微震 震度 2°로 建物 약간 흔들려.

- 法務部長官 東草支廳 巡察次來市.

11月 26日

- 丁一權 國會議長 來市.

12月 2日

- 第19代 國會議員選舉候補者 合洞講演會를 東草中學校 교정에서 舉行.

12月 5日

- 第10週年 國民教育憲章 宣布 記念行事를 一福文化館에서 300餘名 參席 舉行.

12月 7日

- 새江原獎學會 注油所 開所式을 現地에서 舉行.

12月 9日

- 東草市 上水道擴張 大浦洞配水池 通水式을 現地에서 丁一權 國會議長 江原道知事 各級機關長 市民 2,500餘名 參席 舉行.

- 李華伯옹 頒德碑 제막식을 蘆鶴洞 現地에서 實施.

12月 11日

- 雪嶽山地區 戰蹟碑 建立를 交通部長官으로부터 雪嶽洞小公園 現地에서 舉行.

12月 12日

- 第10代 國會議員選舉 實施.

【1979年度】

1月 1日

- 市長 副市長 室課所長 呂 洞長 顯忠塔 參拜.
- 新年名啣交禮會를 文化院 主管 農協東草支所에서 名啣交禮會 開催.

- 新年賀禮 市長 警察署長 教育長 管內 高齡者 6家口 訪問 歲拜.

1月 8日

- 金聖培 江原道知事 年初巡視次 來廳.

1月 16日

- 故崔奭鉉洞長 永訣式을 東草市廳葬으로 市廳廣場에서 市傘下 全公務員 및 遺族 親知 等 300餘名 參席 嚫修.

1月 23日

- 市政報告會를 市廳會議室에서 代議員 行政諮詢委員 40여명 參席 開催.

1月 26日

- 金聖培 江原道知事도 閣下 吩咐事業 確認次來市.

2月 9日

- 准將 오경환 第1海域司領官 來訪.

2月 15日

- '79住宅改良事業 및 새마을運動前進大會를 大原劇場에서 市民 1,000여명 參席 舉行.

2月 21日

- 海警隊 新築廳舍竣工式을 現地에서 舉行.

3月 1日

- 第60週年 3.1節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 3. 1節 慶祝 驛傳마라톤大會를 東草市體育會主管 開催.

- 南北當局間 對話促進 1,000萬 署名運動 3.1正午 開始. 東草에서 18日間 總 57,351名 署名.

3月 9日

- 內沟沿 住宅改良 起工式을 現地에서 舉行.

3月 10日

- 第34回 勤勞者의 날 記念行事를 大原劇場에 서 勤勞者 1,000餘名 參席.

3月 15日

- 住宅改良 및 聚落構造改善事業 蘆鶴洞 朝陽 洞 大浦洞 下道門에 229棟 일제히着手.
- 內沟沿 마을 撤去 및 新團地造成事業着手 (家屋 82棟, 商街 14棟 撤去).

3月 19日

- 金英浩 東草市長 先進國 美國 自由中國 香港 水產觀光都市 視察次 海外出國.

3月 20日

- 雪嶽호텔 地下2層 地上8層의 總 60억원 投資 完工.
- 大浦洞 고개 勾配緩和工事 235m 總 23,000千 원 投入 完工.

4月 5日

- 第34回 植木의 날 行事を 蘆鶴洞 新興村에서 市傘下 公務員 參席 舉行.

4月 7日

- 第11週年 豫備軍의 날 記念行事를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4月 9日

- 雪嶽觀光HOTEL 開館式.

4月 10日

- 市街幹線道路鋪裝 永郎洞에서 襄陽郡界間 9.3km 着工.

- 牧牛재 道路鋪裝 校洞에서 雪嶽洞까지 7.2km 着工.

- 雪嶽C地區 公務員아파트 建坪 750坪 50棟 5 層에 總 3억2千만원 投入 完工.

- 벚꽃園地造成을 3月 10일부터 雪嶽洞 進入路 邊 500本 植栽 完了.

4月 12日

- 李源兼 江原地方兵務廳長 兵務行政推進 確認 次 來廳.

- 張一勳 山林廳長 雪嶽山一圓 砂防地 예찰차 來市.

4月 26日

- 統一院長官 雪嶽山觀光地 視察次 來市.

4月 30日

- 파크호텔 敷地 8,180坪 延建坪 4,947坪에 地下3層 地上7層 총 150억 投資 完工.

- 老人亭 休憩所 6角亭 建立 着手.

5月 1日

- 交通部長官 觀光地 視察次 來市.

5月 9日

- 在日僑胞 박영환 一福文化館 訪問享 圖書購入費 100萬원 本市에 寄贈.

5月 19日

- 丁一權 前國會議長 귀향보고차 來廳.

5月 21日

- 共和黨 第4地區黨 改編大會를 一福文化館에 서 開催.

- 朴浚圭 共和黨議長 署理 參席.

5月 29日

- 雪嶽山 自然保護를 史上最大의 이색적인 쓰레기 下山作戰 實施.

6月 5日

- 中央兵務廳長 移動徵兵檢查 實施 確認次 來廳.

6月 6日

- 第24週年 顯忠日 記念行事를 普光寺 顯忠塔에서 舉行.

6月 11日

- 江原銀行 雪嶽山出張所 開所式 舉行.

6月 14日

- 第9回 學徒體育大會를 東草市教育廳 主管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6月 15日

- 道體典 聖火採火式을 雪嶽山 飛仙台에서 舉行.

6月 20日

- 大浦洞 산두꿈 路線 線形變更을 4月에 着工 하여 竣工.

6月 30日

- 牧牛재 頂上切開地 整備工事 6ha 總 4,000萬 投入하여 完工.

7月 10日

- 강신의 濟州道知事 雪嶽山 開發現況 現地 視察次 來廳.

- 牧牛재 道路鋪裝 7.2km에 總豫算 4억3千萬원

- 投入 完工.
- 7月 22日
- 大浦洞 고개 勾配緩和工事 235m 總 23,000千
원 投入 完工.
- 7月 24日
- 全英浩 市長 內務部 山林研修院 教育課程 轉
任會議(8. 1字) 離任式
- 7月 28日
- 朴正熙 大統領閣下 國立公園 雪嶽洞 開發事
業 現地巡視次 뉴-설악호텔 2泊 留宿 現地
確認
- 7月 28日
- 朴正熙 大統領閣下 새벽에 市內一圓을 살巡视.
- 8月 1日
- 趙誠雲 東草市長 赴任 就任.
- 8月 3日
- 忠北 새마을指導者 80餘名 觀光地 見學次 來
訪.
- 東草機構 觀光運輸課 新設.
- 8月 9日
- 東海出張所長 初度巡視.
- 8月 12日
- 市街幹線道路鋪裝 9.3km 總豫算 4억8千萬원
投入 完工.
- 8月 15日
- 第34週年 光復節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市傘下 公務員 參席 舉行.
- 8月 20日
- 上道門 韓屋改良 14棟 完工.
- 9月 12日
- 江原道 統一포協議會 東草統一포會 創立.
- 9月 15日
- 雪嶽洞保健支所 建立 着工.
- 9月 16日
- 牧牛재 道路鋪裝 竣工 및 少年體典基金造成
汎市民걷기大會를 進入路에서 雪嶽洞B地區
까지 行軍 實施.
- 9月 21日
- 第9回 全國健全歌謡合唱競演大會를 江原道
豫選大會에 東草市 새마을合唱團에서 동상
수상.
- 10月 3日
- 第4311週年 開天節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
서 舉行.
- 10月 13日
- 류센부르크 皇太子 雪嶽山 觀光次 來市 파크
호텔에서 留宿.
- 10月 18日
- 英國大使 雪嶽山 觀光次 來市.
- 10月 27日
- 故 朴正熙 大統領閣下 國葬 東草地區 市廳會
議室에 焚香所 設置.
- 10月 30日
- 內沟澗 마을 新團地 移轉에 總 224,166千원
投入 竣工式 舉行.
- 11月 10日
- 老人休憩所 30坪 6角亭 規模의 建物 竣工.
- 11月 17日
- 中央마을金庫 1억동파 2억造成 다짐大會를
中央劇場에서 舉行.
- 11月 19日
- 第14回 雪嶽祭 行事를 停庫坪에서 山神祭만
舉行.
- 11月 20日
- 朝國化學飼料工場 公害豆 閉鑑.
- 11月 30日
- 校洞아파트 建立 竣工.
- 12月 10日
- 市廳舍 3層 增築 78坪 完工.
- 12月 20日
- 東草市 綜合開發세미나를 市廳會議室에서 弘
益大學敎授陣과 地方有志 參席 開催.
- 12月 28日
- 雪嶽洞保健支所 建坪 119坪 總 6千萬원 投資
建立 起工式 舉行.

【1980年度】

- 1月 1日
- 市長以下 室課所長 및 洞長 顯忠塔 參拜.
- 新年名譽交禮會를 商工會議所 主觀 農協東草
支所에서 開催.
- 市長 및 警察署長과 教育長 新正 管內 高齡
老人宅을 訪問 歲拜.

1月 29日

- 東草地區 海洋警察隊 警備艇沈沒合洞慰靈祭
를 東草海洋警察隊 廣場에서 舉行.

- 金聖培 江原道知事 年初巡視次 來廳.

2月 7日

- 80年度 새마을運動 前進大會를 大原劇場에서
舉行.

2月 28日

- 海洋警察隊 警備艇就役式을 東草海洋警察隊
에서 舉行.

- 東草市 行政諮詢委員會議를 市廳會議室에서
開催.

- 劉基天 江原道副知事 由新品種 침종 確認次
來市.

3月 1日

- 第61週年 3.1節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 東草文化院에서 主管하는 第4回 烏날리기大
會를 永郎洞에서 開催.

- 水協進入路 擴張整備工事 着手.

3月 3日

- 丁一權 前國會議長 歸鄉報告次 來廳.

3月 8日

- 안버리기 實踐決議大會를 東草市 主管으로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3月 10日

- 第35回 勤勞者의 날 記念行事를 一福文化館
에서 舉行.

- 東明洞(警察署旁) 下水道工事 200m 着工.

3月 12日

- 江原地方兵務廳長 年初巡視次 來廳.

- 原州遞信廳長 年初巡視次 來廳.

3月 19日

- 墨湖地方港灣管理廳長 來廳.

3月 26日

- 東草市移動市廳을 蘆鶴洞事務所에서 開廳.

- 東草市誌 編纂委員會 構成.

4月 5日

- 植木日 記念行事를 蘆鶴洞에서 舉行.

- 建設部長官 來市.

- 鶴沙坪 防風林造成事業 1ha에 海松 및 오리
나무 10,000本 畜재.

4月 8日

- 東海出張所長 當面主要事業推進 確認次 來
廳.

4月 9日

- 春川地方法院長 來市.

4月 10日

- 金聖培 江原道知事 新品種 침종 확인次 來
市.

- 在日僑胞 母國訪問團 53名 來市.

4月 11日

- 國務總理室 강석천 行政調整官 行政資料 수
집차 來市.

4月 12日

- 豫備軍創設 第12週年 記念行事를 第一劇場에
서 舉行.

4月 15日

- 江原地區 新民黨 第4地區黨 改編大會 參席次
金泳三 新民黨總裁 來市.

4月 17日

- 金榮珍 江原道副知事 初度巡視次 來廳.

4月 18日

- 東明洞 下水道工事 200m 總 10,000千원 投入
完工.

4月 19日

- 第20週年 4.19의 거 記念式을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 파크호텔 開館에 丁一權 前國會議長 交通部
長官 文化放送社長 江原道知事 外 多數 네빈
參席.

4月 23日

- 北傀間諜南派 紛彈大會를 汎市民運動으로 公
設運動場에서 舉行.

4月 29日

- 國防大學院生 教育視察團 市廳 來訪.

5月 1日

- 第17回 法의 날 記念行事를 東草支廳 主管으
로 中央劇場에서 舉行.

5月 5日

- 어린이날 記念行事를 市廳廣場에서 舉行.

5月 8日

- 어버이날 記念行事를 學生體育館에서 舉行.

5月 10日

- 호주大使 雪嶽山 觀光地 視察次 파크호텔에
서 2泊 留宿.
- 5月 24日
- 城南市 새마을指導者 45名 雪嶽山觀光次 來
市.
- 6月 6日
- 第25回 顯忠日 行事를 顯忠塔 現場에서 舉
行.
- 6月 12日
- 大韓教育共濟會에서 유스호스텔 新築起工式
을 現場에서 舉行(道門洞).
- 6月 15日
- 農水產部長官 旱害地域 巡視次 來市.
- 6月 16日
- 金聖培 江原道知事 旱害地域 巡視次 害廳.
- 6月 17日
- 青草湖埋立工事 東亞建設에서 總面積 3萬坪
中 12千坪 本格 埋立.
- 콘도미니옹 建設起工式을 雪嶽洞 B地區에서
舉行.
- 6月 25日
- 第30週年 6.25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舉
行.
- 6月 27日
- 江原道知事 旱害地域 巡視次 來市.
- 7月 17日
- 第32週年 制憲節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 7月 23日
- 國際最高經營者세미나를 雪嶽파크호텔에서
開催.
- 7月 24日
- 在日僑胞母國訪問團 40餘名 本市 來訪.
- 8月 1日
- 崔圭夏 大統領閣下 雪嶽山 觀光地 視察次 파
크호텔에서 2泊 留宿.
- 8月 15日
- 第35週年 光復節 記念行事를 第一劇場에서
舉行.
- 8月 19日
- 地域淨化推進汎市民大會를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 8月 25日
- 青鶴洞(海警隊) 下水道工事 151m 着工.
- 9月 1日
- 市街地 電信 地下케이블 第2次 工事 着工.
- 9月 5日
- 새마을前進大會를 一福文化館에서 새마을指
導者 및 統班長 參席 舉行.
- 9月 10日
- 束草市 2000年代 長期綜合開發計劃 試案 報
告會.
- 9月 20日
- 交通 및 距離秩序確立 汎市民大會를 束草警
察署 主管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 沿岸魚族增殖事業으로 폐타이야 50조를 章沙
洞 앞바다에 投下.
- 9月 30日
- 朝陽派出所 新築廳舍 落成式을 現地에서 舉
行.
- 10月 3日
- 第4312週年 開天節 記念行事를 第一劇場에서
舉行.
- 全國山岳人 淨化決議大會를 市廳廣場에서 全
國山岳人 250餘名 參席 舉行.
- 第15回 雪嶽祭 行事를 山神祭, 登山大會, 漢
詩白日場, 카프화이야 등 舉行.
- 10月 7日
- 在日僑胞母國訪問團 雪嶽山 觀光次 來市.
- 10月 10日
- 市內 有色步道부역 青鶴洞~校洞間 總 18,
600千원 投入 交替.
- 10月 17日
- 一福圖書館 新築起工式 永郎洞 現地에서 舉
行.
- 10月 20日
- 青鶴洞 下水道工事 151m 總 15,000千원 投入
完工.
- 10月 25日
- 第17回 賽蓄의 날 記念式을 一福文化館에서
舉行.
- 11月 5日
- 束草市誌編纂委員會 事務室을 一福文化館으
로 定하여 執筆에 着手.

11月 10日

- 道門洞 下道門里 耕地整理事業 10.7ha 着工.

11月 11日

- 束草經商專門大學 新築起工式을 蘆鶴洞 現場에서 舉行.

11月 14日

- 全斗煥 大統領閣下 民情視察次 束草市 巡視.

11月 15日

- 大統領閣下 一線機關視察次 새벽에 水協漁販場과 市廳 民願室 및 警察署를 訪問.

11月 25日

- 束草消防署 校洞 新築廳舍로 移轉.

11月 26日

- 電信電話 地下케이블 第2次 工事 8個 事業完工.

11月 30日

- 第4回 雪嶽藝術祭을 KBS束草放送局 主管으로 學生體育館에서 舉行.

12月 2日

- 章川里 堤防工事 延長 490m 勞賃就勞事業으로 着工.

12月 10日

- 80年度 全國새마을指導者大會에서 大浦洞 새마을指導者 鄭京岡 協同章을 受賞.

12月 12日

- 移動市廳運營을 朝陽洞事務所에서 開廳.

12月 13日

- 章沙洞 客土作業場에서 鐵器時代로 추산되는 돌칼의 10여점은 發掘.

12月 15日

- 吸引用 糞尿車 차음 導入.

12月 20日

- 市行政諮詢委員會를 市廳會議室에서 80年度決算報告를 開催.

12月 26日

- 水協中央會에서 80年度 貯蓄目標 13억초과達成한 束草市 水產業協同組合에 大統領賞受賞.

12月 30日

- 水協進入路 擴張工事 120m에 85,700萬 投入完工.

- 章川里 堤防工事 490m 總 13,400千원 投入

完工.

【1981年度】

1月 1日

- 市長以下 室課所長 및 洞長 顯忠塔 參拜.

- 新年名譽交禮會를 商工會議所 主管 農協束草支所에서 開催.

- 市長 및 警察署長 新正 管內 高齡者 宅을 訪問 歲拜.

1月 10日

- 地域景氣浮揚對策으로 早期發注事業 起工式을 校洞街路擴張工事場에서 舉行.

1月 15日

- 市內버스 駐車場 移轉에 따른 敷地整地作業을 章沙洞 現地에서 着手.

- 中央劇場 建物노후로 撤去하여 現代式 商街 및 아파트를 建立키 위해 막을 내림.

1月 21日

- 柳根昌 韓國土地開發公社 社長 來訪. 市長의 建議에 따라 82年度 6만餘坪 宅地를 造成하기로 約束.

1月 26日

- 金聖培 江原道知事 年初巡視次 來廳. 市民懇談會議를 市廳會議室에서 開催.

- 章川里 堤防延長工事 540m 着工.

- 校洞道路築造(校洞國校 入口)工事 100m 着工.

1月 30日

- 下水道浚渫機 2台 初음 導入.

2月 5日

- 韓國放送公社 束草放送局의 第1放送權에서 第3放送權으로 改編 放送.

2月 11日

- 새時代의 章을 여는 第5共和國의 新憲法에 따라 大統領選舉人 選舉 實施.

2月 13日

- 國際反共聯合 束草市支部 開設을 青鶴洞 現地에서 開館式 舉行.

2月 21日

- 80年度 內務行政 力點施策事業 市郡綜合 最優秀市로 內務部長官賞 受賞.

- 2月 22日**
- 第5回 鳶날리기大會를 東草市文化院 主管으로 永郎洞(舊 顯忠塔)에서 舉行.
- 2月 27日**
- 故 李達永 葬禮式을 東草市開發委員會葬으로 校洞 自宅에서 永訣式을 舉行.
- 3月 1日**
- 第62週年 3.1節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 3月 4日**
- 彌矢嶺國道 地方道로 格下.
- 3月 5日**
- 어린이育兒院 開院을 校洞天主教會에서 첫 開院式을 舉行.
 - 朝陽洞 어린이育兒院 新築廳舍 建立起工式을 現地에서 舉行.
- 3月 6日**
- 江原道體育會 理事會에서 決定한 特定種目인 道外이클聯盟을 東草市와 襄陽郡에 移讓.
- 3月 9日**
- 章川洞 市界 公園造成 0.3ha 着工.
- 3月 10日**
- 第36回 勤勞者의 날 記念行事를 東草市文化館에서 舉行.
- 3月 11日**
- 81年度 東草市 政策諮詢委員會를 市廳會議室에서 政策諮詢委員會 發足 첫 會議 開催.
- 3月 14日**
- 金容然 總務處長官 雪嶽洞 觀光地 視察次 來市.
- 3月 16日**
- 81年度 새마을運動前進大會를 東草市 職場團體 새마을運動協議會 主管 第一劇場에서 舉行.
- 3月 18日**
- 市廳 새마을課 事務室을 現代式으로 小會議室로 裝飾 첫 開會.
- 3月 19日**
- 校洞住宅進入路 下水道施設工事 1,340m를 現地에서 住民 1,000餘名 參席 舉行.
 - 봄맞이 環境整備 달을 맞아 東草에서는 水協과 合洞으로 港浦口(青草湖) 淨化 自然保護
- 캠페인을 船舶 및 잠수부 等 動員 성대히 舉行.
- 3月 21日**
- 校洞마을金庫에서 2億實績記念行事를 雪嶽單位組合 2層에서 舉行.
 - 江原教育監旗賜탈 第7回 學年別 陸上競技大會를 春川綜合運動場에서 市·郡 16個팀 참가 東草에서 綜合 2位.
- 3月 22日**
- 全斗煥 大統領閣下 東海始 및 江陵地域 民情 視察次 江陵市廳에 來訪, 嶺東地區 市長과 地方有志懇談會에 趙誠雲市長 參席.
 - 市內幹線道路 有色步道부역 第2次 施設工事を 中央洞에서 青鶴洞間 68.78坪 着工.
- 3月 23日**
- 文明麟 海運港灣廳長은 東海地方海運港灣廳 東草出張所 初度巡視次 來市 東草市廳 來訪하여 東草市長의 建議에 따라 東草港灣內 敷地를 本市에 移管 約束.
- 3月 24日**
- 金聖培 江原道知事 當面主要事業 確認次 2個 洞과 市廳 來訪.
- 3月 25日**
- 第11代 國會議員選舉 實施.
- 4月 4日**
- 第13週年 豫備軍의 날 記念行事를 東草市防衛協議會에서 主管 公設運動場에서 舉行.
- 4月 5日**
- 제836回 植木日 記念行事를 各級機關別 指定된 場所에서 植樹.
 - 東明洞 普光寺 부근에 位置한 反共青年殉五勇士墓를 東草反共聯盟 東草市支部에서 主觀發掘하여 火葬後 普光寺에 奉安하고 이들의 넋을 빛내기 為해 塔을 建立할 計劃임.
- 4月 15日**
- 朴鍾汶 江原道知事 初度巡視次 來訪하여 趙誠雲 東草市長으로부터 現況을 聽取 報告받음.
- 4月 17日**
- 請託風潮排擊 市民決議大會를 東草市 主管으로 第一劇場에서 10時에 各級機關長 및 社會團體代表 管內 淨化委員 地域指導者 1,000여명

명 參加하여 開催.

4月 18日

○請託風潮排擊 汎市民決議大會를 第一劇場에
서 舉行.

4月 23日

○釜山市 模範公務員 73名 來市 市政現況 聽
取.

4月 26日

○大韓小兒科學會 第31次 學術大會를 雪嶽파크
호텔에서 350명 參席 開催.

4月 27日

○丁一權 前國會議長 來市.

4月 29日

○治安第1本部長 새마을事業 現地確認次 來市.

5月 1日

○法의 날 記念行事를 一福文化館에서 開催.

5月 2日

○장애인청소년 위안잔치를 시청회의실에서 각급
기관장 참석한 가운데 거행.

○속초시 축구협회장기쟁탈 職場親善 축구대회
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月 5日

○第59回 어린이날 記念行事를 市廳광장에서
거행.

5月 7日

○새마을指導者 體育大會를 公設運動場에서
500여명 參席 거행.

5月 8日

○아버지날 記念行事를 東草體育館에서 舉行.

○道內 國民學校長 會議를 뉴설악호텔에서 開
催.

○朴鍾汶 江原道知事 當面主要事業 確認次 來
廳.

5月 11日

○佛紀 2575年 석가탄신일 경축 법요식을 新興
寺에서 開催.

5月 12日

○東草市 副市長 安球淳 就任式 舉行.

5月 15日

○第6回 世宗藝術祭를 中央國民學校 主催 第一
劇場에서 舉行.

5月 20日

○第2南進號 拉北漁船 漁夫 19名 歸還.

5月 21日

○安保政勢報告會를 市廳會議室에서 開催.

5月 22日

○第33回 勸農日 行事를 各級機關別 指定된 場
所에서 舉行.

○東警司領官 離就任式을 東警司연병장에서 舉
行.

5月 23日

○明星전주리크럽 起工式을 鶴沙坪 現地에서
舉行.

5月 25日

○青杆亭 補修工事 竣工式에 趙誠雲 東草市長
參席.

6月 3日

○交通部長官 來市(明星그룹 觀光綜合休養地
開發事業 現地踏查).

6月 6日

○第26回 顯忠日 行事 顯忠塔 現場에서 舉行.

6月 9日

○江原道移動徵兵署 巡視次 中央兵務廳長 來
廳.

6月 25日

○趙誠雲市長 太白市長 轉任發令(7. 1字) 離任
式 舉行.

7月 1日

○鄭俊時 東草市長 赴任 就任.

7月 10日

○民正黨 江原道第5地區黨委員長 鄭在哲 議員
來廳 市政業務 聽取.

7月 11日

○青湖洞 破壁堤工事 起工式 舉行. 鄭在哲 議員
朴鍾汶 江原道知事 參席.

7月 17日

○第33週年 制憲節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7月 22日

○江原道 主管 地方行政聯勝大會를 東草市 會
議室에서 21市郡 總務·內務課 參席 開催.

7月 30日

○崔圭夏 前大統領 雪嶽파크호텔 留宿(8. 2 出
發).

- 8月 1日
○束草市 政策諮詢會議를 市廳會議室에서 開催.
- 8月 6日
○영기호 拉北漁船 귀환어부 束草港 歸港.
- 8月 15日
○第36週年 光復節 記念行事 一福文化館에서 舉行.
- 8月 17日
○朴鍾汶 江原道知事 當面主要事業 現地確認次來市.
- 8月 18日
○安全操業汎市民질기大會를 束草水協 漁販場에서 3,000餘名 參席 舉行.
- 8月 19日
○寒溪嶺 道路鋪裝 竣工式 參席次 南惠祐 國務總理 來市.
- 9月 4日
○第12回 江原日報社長旗爭奪 道內國民學校蹴球大會를 束草市 公設運動場에서 3日間 開催.
- 9月 5日
○平和統一政策諮詢會議 束草市協議 懸板式 舉行.
- 朴鍾汶 江原道知事 當面主要事業 確認次 來市.
- 9月 28日
○江原道知事旗爭奪 驛傳마라톤大會를 江陵文化放送 主管 江陵~束草間 開催.
- 束草專門大學 開校 第1週年 記念을 맞아 蘆鶴祝典 3日間 開催.
- 9月 29日
○校洞派出所 竣工式 現地에서 舉行.
- 10月 3日
○第4314週年 記念行事를 市廳會議室에서 舉行.
- 10月 4日
○朴鍾汶 江原道知事 새마을事業 現地 踏查次來市.
- 10月 10日
○第16回 雪嶽祭 開幕.
- 10月 12日
○新興寺 四天王像 奉安點眼式 舉行.
- 10月 16日
○國防大學院生 21名 來訪.
- 10月 21日
○外國武官團 42名 來訪.
- 10月 23日
○雪嶽圈 3個市郡 共同汚物 下山作戰 展開.
- 11月 6日
○束草市教育廳傘下 國民學校 民俗競演大會를 公設運動場에서 開催.
- 11月 9日
○國會 國防分科委員, 農水產分科委員 來市.
- 11月 23日
○鄭俊時 束草市長 東南亞觀察次 出國.
- 12月 2日
○水協進入路 延長工事 竣工(160m).
- 12月 3日
○카나다 엘버타州 貿易局長 來市.
- 12月 10日
○第33週年 世界人權宣言 紀念式을 一福文化館에서 舉行.
- 12月 29日
○明星그룹 觀光綜合休養地 콘도미니엄 竣工式을 現地에서 舉行.
- 12月 30日
○琴湖洞 聯立住宅 50棟 完工.

속초문화원 임원 명단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원 장 | 지 일 권 | 중앙동 469-15 | 33-5100(자택) |
| 부 원 장 | 최 용 문 | 동명동 250-5 | 33-3233(자택) 33-3669(직장) |
| 이 사 | 이 태 형 | 동명동 523번지 | 33-3618(자택) |
| | 김 봉 해 | 동명동 450-39 | 33-3411(자택) 33-2021(직장) |
| | 이 소 석 | 영랑동 양우APT B동 704호 | 33-6740(자택) |
| | 김 철 섭 | 중앙동 468-144 | 31-2292(자택) |
| | 오 윤 근 | 교동 656-5 | 33-8817(자택) |
| | 김 기 명 | 청학동 PRO-SPECS대리점 | 32-8518(자택) 33-5592(직장) |
| | 이 인 철 | 교동 780-118 | 33-2177(자택) |
| | 권 덕 명 | 교동 769, 14통 7반 | 33-3402(자택) |
| | 전 석 규 | 대포동 3통 1반 | 33-5475(자택) |
| | 노 광 복 | 동명동 8통 2반 | 32-9014(자택) 32-8907(직장) |
| 감 사 | 홍 성 만 | 교동 로얄1차APT A동 401호 | 33-4026(자택) 31-4900(직장) |
| | 이 광 춘 | 금호동 성진주택 9동 306호 | 33-3920(자택) |
| | 최 경 순 | 중앙동 496-55 | 32-8059(직장) 32-6590(자택) 33-3668(직장) |

속초문화원 회원 명단

| 성명 | 직위 | 주소 | 전화번호 |
|------|--------------|-------------------|---------|
| 강 사권 | 상업 | 중앙동 493-93, 8/6 | 32-5108 |
| 강 용상 | 전 지방공무원 | 중앙동 5/3 | 33-3068 |
| 강 수길 | 관동인쇄소 | 교동 664-76 | 33-2384 |
| 고 영학 | 영동철물 대표 | 영랑동 5/3 | 33-5374 |
| 권 덕명 | 전 속초중교장 | 교동 769, 14/7 | 33-3402 |
| 김 광수 | 예총지부장 | 교동 로얄1차 B동 409호 | 32-8322 |
| 김 광수 | 속초자동차학원 | 도문동 1628-14 | 32-1187 |
| 김 기명 | 프로스페스대리점 | 동명동 15/4 | 33-5592 |
| 김 동하 | 속초서예학원 | 중앙동 6/2 | 31-2831 |
| 김 보한 | 전 지방공무원 | 조양동 1398-6 | 33-4042 |
| 김 봉해 | 문화인쇄소 대표 | 동명동 450-39 | 33-2021 |
| 김 석열 | 제일포목점 | 금호동 473-45, 10/2 | 32-7140 |
| 김 수철 | | 중앙동 472-19, 3/5 | 33-2282 |
| 김 연진 | 전 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 | 중앙동 471-30, 8/3 | 33-3198 |
| 김 영복 | 미협 속초지부장 | 금호동 16/3 | 33-4180 |
| 김 영복 | 삼해장 회집 | 대포동 421-19 | 32-5220 |
| 김 영파 | 제조업 | 청학동 금강아파트 B동 105호 | 31-2649 |
| 김 용구 | 전 선거관리위원회 과장 | 동명동 513-52, 14/2 | 33-3368 |
| 김 재섭 | 영랑약국 | 영랑동 6/3 | 33-2416 |
| 김 정일 | 신우사 | 중앙동 475-24 신우사 | 33-5515 |
| 김 정우 | 농업 | 장사동 3/1 | 31-6035 |
| 김 정한 | 상업 | 교동 739-1 | 33-6677 |
| 김 종근 | 유원건설 성무 | 동명동 450-223 | 31-3509 |
| 김 종록 | 전 속초문화원장 | 동명동 530-1 | 32-1557 |
| 김 주진 | 오복당제과 | 금호동 4/1 | 33-1234 |
| 김 철섭 | 제일라사 대표 | 중앙동 468-144, 1/5 | 33-2292 |
| 김 청호 | 동아회집 | 중앙동 1/1 | 33-5407 |
| 김 충호 | 동제약국 | 금호동 484-7 | 33-2211 |
| 김 치룡 | 유일택시 | 금호동 16/3 | 33-3847 |
| 김 태영 | 전 평통위원장 | 조양동 923, 7/1 | 33-3620 |
| 김 유자 | 정화숯불갈비 | 대포동 산34-1 | 32-5260 |
| 김 해련 | 새싹유아원 | 중앙동 12/1 | 33-3704 |
| 김 형기 | 전 속중교감 | 교동 655-59 | 33-3735 |
| 김 형동 | 전 상공회의소회장 | 교동 로얄맨션 404호 | 33-3576 |
| 김 형진 | 평화양행 | 중앙동 476-83 | 32-8859 |
| 노 광복 | 대일레미콘 관리이사 | 동명동 8/2 | 32-9014 |
| 동 문성 | 재향군인회장 | 동명동 450-22, 4/4 | 33-3721 |
| 박 명자 | 교동새마을금고 이사장 | 교동 780-118 | 32-6423 |
| 박 순오 | 양양향교 | 노학동 2/1 | 32-2895 |

| 성명 | 직위 | 주소 | 전화번호 |
|-----|---------------|----------------------|----------|
| 박영도 | 속초고등학교동문회 간사 | 영랑동 8/1 | 32-4913 |
| 박익훈 | 전 국교장 | 교동 6/5 | 33-5468 |
| 박장건 | 전 극단 '태'대표 | 청학동 6/4 | 33-3057 |
| 박종현 | 시인 | 교동 주공아파트 2-506 | 33-8705 |
| 박창서 | 변호사 | 동명동 450-50 | 33-2689 |
| 박춘원 | 함경조선소 | 청호동 1115번지 | 33-2985 |
| 서동석 | 항운노조 | 교동 769-22, 14/7 | 33-5300 |
| 신원하 | 전 연극협회지부장 | 금호동 621-47 | 33-4300 |
| 심경섭 | 상업 | 동명동 450-110 | 33-4043 |
| 심병섭 | 전 사회과장 | 동명동 569-2 | 33-3186 |
| 심정현 | 강원일보사 | 교동 강원일보사 | 32-1254 |
| 안국준 | 수산업 | 금호동 481-3, 1/4 | 33-3687 |
| 양숙희 | 한국무용가 | 금호동 482-103, 1/6 | 33-3913 |
| 엄상빈 | 사진작가 | 금호동 성진 10-307 | 33-1919 |
| 엄주천 | 서예가 | 중앙동 473-25 | 33-3066 |
| 여석창 | 전 동장 | 청호동 587번지 | 33-4184 |
| 오경준 | 전 공무원 | 영랑동 157-27번지 | 33-3610 |
| 오윤근 | 청운동서실 | 교동 656-5 | 33-8817 |
| 오재정 | 전 교동국교장 | | 671-2316 |
| 윤병정 | 중앙주택조합장 | 중앙동 471-89 | 33-3042 |
| 윤유근 | 설악가방 | 중앙동 6/6 | 33-4882 |
| 윤종구 | 속초시의회 의원 | 동명동 466-58 | 33-2533 |
| 윤홍렬 | 전 예총지부장 | 교동 780-52, 16/3 | 33-1155 |
| 은상래 | 전 체육회 사무국장 | 영랑동 6/1 | 32-7184 |
| 이광춘 | 금호동새마을금고 이사장 | 금호동 성진주택 9동 306호 | 33-3920 |
| 이건석 | 지방행정동우회장 | 동명동 469-36 | 33-3987 |
| 이기영 | 강원전업사 | 동명동 450-181 | 33-2130 |
| 이난식 | 전 동장 | 조양동 7/1 | 33-4460 |
| 이래현 | 상업은행, 청봉사진동우회 | 교동 럭키타운아파트 2동 1502호 | 32-6564 |
| 이만원 | 부동산중개업 | 동명동 450-144, 7/4 | 32-6439 |
| 이문표 | 현대전업사 | 청학동 482-281, 4/2 | 33-3883 |
| 이상국 | 시인 | 교동 주공2차아파트 209동 403호 | 32-8586 |
| 이성선 | 시인(물소리시낭송회) | 교동 799-93 | 33-3743 |
| 이소석 | 요식업조합장 | 영랑동 양우APT B동 704호 | 32-8074 |
| 이영일 | 시민서점 | 금호동 479-26 | 32-8506 |
| 이원식 | 금호동장 | 청학동 482-285, 3/1 | 33-4181 |
| 이원익 | 냉동업(유신냉동) | 중앙동 468-27 | 33-2462 |
| 이원재 | 동우전문대교수 | 노학동 산244 | 32-6551 |
| 이인철 | 전 설악여중 교감 | 교동 780-118 | 33-2177 |
| 이종우 | 전 동장 | 도문동 517-6 | 34-7230 |
| 이종욱 | 양양향교 총무 | 조양동 1419-32, 11/1 | 32-6531 |
| 이진우 | 성악가, 동우전문대교수 | 교동아파트 9동 504호 | 32-6231 |

| 성명 | 직위 | 주소 | 전화번호 |
|-----|-------------|--------------------|---------|
| 이태형 | 동우전문대교수 | 동명동 10/3 | 33-3618 |
| 이호순 | 전 고교장 | 동명동 523번지 | 33-3034 |
| 임덕수 | 동우전문대교수 | 교동 767-197 | 32-8031 |
| 장규호 | 조광상운 전무 | 중앙동 11/2 | 33-5013 |
| 장세환 | 전 미협지부장 | 중앙동 468-65 | 32-1278 |
| 장현영 | 전 속초문화원장 | 중앙동 500-8 | 33-5013 |
| 전상기 | 도의회 의원 | 조양동 1141 | 32-6417 |
| 전수길 | 상업(반도패션) | 동명동 427, 12/4 | 33-6349 |
| 전석규 | 전 대포국교장 | 대포동 3/1 | 33-5475 |
| 전영수 | 상업 | 중앙동 471-4, 5/2 | 33-4717 |
| 전태국 | 속초컴퓨터 | 중앙동 속초컴퓨터월드 | 31-4414 |
| 정종훈 | 전 국교장 | 청학동 482-37 | 32-2492 |
| 정원철 | 전 영동서예학원장 | 교동 780-169, 10/6 | 32-4909 |
| 조영호 | 상업 | 동명동 10/5 | 33-4591 |
| 주상훈 | 속초고등학교 교사 | 영랑동 송하아파트 2동 207호 | 33-7494 |
| 지웅준 | 설악서예학원 원장 | 영랑동 482-206 | 31-8816 |
| 지일권 | 속초문화원 원장 | 중앙동 469-15 | 33-5100 |
| 진형선 | 농업 | 조양동 1243-1 | 32-3540 |
| 최경순 | 화신상회 | 중앙동 496-55, 7/4 | 32-6590 |
| 최낙민 | 미협속초지부 총무 | 설악동 246-119 | 33-7019 |
| 최무일 | 제일약국 | 동명동 450-118 | 33-3844 |
| 최상규 | 속초시 경우회장 | 동명동 7/1 | 32-3593 |
| 최용문 | 대일레미콘 회장 | 동명동 250 | 33-3233 |
| 최정길 | 운수업 | 조양동 1409-5 | 33-5501 |
| 최재도 | 회곡작가 | 중앙동 12/3 | 33-1354 |
| 최현식 | 신길철강상사 | 교동 664-164 | 33-2632 |
| 최홍순 | 전 동장 | 동명동 469-33 | 33-3671 |
| 탁창식 | 속초고등학교 교사 | 교동 대양빌라 가동 303호 | 33-6406 |
| 한고본 | 농업 | 장사동 567번지 | 33-3780 |
| 함영태 | 현대슈퍼마켓 | 금호동 473-46 | 33-3456 |
| 허장길 | 중앙주택조합 상무 | 중앙동 495-1 | 33-5237 |
| 홍성만 | 다경피혁주식회사 상무 | 교동 로얄1차아파트 A동 401호 | 33-4026 |
| 황수복 | 수산업 | 중앙동 2/6 | 33-2237 |
| 황병찬 | 사업 | 중앙동 473-112 | 33-2136 |
| 김대수 | 상업 | 조양동 4통1반 | 33-1253 |
| 배영덕 | 상업 | 동명동 466-2, 6/1 | 33-3350 |
| 최종준 | | 동명동 5/5 | 33-2634 |

한 장의 귀한 옛사진을 찾습니다.

本文化院에서는 문화은행에 보존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문화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의 종류

* 문헌자료 : 향토사, 지명, 인물 등에 관한 기록 등

* 사진자료 : 속초의 옛풍물, 인물 등을 찍은 사진

* 음향자료 : 강연, 연설 기타 주요인물의 육성 등

2. 수집기간 : 제한없음

표지화



이 래 현

- 1954. 1. 4 生
- 87 제물포 사진대전 입선
- 전국사진공모전 입상 및 입선 다수 (25회)
- “월간 영상” 추천작가
- 한국상업은행 속초지점 근무
- 속초문화원 회원, 속초 청봉사진동우회 회원

東草文化院 출판 유통부

1991년 12월 20일 제7호 출판
1991년 12월 31일 유통

편집위원

편집위원

주간 이건석
위원장 박익훈
오세하
이인철
오윤근
김광수
심정현
최현식
간사 최재도

束草文化 제7호 <비매품>

인쇄 : 1991. 12. 20

발행 : 1991. 12. 31

발행인 : 池一權

발행처 : 束草文化院

인쇄처 : 강원일보사출판국

우리지역의 사회·체육·문화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강릉 한약방



임주현
(속초시 씨름협회장)

속초시 동명동 450-199
(시외버스터미널 옆)

**TEL. 33-5204
32-5204**

大韓佛教曹溪宗 第三教區 本寺

雪嶽山神興寺

住持 法學博士 金慧法



神

興寺는 新羅 眞德女王 6 年
(652) 慈藏律師께서 創建
하여 香城寺라 이름하였

다. 그 후 화재로 소실된 것을 조
선 인조22年 (1644)에 縱瑞,
惠元, 蓮玉 세 스님이 중건하여 神
興寺라 개명하였다.

神興寺에는 創建 당시 주조한 대
종과 조선 순조께서 하사하신 청동
시루, 극락보전 (指定文化財14號),
경판(指定文化財 15號), 보제루 (지정문



화재 104호) 및 香城寺址 三層石
塔(寶物 第443號)이 보
존되어 있다.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4호 신흥
사 극락보전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5호 신흥사 경판 강원도지방유형
문화재 제104호 신흥사 보제루 지정
문화재이외의 문화재 제11호 신흥사(계
조암·내원암·안양암·부도 포함) 동산문
화재등록 : 신흥사 아미타 3 존좌상외 9 점